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인류학석사 학위논문

“윤리적 기자” 되기

기레기 담론과 기자 정체성의 교섭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조 윤 지

“윤리적 기자” 되기

기레기 담론과 기자 정체성의 교섭

지도교수 김 재 석

이 논문을 인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조 윤 지

조윤지의 인류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6월

위원장 이 승 철 (인)

부위원장 김 재 석 (인)

위원 박 지 환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언론의 세월호 참사 보도 이후 “기레기” 담론이 언론의 주요한 윤리 담론으로 등장한 것에 주목하여, 기자 준비생 및 기자들이 기레기 담론과 교섭하며 기자로서의 윤리적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기레기 담론을 기자 준비생 및 기자의 윤리적 자기정체성이 형성되는 일상적 실천의 맥락에 위치시킴으로써, 기자됨의 과정에 개입하는 언론 윤리 및 개인의 능력, 그리고 언론 시장의 자본 구조가 얽혀 있는 양상을 조명한다.

기레기 담론은 한국의 정치사회의a의 궤적을 따라 형성된 언론 윤리 담론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한국의 언론은 정치권력과의 관계에서 정파적으로 양극화되었고 자본과의 관계에서 자본의 영향력에 잠식당해 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중에 의해 호명된 기레기는 이와 같은 한국 언론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 기표이다. 연구자는 기레기라는 기표가 언론의 비윤리성을 비판하기 위한 표현으로 확산되어 사용되면서 언론의 윤리적 성찰을 요구하는 하나의 담론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고, 기레기 담론이 정파적 기레기와 일상적 기레기라는 두 가지 함의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레기 담론에 대하여, 기자 준비생은 혐오에 근거한 정파적 기레기 호명을 비판하고, 일상적 기레기를 성찰의 근거로 삼아 예비 기자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때 준비생들은 일상적 기레기가 만들어지는 언론사의 구조적 문제를 간파함과 동시에, 자신들 또한 구조적 제약에 의해 기레기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생들은 이러한 간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자직을 지망한다. 본 연구는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태도를 가능하게 하는 인식론적 토대를 준비생들의 자기 인식, 가치관 및 태도, 언론 산업에 대한 이해 방식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준비생들은 정파적 기레기를 호명하는 대중과 거리를 둬으로써 자신들을 대중의 입장보다도 예비 기자의 자리로 위치시킨다. 또한 ‘객관성’을 기자가 가져야 할 윤리적 가치관으로

수용함으로써 자신들이 갖고 있던 당위적인 신념보다도 중립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여 제시하려는 태도를 중요시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성향의 언론사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일상적 기레기가 만들어지는 구조적 문제에 주목함으로써 비윤리적인 기사와 비윤리적인 기자를 구분하여 인식한다. 이와 같은 인식에 기반하여 준비생들은 기레기 담론 안에서도 윤리적인 기자가 될 가능성을 기대하며 기자를 지망한다.

언론사에 입사한 기자들은 자신을 회사의 상사, 취재원, 수익원 등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대적 열위에 있다고 인식하며, 의도치 않게 기레기가 되어버리는 환경에 있다고 인식한다. 자신이 속한 매체와 부서에 따라 다양한 ‘을’의 위치에서 기자들은 저마다의 기레기를 정의하고, 이 기레기의 정의를 준거로 삼아 윤리적 실천을 수행한다. 연구자는 이때의 윤리적 실천을 ‘반(反)기레기적 실천’으로 명명한다.

기자들의 ‘을’이라는 자기 인식은, 기자들이 기레기 담론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대항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윤리적 실천을 수행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 기자들은 정파적 기레기를 거부하고, 기사에 정치적인 주장을 드러내기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넣음으로써 탈정치적 윤리를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일상적 기레기를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일부 수용하면서도, 언론사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는 현장의 막후에서 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한다. 한편 일부 기자들은 자신의 위치가 을이 아닌 갑이며, 갑의 위치에서 직업적 이득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을의 위치에서 가능했던 윤리적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언론계를 떠나버리는 윤리적 실천을 선택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언론을 향한 불신과 비난이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직을 선택한 사람들이 윤리적 성찰을 시도하며 기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탐구한다. 그동안 기레기 담론은 비윤리적 기자를 향한 대중의 호명 및 언론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는 현상으로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자는 언론 구조에 대한 비판이라는 거

시적인 맥락 위에서 기레기 담론을 이해하기보다, 기레기 담론의 한가운데에서 담론의 의미들을 실질적으로 겪어내고 있는 주체들인 기자 준비생과 기자들에 주목하고자 했다.

주요어 : 기레기, 기자 정체성, 일상의 윤리, 언론 구조, 기자 준비생
학 번 : 2021-24156

목 차

I . 서론	1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3
1) 언론 윤리와 윤리의 인류학	3
2) 언론 관행, 수행, 정체성	6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9
4. 논문의 구성	12
II . 한국 언론 윤리 담론 형성의 궤적	15
1. 정치권력 대 언론, 자본 대 기자	16
1) 정치권력의 제도적 탄압과 언론의 양극화	16
2) 자본의 상업주의적 개입과 기자의 독립성	22
2. 대중과 언론의 윤리적 길항	26
1) 기레기: 대중의 기자 호명	26
2) 일상적 기레기와 정파적 기레기	31
3) 기자 비판과 기자 혐오의 사이에서	39
III . 윤리적 기자 지망하기	47
1. ‘언시생’이자 ‘취준생’이라는 딜레마	47
2. 불합리한 언론 구조에 대한 간파	55
3. 윤리적 딜레마의 극복 방식	62
1) 대중과의 거리두기	63
2) 객관성의 수용	69
3) 기사(記事)와 기자(記者)의 구분	75

IV. 주변화된 기자 되기	81
1. ‘을’로서의 기자	81
1) 기자 되기의 이율배반	81
2) 친화력의 맹점	89
3) “우리는 비즈니스 라이터”	97
2. 기레기 담론과 윤리적 실천의 접합	103
1) 대항: 탈정치적 윤리	104
2) 수용: 일상의 윤리	110
3) 탈주: “기렉시트”의 윤리	118
V. 결론	126
참고문헌	131
Abstract	142

표 목 차

[표 I-1] 면담자 목록	10
----------------------	----

그림 목 차

[그림 II-1] 리포트래시 순위 집계 화면	44
[그림 III-1] 기자 준비생의 위치	66
[그림 III-2] 기자 준비생의 인식 변화 후 위치	68
[그림 III-3] 웨스터슈탈의 객관성 구분	70

I.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현 한국 사회에서 언론에 대한 불신은 만연해 있다. KBS가 실시한 2022년도 1분기 미디어 신뢰도 조사 결과, 국내 언론매체에 대한 언론 신뢰도를 묻는 항목에서 ‘비신뢰’에 응답한 비율이 63.5%에 이르렀다(노지민, 2022). 한국 언론에 대한 자국민의 신뢰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2022년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Digital News Report, 2022)」에서 전 세계 46개국을 대상으로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30%로 46개국 중 40위에 위치했다(Newman et al., 2022).

“기레기”는 이러한 불신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쓰레기의 부정적 의미를 기자에게 덧씌워 기사를 비난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다. 언론의 가치라고 여겨지는 공정성, 불편부당성, 공공성 등을 지키지 않는 기자, 취재 보도 윤리를 등한시하는 기자 등을 목격했을 때 대중은 기레기를 호명한다. 심지어 기레기에 대한 제보를 받아 기레기의 명단을 만들어 보여주는 사이트가 생기기까지 했다.

그러나 기자들이 조롱의 표현으로 불리는 언론 불신의 상황이 비단 독재에 국한된 일만은 아니다. 한국 사회가 겪었던 역사의 부침 속에서 언론은 신뢰를 잃고 또 회복하는 과정을 겪어 왔다. 신뢰 회복의 시도로서 구성해 온 언론 윤리 담론은 독재 정권 시기를 거쳐 민주화를 이루기까지의 정치적 배경과 맞물려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조형되어 왔다. 60년대부터 일명 “공갈 기자”, “진드기 기자” 등으로 불리는 사이비 기자 문제가 있었고, 군사 정권에서는 정부의 특혜를 받으며 통제에 순응한 언론사주와 기자들이 있었다. 반면 이와 다르게 독재에 저항한 기자들은

대중과 연대하여 언론의 자유를 윤리로 삼아 투쟁했다(강명구, 1993; 강준만, 2019; 김민환, 1996; 남제일, 2010; 송건호, 1990; 이완기, 2020). 이후 1987년 민주화를 이루어 독재 정권의 언론 통제에서 벗어난 언론은 자본, 정치권력, 대중과 관계를 맺으며 구체적인 윤리 담론을 만들어 왔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는 보도 윤리를 배반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불필요한 속도 경쟁, 그로 인한 “전원 구조”라는 미증유의 오보, 취재원에 대한 비윤리적인 태도 등을 목도한 대중은 기레기라는 말로 언론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다(서상호·최원주·강지화, 2015; 임연희, 2014; 최진봉, 2016). 그리고 이 시기 이후 현재까지 기레기는 언론을 비판하는 일반명사처럼 일상적인 표현으로 쓰이며 기레기 담론이라고 할 만한 언론-대중 간 상호작용의 구성물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라는 구체적 사건과의 관련성 안에서 정당한 비판으로 등장한 기레기가, 점차 그 쓰임이 변화하며 혐오 표현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호명하는 대중이 아니라 기레기로 호명되는 기자들의 경험과 인식에 주목한 결과이다. 물론 기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비윤리적 행태를 반성하기 위해 자조적으로 기레기를 소환하고 있기도 하지만(이상기·이정민, 2020), 기레기가 기자 개인에 대한 공격이 될 경우 사회적 낙인으로 작동하며 기자의 직업적 동기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김민철·강연곤, 2022; 표예인, 2021).

이에 본 연구는 기레기로 대표되는 언론 불신의 한국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고찰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전(前)민주화 시기를 거치며 정치권력 및 자본과 관계를 맺으며 언론 윤리 담론이 형성되어 온 역사를 살피고, 민주화 이후 대중에 의해 기레기 담론이 주요한 언론 윤리 담론으로 떠오른 맥락에 주목한다. 그리고 기레기 담론과의 성찰적·비판적 관계 속에서 기자의 윤리적 자기정체성이 형성되는 일상적 실천을 살핀다. 이때, 기자로서의 자기정체성 형성은 입사 후의 경험만이 아닌 입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지나는 경험

과 연속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자 준비생과 전·현직 기자들을 아우르며 기자됨의 과정에 개입하는 언론 윤리, 개인적 역량, 언론 자본 및 기업 자본 구조가 얽혀 있는 양상을 조명한다. 이를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 언론사에서 윤리 담론은 어떠한 정치적 배경에서 구성되어 왔으며, 현재의 기레기 담론은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가?
- 2) 기자 준비생이 기레기 담론을 인지하면서도 여전히 기사를 지망하게 되는 합리화는 어떠한 계기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 3) 기자 집단이 기레기 담론 안에서 윤리적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어떠한 구조적 제약과 실천적 전략이 작동하는가?

연구자는 이와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기레기 담론으로 대표되는 언론 윤리 담론이 기자 준비생들의 인식과 일선 기자들의 실천에 어떠한 양상으로 접합하고 있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이 접합의 과정에서 준비생과 기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레기 담론과 교섭하며 윤리적 자기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지 살피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언론 윤리와 윤리의 인류학

언론 윤리에 대한 연구는 크게 규범윤리학과 직업사회학과의 연관 속에서 무엇을 언론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져 왔다.

먼저 규범윤리학을 언론 윤리에 적용한 연구로는 의무론적 관점과 목적론적 관점을 모두 수용하여 언론의 실천적 가치를 제시하거나 (Merrill, 1997), 계약론적 입장을 받아들여 실용적 객관성을 새로운

언론의 가치로 제시하거나(Ward, 2007), 목적론적 관점의 공동체주의적 입장에서 공익을 위한 언론의 헌신을 강조하는 입장(Christians, 2004; Lambeth, 1992) 등이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규범윤리학의 세부 윤리 입장들을 언론 윤리에 맞게 적용하고자 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매킨타이어(MacIntyre, 1981)가 지적하는 바, 양립불가능한 철학적 전통들이 계속해서 경합하는 한 이에 따른 언론 윤리 또한 하나의 일관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Iggers, 1999: 27).

한편 사회학의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언론 윤리를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는 언론직을 뒤르켐(Durkheim, 1998[1950])과 프라이드슨(Freidson, 1986)의 정의에 기반한 전문직(profession)으로 정의하는 데에서 출발했다(강명구, 1993; Allison, 1986; Waisbord, 2013). 프라이드슨의 정의에 따르면 전문직은 “조직을 결성하여 자율적으로 직업을 수행하며, 조직을 통해 자신들의 강력한 직업적 정체성과 가치를 실현하며, 이를 통해 대중들과의 협력 및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집단”이다(Freidson, 2007; 박진우, 2015: 181에서 재인용). 언론직을 이 정의에 해당되는 전문직으로 포함시키면 이에 따르는 직업윤리 또한 자연스럽게 강조된다. 전문직은 전문화되고 추상적인 지식, 즉 공식적 지식(formal knowledge)을 생산하고 전파하는데(Freidson, 1986: 2-3; 강명구, 1993에서 재인용), 푸코(Foucault, 1975)의 지적대로 지식의 생산은 권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전문직은 지식과 권력을 매개해주는 제도적 형태 및 행위 양식이 되며(Freidson, 1986: 2-3), 사회의 제도와 규범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직군 내 윤리적 책임을 강조해야 할 중요성이 커진다(강명구, 1993: 39). 따라서 기자를 전문직으로 보고자 하는 시도는 기자의 윤리적 책임을 직업상의 강령 혹은 이데올로기의 정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무엇을 규범으로 세울 것인지, 즉 언론의 의무와 목적을 추상적인 차원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상술한 매킨타이어의 지적대로 추상적 가치들은 저마다의 전통을 갖고 경합하고 있으며 이중 무엇이 옳은 것인지 결론내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동일한 부분을 쿨드리(Couldry, 2013) 또한 지적한다. 그는 현대의 미디어 환경이 크고 넓은 범위의 실천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현상을 파악하기 쉽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추상적인 차원의 규범이나 의무에 의존하는 것보다, 실제 작동하는 특정한 사실들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있는 언론의 윤리적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데에 더 유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쿨드리가 사상적 기반으로 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virtue) 윤리이다. 행위자 중심의 덕 윤리를 언론 윤리에 적용하면 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점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Couldry, 2013: 42-47).

본 연구 또한 언론 윤리에 대한 추상적 규범을 세우는 것보다 언론 윤리가 작동되고 있는 구체적인 실천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을 포착하여 또 다시 특정한 언론의 가치를 추상해내려는 것이 아니라, 언론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 실제적인 윤리적 실천들을 일상적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인류학의 ‘윤리적 전회’를 선언하며 윤리를 미덕의 실천으로서 이해한 연구들에 주목한다. 람벡(Lambek, 2010)에 의해 정교화 된 일상의 윤리(ordinary ethics)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를 출발점으로 삼아 행위와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윤리를 강조한다. 일상의 윤리에서 ‘윤리’는 “인간의 조건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전제된다(Lambek, 2010: 1). 삶을 아우르는 모든 실천들과의 연관 속에서, 경합하는 주장들 가운데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일지 판단하는 행위에 의해 윤리는 도래한다(ibid.: 23). 람벡의 이러한 윤리 개념은 기자 준비생들과 기자들이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명시적인 규범에 의존하지 않고도 윤리적 딜레마에 대처하는 구체적 실천 양상을 조명할 수 있게 해 준다.

더불어 레이드로(Laidlaw, 2002; 2014)가 다룬 미덕의 주체에 대한 논의 또한 주요 준거로 삼는다. 이는 윤리적 실천에 있어 담론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고려하는 람벡의 논의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람벡의 일상의 윤리에서 윤리가 ‘일상적’이라는 것은, 합의된 규칙이 아니라 암묵적

이며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발생함을 함의한다(Lambek, 2010; 2). 반면 레이드로(Laidlaw, 2014: 177)에게 있어 윤리는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실천 및 권력과의 연관을 인식함으로써 주체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윤리적 삶은 이 연관에 대한 ‘성찰적 자유’를 전제로 가능하다. 이는 윤리가 ‘자유 의식적 실천’이라는 푸코의 윤리 개념을 받아들인 것으로, 윤리는 이를 발휘함으로써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과 근본적으로 연결된다. 다만 이때의 윤리적 실천으로서의 자아 형성 과정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양태를 보일 수 있다. 레이드로의 이러한 관점은 기레기 담론과의 관련성 속에서 의식적으로 윤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기자 집단을 한국 사회의 특정한 윤리적 주체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

이와 함께 위라통(Weeratunge, 2010)의 민족지는 본 연구에 좋은 참조점을 제공한다. 이 민족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를 통해 스리랑카 농촌의 상인들이 바람직한(*sadharana/just*) 상인이 되기 위해 행하는 일상의 실천과 상호작용을 이해하고자 한다. 농업과 수산업 종사자가 대부분인 스리랑카 농촌에서 상인들은 언제나 외부인 혹은 타자의 위치였다. 이런 상황에서 상인들은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이윤을 너무 많이 남기지 않는 미덕, 즉 “*sadharana*”를 실천하면서 공정한 상인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사람다운 사람(*Manushyakama*)”이 되어야 한다. 이는 스리랑카의 불교적 전통이 상행위에 개입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윤 추구 행위가 사회적·종교적 가치로 전환되면서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미덕의 영역이 생겨나고, 상인들은 소비자와의 상호작용 가운데 이러한 미덕을 실천하면서 비로소 바람직한 상인이 되어 간다. 이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도 정치권력과 자본의 영향력이 언론에 개입하면서 생기는 모호한 윤리 영역의 존재와, 이를 저마다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석하고 판단하여 윤리적 실천을 행하는 기자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2) 언론 관행, 수행, 정체성

기자 집단의 윤리적 실천은 취재보도 현장에서의 직업적 실천으로 표현된다. 기자의 직업적 실천에 대해 언론학계에서 논의한 연구들은 주로 언론 관행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슈메이커와 리스(Shoemaker & Reese, 1996)의 정의에 따르면 언론의 관행이란 미디어 종사자들이 일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형식화되고, 일상적이며, 반복되는 일과 형태이다. 즉, 뉴스 발행주기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일련의 정형화된 매뉴얼을 따르면서 굳어진 특정 관행들이 있는데, 그동안의 언론학 논의에서는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예컨대 객관성과 사실성을 언론의 가치로 강조하는 서구 언론의 객관주의 보도 관행을 언론의 의도적인 기획으로 이해하는 연구가 대표적이다(Nerone, 2013; Schudson & Anderson, 2009; Tuchman, 1978). 이 연구들은 서구 언론이 전문직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언론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객관보도 및 사실보도가 주요 관행으로 정착된 것이, 언론의 의도된 전략에 의한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 및 대중의 비판으로부터 언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때, 서구의 객관 보도 관행과 관련해 인류학적 분석을 전개한 피터슨(Peterson, 2001)의 연구를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미국 언론의 기자들이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 상황을 마주했을 때에 적극적 해석의 담지자가 됨으로써 객관성이라는 가치를 실용적인 차원에서 전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언론의 객관주의를 “전략적 의례(Tuchman, 1978)”로 이해하는 기존의 분석에서 더 나아가, 이 전략의 다른 한편에는 기자들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되고 있음을 중층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언론 현장을 다루는 본 연구와 같은 인류학 연구에 좋은 참조점을 제공한다.

기자들의 관행에 대한 국내 언론학계의 연구는 전반적인 관행의 양상을 처음으로 제시한 이창현(1991)의 연구에서 시작해, 특정 관행을 기사의 질적 저하를 불러오는 요인으로 지목하여 비판하는 연구가 많았다(길재섭, 2017; 김동규·김경호, 2005; 김사승, 2004; 김창숙, 2019; 남재

일, 2004; 송정민, 1992; 이연주, 2005; 이윤희, 2016).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저널리즘의 관행을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권한울, 2021; 방은주, 2013; 이현재, 2015; 임소현, 2021). 그러나 이와 같은 관행에 대한 연구들은 언론 시스템의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자라는 실천 주체에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고 있으며 이들의 일상적 실천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기자들의 윤리적 실천을 포착하고, 이 실천을 통해 기자들이 수행적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 기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외부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것과 구별된다. 예컨대 기존 연구에서는 지역 신문의 폐쇄적 문화(한선·이오현, 2010), 뉴스 생산 환경의 디지털화(박진우·송현주, 2012), 정치체제의 역사적 변화(이정훈·김균, 2006) 등을 정체성 형성의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선행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버틀러(Butler, 2008[1990])와 고프먼(Goffman, 2013[1967])의 수행성 논의에 기대어 기자들의 자기정체성이 일상의 윤리적 실천 및 다양한 주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동적으로 형성되는 미시적인 과정을 조명한다.

버틀러는 오스틴(Austin, 1975)의 수행문 개념에서 젠더 수행성 개념을 발전시킨다. 버틀러가 정의하는 수행성은 담론이 기대하는 정체성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형성된 몸의 스타일이다. 바꾸어 말하면, 행위의 반복적 수행을 통해 정체성이 형성된다(Butler, 2008[1990]: 69-70). 이때 버틀러는 수행의 준거가 되는 담론을 문화적 의례 혹은 규범으로 본다(Butler et al., 2009[2000]: 52). 즉, 문화적인 규범에 따라 수행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반복됨으로써 정체성이 형성된다.

이를 적용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레기 담론을 기자들의 윤리적 수행에 일정한 준거를 제공하는 문화적 규범으로 간주한다. 기자들은 기레기 담론이 함의하는 비윤리적인 기자의 형상을 부정하면서 특정한 수행을 통해 자기정체성을 형성해나간다. 앞서 윤리적 실천이 의식적이고 성찰적으로 발현된다는 레이드로의 정의를 받아들인 바, 이때의 의식과 성찰은

담론의 함의를 부정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즉, 기자들은 반복적으로 기레기의 형상을 부정하면서 윤리적인 기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나간다.

한편 이러한 수행은 고프먼이 제시한 대로 미시적 상호작용의 차원에서 발견된다. 고프먼은 일상에서 타인을 만나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서로의 체면(face)을 존중하는 의례적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Goffman, 2013[1967]: 18-19). 이러한 상호작용은 사회적 질서에 부합된 자아를 만드는 과정이며, 이렇게 형성된 자아는 그가 가진 권력과 지위에 따라 다른 정도로 유지된다(Goffman, 1971: 40).

고프먼의 방법론에 따라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 또한 기자 준비생 및 기자들이 다양한 주체들과 상호작용하며 드러나는 인식과 실천의 양상이다. 이들이 각자 일상의 위치에서 수행하는 발화와 행동을 살핍으로써 기자로서의 윤리적 자기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기자 준비생 및 기자들이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 내재된 윤리적 실천들을 조명할 수 있게 해준다. 명시적인 윤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발견되는 암묵적인 윤리적 실천을 통해 기자 준비생 및 기자들의 자기정체성이 형성되는 실제적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자 준비생 및 기자 집단이 한국 사회의 언론 불신을 반영하는 기레기 담론과 교섭하며 기자가 되어가는 일상의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기레기 담론의 형성과 관련된 한국 언론 역사에 대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IRB가 승인된 2022년 8월 17일부터 2023년 3월까지 기자가 되고자 하는 언론고시 준비생과 전·현직 기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연구자는 기자의 자기정체성이 형성되는 전(前)단계를 이해하기 위해 기자 준비생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

다. 연구자는 기자 준비생이 기자가 되고자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특정한 예비 기자의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간주한다. 기자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의 경험은 언론사에 입사하여 기자가 된 후의 경험들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처럼 연속된 경험은 기자의 자기정체성 형성과 연관된다.

더불어 기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우, 언론사에 소속되어 기자로 일하다 다른 직종으로 전직한 경우도 연구 참여자에 포함하였다. 이는 이들이 업계를 떠났기에 현직 기자보다 상대적으로 진술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자 정체성을 스스로 거부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기레기 담론과 기자적 정체성의 교섭이 실패하는 계기를 포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본 연구는 심층면담을 주요 연구 방법으로 삼았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준비생 9명, 현직 기자 8명, 전직 기자 3명, 총 20명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면담자의 의사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ZOOM)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면담자가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을 진행한 연구 참여자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구분	이름(가명)	연령대 / 경력	소속	비고
1	준비생	채지수	20대	대학	
2	준비생	강백호	20대	대학	
3	준비생	서태연	20대	대학	
4	준비생	채소연	20대	언론사 인턴	
5	준비생	권준호	20대	대학	
6	준비생	송태서	20대	언론사 인턴	
7	준비생	이한나	20대	대학	
8	준비생	이달재	20대	대학	
9	준비생	정대만	20대	대학	
10	기자(전직)	황태리	30대 / 4년	일반 기업	
11	기자(전직)	변덕규	30대 / 7년	공공기관	
12	기자(전직)	윤대협	30대 / 1년	일반 기업	
13	기자(현직)	이명현	20대 / 2년	통신사	

14	기자(현직)	신현빈	30대 / 7년	경제지	
15	기자(현직)	정우선	20대 / 2년	주간지	
16	기자(현직)	최동은	30대 / 2년	통신사	
17	기자(현직)	이정현	30대 / 7년	종합 일간지	
18	기자(현직)	전호정	30대 / 1년 미만	경제지	
19	기자(현직)	신준섭	30대 / 6년	종합 일간지	
20	기자(현직)	김수겸	30대 / 10년	종합 일간지	

[표 I -1] 면담자 목록

준비생 모집은 언론사 입사에 필요한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몇 개 대학의 커뮤니티에 모집글을 올려 면담 동의 의사를 밝힌 이들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이들에게서 다른 참여자를 소개 받는 눈덩이 표집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을 확장하였다. 면담한 준비생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상태로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전·현직 기자 면담은 연구자가 구성원이기도 한 미디어 업계 종사자들의 독서토론모임¹⁾의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모임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눈덩이 표집 방식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했다. 특기할 것은, 면담한 현직 기자들 중에 보수 성향의 소위 “메이저 언론사”²⁾ 소속 기자는 없었다는 사실이다. 연구자는 보수 성향의 언론사 기자에게도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기레기와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했을 때 면담을 거절당했다. 또한 연구자가 이미 면담을 마친 면담자들에게 보수 성향의 언론사 기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경우도 있었는데, 모든 면담자가 긍정적으로 부탁해보겠다고 대답해주었으나 실제 소개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면담한 현직 기자들은 모두 진

- 1) 주 1회 미리 정해진 한 권의 책을 읽고 약 2~3시간 정도 토론을 나눈다. 본래 기자, 피디, 아나운서 직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이었으나, 구성원의 언론사 합격, 진로 변경, 탈퇴 등으로 현재 준비생은 한 명뿐이다. 2023년 6월 기준 현직 기자 두 명과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 다수가 모여 있다.
- 2) 영향력이 크고 매출액의 규모가 큰 주요 언론사를 일컫는다. 공식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종합일간지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제지인 매일경제, 한국경제, 그리고 방송사인 KBS, MBC, SBS를 포함한다.

보·중도 매체 소속이었으며, 이러한 특성이 면담자들의 자기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전제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현직 기자 면담자들의 경력은 4개월부터 10년까지로 다양하게 분포했으나, 모두 직접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수습기자 혹은 평기자였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연구자는 면담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는 부장급 기자들과는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경력이 오래된 부장급 기자들은 회사의 정치적 논조에 동화되어 있거나 회사의 수익을 내는 데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취재를 하지 않으므로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있다. 연구자는 평기자인 면담자들에게서 이와 같은 부장급 기자들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특성이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들과의 면담에는 언론사 입사를 준비했던 연구자의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 연구자는 기자 직군이 아닌 PD직을 지망하며 언론사 입사를 준비한 경험이 있다. 언론고시, 줄여서 ‘언시’로 불리는 언론사 입사 시험은 모집하는 직군에 상관없이 대부분 유사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연구자는 소위 ‘언시판’이 돌아가는 생리에 익숙했다. 또한 함께 공부하며 입사를 준비하던 사람들 중에 이미 기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연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관련된 정보를 얻기 용이했다. 따라서 면담자들이 연구자에게 연구를 하게 된 계기나 연구의 목적을 묻는 경우에, 언시판의 내부자였던 연구자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면담자로부터 더 자세한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본론은 세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II장에서 기레기 담론이 형성된 역사적 맥락을 살핀 후, III장과 IV장에서 각각 기자 준비생과 전·현직 기자들이 기레기 담론과의 교섭을 통해 윤리적인 기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II장에서는 한국의 근대 언론이 시작된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언론, 정치권력, 대중이 상호작용하며 언론 윤리 담론을 형성해 온 역사적 과정을 조명한다. 특히 언론 불신을 함의하는 대표적 표현인 기레기에 주목하여 기레기라는 기표가 등장하기 전과 후의 시기를 나누어 살핀다. 구체적으로 1절에서는 기레기라는 기표가 등장하기 전, 언론이 정치권력 및 자본과의 길항관계 속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주창하며 언론 윤리를 정립해 온 과정을 조망한다. 2절에서는 대중의 호명을 통해 기레기라는 기표가 등장하게 된 구체적 계기들을 살피고, 기레기가 하나의 언론 윤리 담론으로 구성되면서 생겨난 기레기 담론의 다층적인 함의와 맥락들을 분석한다.

Ⅲ장에서는 기자 준비생들이 기레기 담론을 체감함으로써 기자를 지향할 직업적 동기가 약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자가 되고자 준비하면서 예비 기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 살핀다. 구체적으로 1절에서는 준비생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상과 현실 간의 충돌을 딜레마로 이해하고, 이 딜레마의 구체적 양상을 설명한다. 2절에서는 준비생들이 기레기가 불합리한 언론의 구조적 산물이라는 점을 간파하게 되는 다양한 계기를 포착하여 서술한다. 3절에서는 준비생들이 개인적 차원의 딜레마를 안고 있으며 기레기 담론의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자직을 지향하게 되는 이유를 분석한다.

Ⅳ장에서는 기자들의 특정한 자기 인식과 기레기 담론이 교섭하며 만들어지는 윤리적 실천에 주목하고, 이러한 윤리적 실천을 통해 기자들이 수행적으로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 탐구한다. 구체적으로 1절에서는 기자들이 자신의 직업적 위치를 설정하고 기레기를 정의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을 언론사 내의 하향식 위계 구조, 친화력이라는 역량의 맹점, 외부 자본에 의존하는 수익 구조의 세 측면에서 살핀다. 2절에서는 구조적 제약을 경험한 기자들이 주변화된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기레기 담론과 교섭하며 일상적인 현장에서 윤리적 실천을 수행하는 구체적 양상을 분석한다. 특히 수행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실천을 기레기 담론과의 대항, 기레기 담론의 부분적 수용, 기레기 담론으로부터의 탈주라는 세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결론인 V장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종합하여 제시하고, 언론 윤리를 다루는 언론학 논의와 수행적 정체성을 다룬 인류학적 논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밝힌다.

II. 한국 언론 윤리 담론 형성의 궤적

언론에 대한 불신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기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본 장에서는 먼저 한국 언론이 신뢰를 상실하고 또 회복하고자 했던 역사적 맥락에 대해 살핀다. 기레기라는 단어가 만연하게 쓰이는 현 한국 사회에서 기자를 지망하고, 기자로서 일하며, 기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 기자로서의 윤리를 되새기고자 하는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한국 언론사에서 윤리 담론이 형성되어 온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윤리 담론이 형성되어 온 역사적인 과정은 한국 사회가 겪었던 특수한 사회·정치적 상황에 조응하여 언론, 정부, 대중³⁾이 서로 관계를 맺고 각 정치적 국면에 개입하면서 전개되었다. 현 한국 사회의 언론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이를 회복하고자 하는 언론 내부의 윤리 담론은 이러한 과거의 역사적 맥락 위에 현재의 특수한 환경적 요인들이 교차하며 만들어진 결과이다.

이에 본 장은 근대 언론이 시작된 시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언론, 정부, 대중이 경합하며 언론 윤리 담론을 형성해 온 구체적 과정을 조명한다. 특히 현 시대에 언론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기 위해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현인 기레기에 주목하여 이 기표가 등장하기 전의 윤리 담론과, 등장한 이후의 담론을 나누어 살펴본다. 한국 언론이 윤리적 노력을 경주해왔다면 그 시작은 언제부터이며, 어떠한 사회·정치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러한 윤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레기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언론이 비난을 받는 데에는 어떠한 맥락이 존재하는가? 기레기라는 기표가 등장한 이후 기레기의 의미는 어떻게 변화했고 어떤 방식으로 언론 윤리와 접합하며 담론을 구성해 왔는가? 이상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

3) 이때 ‘대중’은 ‘공중’이나 ‘시민(사회)’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개념은 서구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합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주체로 정의된다는 점에서(Arendt, 2019[1959]; Dewey, 2014[1927]; Habermas, 2004[1962]) 서구 사회가 정의하는 이상적인 정치적 주체만을 지칭할 가능성이 있어 정의상의 협소함을 배제하고자 ‘대중’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였다.

정을 통해 기자의 자기정체성 형성에 개입하고 있는 한국 언론 윤리의
담론적 토대를 이해한다.

1. 정치권력 대 언론, 자본 대 기자

1) 정치권력의 제도적 탄압과 언론의 양극화

언론과 정치권력과의 관계에서 언론 윤리는 제도로서의 언론 차원에서
실천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었다. 언론을 억압하는 언론 외부의 정치권
력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주창해야 하는 언론 윤리
였던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언론으로 여겨지는 한성순보가 창간
된 개항기는⁴⁾ 정치적으로 일제강점기 직전의 혼란한 상황이었고, 이후
언론은 일제강점기와 독재 정권 시기를 거치며 정치권력에 영합한 언론
과 영합하지 않은 언론으로 양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일제강점기에는 친
일신문 대 지하신문, 독재 정권 시기에는 정권에 순응한 기자 집단 대
저항한 기자 집단의 대립 구도를 이어 왔고, 민주화 이후에는 이 구도가
정당을 매개로 보수 언론 대 진보 언론으로 양극화된다. 그리고 이렇게
양극화된 언론 구도는 현재의 기레기 담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의 근대 언론은 개항기였던 1883년 정부가 발행한 관영신문인 한
성순보를 시작으로 하여 지식인 계층이 발행한 독립신문, 황성신문 등의
민영신문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개항기 초기의 신문들은 유학 경험이 있
던 지식인들이 근대화와 대중 계몽을 목적으로 발간한 것이었기에, 사실
보도보다는 자강개혁과 자주독립을 주된 논조로 삼는 논설 위주로 구성
되었다(김민환, 1996: 101-107). 외세의 개입이 심해지는 개항기의 혼
란한 정치적 상황에서 이들 민영신문은 ‘민족지’의 역할을 했다. 인쇄
자본주의가 “상상된 공동체”로서의 민족 개념을 확산시켰다는 앤더슨

4)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부터 1910년 한일강제병합 전까지의 시기를 일컫는
다.

(Anderson, 2018)의 지적대로, 개화파 지식인들의 민영신문은 당시 한반도 지역에서 근대적 민족의식을 형성하게 하는 매개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민족의식은 일제강점기에 들어 근대의 대안이 ‘민족’을 단위로 하여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독립을 주장하게 한 사상적 기틀이 되었다.

1910년 한일강제병합을 통해 본격적으로 일제의 탄압이 시작된 후의 언론은 일제에 부역하는 친일언론과,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외치는 민족지로 나뉜다. 1919년 조선총독부가 소위 ‘문화 정치’를 시행하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민영신문은 모두 폐간되었기 때문에, 친일신문은 총독부 기관지의 형태를, 민족지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암암리에 발행되는 지하신문의 형태를 띠게 된다.⁵⁾ 기관지였던 매일신보는 일제의 내선일체 프 로파간다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전과한 반면, 지하신문이었던 조선독립신문, 각성호회보, 자유민보 등은 일제의 탄압을 알리고 조선 독립을 목표로 민족의 계몽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사와 논설을 실었다(박찬승, 2008). 일제의 강제 점령이라는 명백한 정치외교적 탄압의 상황에서 언론의 윤리는 그러한 외압으로부터의 자유와 독립을 외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해방 후 이승만 정권에서 전두환 정권에 이르기까지의 독재 정권 시기의 언론 또한 일제강점기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외압에 순응한 언론과 저항한 언론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정권에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제도적 탄압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언론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어 언론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5) 문화 정치를 표방하던 시기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신문 세 개의 민간신문이 창간되지만 이 신문들의 논조는 항일과 친일 중 일관된 것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창간 초기에는 부분적으로 항일의 논조가 등장하기도 하나, 후기로 갈수록 친일로 돌아서기 때문이다(김규환, 1982; 박용규, 1995; 2005; 안종복, 2006). 따라서 이들 민간신문이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발행되었다는 의미에서는 민족지일 수는 있으나, 본 논문에서 민족지라 함은 ‘항일의 논조를 유지하며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주장하는 기조의 신문’으로 정의하고자 하므로 이 세 민간신문은 민족지라고 지칭하지 않을 것이다.

이승만 정권(1948~1960)은 공식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았다. 1948년 제정한 헌법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법률과 행정으로는 이를 보장하지 않았으며, 국가보안법, 형법, 선거법에 교묘히 언론 통제 조항을 포함시켜 정부에 도전하는 일체의 시도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즉, 명목상의 언론통제법만 제정되지 않았을 뿐 다른 여러 방법 등을 통해 사실상의 통제와 검열이 이루어졌다(김민환, 1996).

나아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반공주의의 “헤게모니적 효능”을 알게 된 이승만 정권은 반공을 기치로 내걸며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언론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였다(최장집, 1993: 166; 김민환, 1996: 440에서 재인용). 이때부터 이승만은 공산주의와 진보주의 노선의 언론뿐만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보수주의 언론까지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⁶⁾ 특히 경찰과 군대, 청년 단체, 자유당 등을 동원하여 사실상의 전체 정치를 행하였다(김민환, 1996: 440).

한편 이승만 하야 후 들어선 장면 내각을 쿠데타로 전복시키고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이승만 정권 때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언론을 탄압한다. 이승만 정권의 언론 통제는 신문사에 테러를 한다거나 신문 배포를 방해하는 등 노골적이고 사후적인 형태를 취했고, 그러한 만큼 대부분의 언론은 정권의 탄압에 한목소리로 저항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에서는 언론 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언론사주를 권력의 편이 되도록 유인하고 사주와 기자들을 분열시켰다(김해식, 1994: 65). 결과적으로 언론은 경영적 관심을 지닌 언론사주가 장악하게 되었고, 사주와 기자 집단 사이에는 분명한 위계가 형성되었다. 즉, 이전 시기 ‘정권 대 언론’의 양상이었던 갈등관계가 ‘언론사주를 매개로 한 정권 대 기자 집단’의 갈등관계로 전환된 것이다(김해식, 1992; 남재일, 2010: 81에서

6) 1950년대 5대 일간지는 정부기관지이자 여당지인 서울신문, 민주당 신파를 지지하는 경향신문, 민주당 구파를 지지하는 동아일보, 보수적 중립지로 구분되는 조선일보, 진보적 중립지인 한국일보였다(김민홍, 2022: 305; 김해식, 1994: 65). 김민홍(2022: 305)은 중립지로 구분되는 신문 역시 정부에 부정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5대 일간지 중에서는 정부기관지인 서울신문 정도만이 정부에 무조건적으로 우호적인 기사를 썼다.

재인용).

이러한 상황에서 기자 집단은 다시 권력과 사주의 압력에 '순응한 기자 집단'과 '저항한 기자 집단'으로 분화되었다.⁷⁾ 순응한 기자들은 비판 기능을 억제하고 침묵하거나, 정권에 영합한 기사를 써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변절 후 정계로 진출하였다(강준만, 2019: 304-305; 김민환, 1996: 479). 반면 저항한 기자 집단은 독재에 순응한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1972년 10월 유신 개헌 후 박정희 정권이 노골적으로 언론 탄압을 자행하자, 1973년 10월 경향신문 기자들을 필두로 하여 2차 언론자유수호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어 74년 3월 동아일보 기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제도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고자 했고, 같은 해 10월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했다. 자유언론실천선언은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로 번져 차례차례 전국의 언론사가 이 선언문을 채택하며 정권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가 모아지기 시작했다(강준만, 2019: 341; 김민환, 1996: 488-491).

그러나 이러한 저항 기자 집단의 움직임은 언론사주의 해직 처분으로 인해 저지되었다. 가장 먼저 조선일보가 32명의 기자를 해직한 데 이어, 동아일보가 113명의 기자를 해직했다. 해직된 기자들은 언론 현장 바깥으로 내몰린 채 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투쟁하거나 출판을 통한 대안언론 활동을 이어나가고, 이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언론사는 현재 진보 언론이라 불리는 언론의 선구가 된다(강준만, 2019: 343-346; 남재일, 2010: 83).

언론사주에 대한 특혜 제공을 통한 포섭, 저항하는 기자들에 대한 탄압, 이로 인한 언론 내부의 분열로 요약되는 박정희 정권의 언론 통제

7) 본 논문에서 순응적 기자 집단과 저항적 기자 집단을 구분한다고 할 때, 이 구분은 남재일(2010: 83)의 정의를 따른다. 남재일은 이 구분이 기자의 의식보다 특정 상황에서의 실천을 전제로 분류한 개념이라고 밝힌 뒤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순응적 기자 집단은 군사 정권 시기 언론 현장에 남아 제도 언론의 부패 구조에서 직업적 이익을 향유한 집단, 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자정운동과 무관하게 사주 종속 상태에 순응한 집단이다. 저항적 기자 집단은 군사 정권 시기에 언론자유수호운동 등으로 해직된 기자, 한겨레 창간에 가담한 기자, 87년 민주화 이후에는 보수 매체에서 언론노조를 통해 언론자정운동, 공정정보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기자이다.

방식은, 10.26으로 정권이 무너진 후에도 뒤이은 전두환 독재 정권에 의해 지속된다. 1979년 12월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은 어느 정권보다도 더욱 체계적으로 언론에 대한 폭압과 회유를 병행하면서 언론을 장악한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무자비한 학살로 대응한 것을 시작으로, 언론 통폐합, 언론인 대량 강제 해직, 언론기본법 제정, 보도지침을 통한 간섭 등 박정희 정권에서 미완으로 남아 있었거나 체계적이지 못했던 통제를 더욱 치밀하고 철저하게 진행했다. 동시에 박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언론에 경제적인 특혜를 제공하면서 회유하였는데, 언론사주뿐만 아니라 쫓겨나지 않고 언론에 남은 기자에게도 대대적인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순응적 기자와 저항적 기자의 갈등을 더욱 조장했다(강준만, 2019: 365-397; 김민환, 1996: 495-503; 김해식, 1994: 152-175; 송건호, 2002: 29-43).

특히 언론 통폐합은 순응적 기자와 저항적 기자의 처지를 극단으로 고착시키고, 이를 통해 양자 간의 갈등을 고조시켰다. 전두환 정권 시기의 기자에게는 통제에 순응하고 언론 현장에 남거나 저항을 선택하고 결과적으로 퇴출되는 선택지만 남겨졌다. 여기에서 잔존 언론인은 통제에 소극적으로 순응하거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회유책으로 제공된 혜택을 향유하는 식으로 제도 언론 내에 안착했다(남재일, 2010: 81).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통폐합이 실시되자 기자들은 순응하여 남을 것인지 저항하여 퇴출될 것인지 극단적으로 선택해야만 했고, 결과적으로 제도언론 안에 잔존한 기자들과 바깥으로 나간 기자들 사이의 분열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탄압 상황과 그로 인한 대립 구도 상황에서, 언론 윤리는 민주화와 언론의 자유 획득을 위해 저항하기를 선택한 제도 바깥의 진보 언론의 실천에만 한정되는 것이었다. 정권이 제공하는 혜택을 향유하며 기본적인 보도 기능 및 비판 기능을 잃은 제도 언론에게서 언론의 윤리를 기대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언론 윤리는 언론의 독립을 전제해야만 가능하다. 언론이 외부 조직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독립해야만 언론 내부에 필요한 여러 자율성이 확보되고 언론인의 윤리적 수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Jakubowicz, 2002: 203-204).⁸⁾ 따라서 민주

화 전의 언론 윤리는 외적 독립을 외치며 제도 바깥으로 나간 진보 언론의 저항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편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권(1988~1993)에서 노무현 정부(2003~2008)까지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공정성 준수가 언론 윤리로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는 독재 정권 시기에 정치권력에 순응한 언론과 저항한 언론의 분열 구도가, 언론이 제도적 자유를 획득한 민주화 이후에도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부터 언론은 독재 정권을 거치며 정권에 영합하여 자본을 축적한 언론과, 정권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외친 언론으로 양분된다. 이때, 전자의 언론은 정치적으로 민정당과 신한국당 계열을 지지하는 보수 언론으로, 후자의 언론은 민주당 계열을 지지하는 진보 언론이 된다. 예컨대 김대중, 노무현 정부하의 언론 상황은 정부를 지지하는 진보 언론과 비판하는 보수 언론으로 양극화되어 강한 정파성을 띠었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하는 동안 보수 주류 언론과 계속해서 대립하며 긴장관계를 유지했고, 노무현 정부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언론과는 동업자적인 밀착 관계를 유지하고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다(김동률, 2009: 303).

이런 상황에서 진보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을 포괄하는 대중은 핵심적인 언론 윤리로 ‘공정성’을 요구하였다. 이준웅(2005)은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2004년 17대 총선을 거치면서 언론이 정파적 양상을 띠는 것을 넘어 정치적 투쟁 자체를 수행하는 행위자의 역할까지 담당했다고 분석한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입장에

8) 야쿠보비츠(Jakubowicz, 2002: 203-204)는 언론의 독립을 외적 독립(external independence), 내적 독립(internal independence), 개인적/전문적 독립(personal/professional independence)으로 나눈다. 외적 독립은 언론 외부 조직으로부터 법적, 정치적, 행정적 개입이나 압력 없이 언론을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유의 정도와 연관되며, 내적 독립은 언론사주나 경영자의 제한 및 압력 없이 편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의 정도와 연관된다. 개인적/전문적 독립은 언론인이 언론 윤리에 헌신하며 높은 전문성을 갖고 사회·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언론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외적 독립은 내적 독립과 개인적/전문적 독립 없이도 가능하며, 내적 독립은 외적 독립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외적, 내적 독립은 개인적/전문적 독립이 없다면 무의미하다(ibid.: 205). 이를 통해 볼 때, 외적 독립은 다른 독립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있는 대중은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보수 입장의 대중은 자신의 목소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불안을 느끼면서 인터넷 공론장의 확대와 함께 ‘비판적 담론 공중’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비판적 담론 공중이란 “주류 언론이 제시하는 공적 담론에 대해 ‘공정성 비판’을 제기하며,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견해들이나 그렇지 않은 견해들을 폭넓게 섭렵하면서, 필요하다면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담론적 참여에 나선 사람들”인데, 이들의 담론적 실천은 주류 언론의 지배적 해석에 대해 비판적 성격을 갖는다(이준웅, 2009: 28-29).

이때의 비판적 담론 공중 가운데 자신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진보적 성향의 대중은 기레기 담론의 주요 호명자로서 등장하게 된다. 독재 시기의 역사를 거쳐 분열되고 양극화된 언론의 구도가 굳어지면서 정치적 대중 또한 양분되고, 이는 정파성을 하나의 축으로 하는 현재의 기레기 담론의 토대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장의 2절에서 더 자세히 서술한다.

2) 자본의 상업주의적 개입과 기자의 독립성

자본과의 관계에서 언론 윤리는 기자 개인 혹은 언론사주에 대항한 기자의 차원에서 고려되었다. 언론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임과 동시에 공익을 위한 기사를 생산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언론사주 및 경영진의 사적 이윤 추구하고 기자들의 공적 보도 지향 사이의 충돌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Tunstall, 1971: 79). 이에 따라 한국 언론 역사에서도 금전적 이익 혹은 자본과 관련된 언론 윤리는 언론의 상업화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의 차이만 있을 뿐 항상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정권의 특혜를 받아 언론이 본격적으로 대기업화되기 전, 즉 독재 정권 시기 전의 언론은 기자 개인이 비윤리적으로 돈을 좇는 문제가 빈번했다. 독재 정권에 들어서면서부터 언론이 대기업화 되고 민주화 이후에 이르러서는 정치권력보다도 자본의 영향력이 급증하면서 언론사주의 상업주의적 요구와 간섭이 심해져 기자들이 편집권을 침해당하는 문제가

심각해졌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는 자본의 영향력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기자들의 시도가 언론 윤리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금전적 이익 및 자본과 관련한 언론 윤리는 현재에도 중요한 윤리로서 기레기 담론의 토대를 이루게 된다.

우선 독재 정권이 들어서기 전, 본격적으로 언론의 상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이비 기자 문제가 있었다. 사이비 기자란 제대로 취재보도를 하지 않으면서 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기사를 일컫는 말이었다. 1960년 이승만 하야 후 잠시 언론 자유화가 이루어졌던 장면 내각 시기에 언론사의 수가 급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자증을 갖고 다니며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비행을 저지르는 기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이성춘, 2001). 당시 기자들은 철도를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는 권리와 군대 차량을 운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었고, 더 이상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기에 광고란에 정치적인 선전을 남발할 수 있었다. 이를 빌미 삼아 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김을한, 1975; 송건호, 1987: 311; 강준만, 2019: 251-252에서 재인용).

이런 사이비 기자는 일명 “공갈 기자”로 불렸다(한국일보, 1961; 강준만, 2019에서 재인용). 특히 이들은 군대가 있는 논산 훈련소에 진을 치고 군인들에게 기자증을 내밀며 불리한 일들을 기사화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냈다. 100여명이 넘는 사이비 기자들이 논산 훈련소에 모여들자, 근방 주민들은 “공갈기자 물리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이성춘, 2001).

장면 내각 시기에 언론사의 양적 팽창으로 인해 사이비 기자나 공갈 기자가 만연했던 상황은, 인터넷 언론 매체가 급증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대의 상황과 맥이 닿아 있다. 인터넷 매체는 대부분의 수입을 광고에 의존하지만 영세한 매체이기에 광고 효과가 크지 않아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일부 인터넷 매체 기자들은 기업의 약점을 취재한 후 이를 보도하지 않는 대가로 광고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장행훈, 2015). 이는 상술한 사이비 기자 및 공갈 기자의

행태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현대에도 존재하는 비윤리적 기자의 모습이 이미 50, 60년대부터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독재 정권을 거쳐 대기업화 된 언론은 민주화 이후 본격적으로 자본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 자본이 언론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언론 소유를 통한 영향(언론자본)’과 ‘광고주로서의 영향(기업자본)’으로 나눌 수 있는데(김해식, 1994: 193; 이완기, 2020: 358), 이로 인해 사주의 편집권 침해 문제와 기사의 질 하락 문제가 크게 대두된다.

민주화 이후 초기에 언론사주가 기자의 편집권을 침해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김중배 선언’을 들 수 있다. 1991년 9월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었던 김중배는 사주에 의해 경질되었다. 동아일보는 당시 두산전자 공업 단지 내에서 두 차례 낙동강으로 폐놀을 유출했던 사건을 심층 보도하고 있었는데, 사주와 경영진은 대광고주인 두산을 비판하면 경영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는 이유로 두산을 비판하는 논조를 약화시키라고 압력을 가했다. 얼마 뒤 김중배는 편집국장에서 해임됐다. 이임식에서 김중배는 “언론은 이제 권력과의 싸움에서, 보다 원천적인 제약 세력인 자본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말을 남겼고, 이는 ‘김중배 선언’으로 회자된다(김도연, 2021). 정치권력의 제도적 탄압이 있던 시기에는 그것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를 얻는 것이 언론 윤리의 유일한 내용이었다면, 민주화 이후에는 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주요한 언론 윤리의 내용으로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광고주로서 기업자본의 영향은 결과적으로 기사의 질 하락을 초래하기도 한다. 신문의 상업주의가 심화되면서 광고 수익을 늘리기 위한 증면 경쟁, 오락성 연예 저널리즘의 성행, 선정적인 콘텐츠 증가 등의 문제가 커지게 되었다. 예컨대 1993년도에 신문지면은 5년 전보다 두 배로 늘어난 데 비해, 보도 비율은 줄고 연예 오락 기사와 광고의 비중이 커졌다. 또한 독자를 더 많이 유인하기 위해 선정적인 내용의 만화를 부록으로 넣어 파는 등의 경쟁도 치열해졌다(강준만, 2019: 450, 454; 이강수, 1992: 329-330; 이완기, 2020: 368-369).

이와 같이 보도의 질이 하락하는 경향은 2000년대 들어 포털 사이트가

성장하면서 더욱 심화된다. 2000년에 네이버가, 2003년에 다음이 뉴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서비스가 개시된 지 불과 3년만인 2003년 11월, 네이버 뉴스 서비스 이용자는 1097만 명, 다음 뉴스 서비스 이용자는 1758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매우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다(임해창, 2004: 65; 최민재·김위근, 2006: 440에서 재인용). 포털 뉴스를 통한 수익 모델은 뉴스 트랙픽, 즉 사람들이 뉴스를 얼마나 클릭해서 보았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송해엽·양재훈, 2017: 80), 언론사는 더 많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스포츠 기사나 연예 기사와 같은 연성뉴스를 주로 유통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을 통해 관심을 끄는 ‘어뷰징’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김경희, 2008; 김위근, 2014; 박광순·안종목, 2006; 송해엽·양재훈, 2017; 이창호·이호영, 2009). 따라서 언론 윤리 또한 포털 뉴스의 연성화 및 어뷰징 등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가치 및 실천적 지침으로 대두된다.

종합하자면, 한국 언론의 역사에서 금권 및 자본의 영향은 기자 개인의 영달을 위한 비윤리적 행태, 언론사주의 편집권 침해, 상업주의의 심화로 인한 보도의 질 하락 등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치권력으로부터 제도적 자유를 얻은 후에는 자본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2021b)의 언론인 조사에 따르면 기자들은 언론의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요인으로 ‘광고주(62.4%)’를 제일 많이 꼽았으며, ‘편집/보도국 간부(47%)’, ‘사주/사장(43.4%)’이 그 뒤를 이었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기자 개인의 의도 여부에 상관없이 ‘잘 팔리는’ 기사가 작성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 문제는 광고주나 간부 및 사주의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 쓰인 기사이더라도 기사의 바이라인(byline)⁹⁾에는 이들의 이름이 아닌 기사를 직접 작성한 기자의 이름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중은 바이라인에 적힌 기자의 이름을 기레기로 호명하게 되고, 상업주의에 매몰된 비윤리를 또 하나의 축으로 삼는 기레기 담론이 구성된

9) 신문이나 잡지 기사에 필자의 이름을 넣는 일.

다.

2. 대중과 언론의 윤리적 길항

1) 기레기: 대중의 기자 호명

정치권력 및 자본과 관계를 맺으며 언론의 윤리 담론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세월호 참사를 취재 보도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비윤리적 행태가 총체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에 대중은 언론을 기레기로 호명하게 된다.

본래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쓰레기의 부정적 의미를 기자에 덧붙여 기사를 비난하기 위해 쓰였다. 현재 이 말은 기자들을 비하하는 용례로만 쓰이지만, 본래 스포츠 팬덤에서 시작된 말이었다(정연수, 2020). 처음 사례는 프로야구와 관련된 한 블로그 글에서 나타났는데, ‘타격 기계’라는 별명을 가진 야구 선수 김현수의 성적이 부진할 때에 ‘(타격) 기계’에 ‘쓰레기’를 합성하여 ‘기레기’라고 불렀던 것이다. 일부 축구팬들은 이 용어를 당시 성적이 부진했던 축구 선수 기성용을 조롱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 후 2011년에 한 아이돌 그룹의 팬들이 해당 그룹의 멤버에게 무례하고 집요하게 인터뷰를 요구한 기사를 기레기라고 불렀고, 이것이 기사를 쓰레기에 빗댄 첫 사례가 되었다(정연수, 2020).

기자들 스스로 기레기라는 단어를 인지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에 이르러서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에 ‘기레기’를 검색어로 넣은 결과를 보면, 12년 8월 기자들이 기레기로 불리고 있다는 내용의 동아일보 글이 처음 등장하고, 13년 7월, 8월, 10월에 각각 서울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에 기레기라는 말이 포함된 글이 나온다.¹⁰⁾ 대부분 기자들의 자조와 반성의 맥락에서 쓰였으며, 경향신

10) “뭐라고? 기자 쓰레기, 줄여 ‘기레기’래? 그래그래. 랩 칼럼은 언론사에,

문의 기사에서만 인터넷 커뮤니티의 말이 인용되는 형태로 등장한다.

그러던 중,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인터넷상 기레기의 언급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하였고, 476명의 탑승자 중 29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한 무리한 적재, “가만히 있으라”며 구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빠져나간 승무원, 정부의 안이하고 무능한 대응, 부실한 구조 작업 등으로 인해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한 참사였다(이완기, 2020: 569; 임연희, 2014: 180; 최진봉, 2016: 540). 그런데 이 참사를 보도하는 언론은 재난 보도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윤리를 지키지 않고 상업적인 보도를 낱발했다. 과도하게 속보 경쟁을 하다 ‘전원 구조’라는 미증유의 오보를 냈고, 단독 기사에 집착하느라 생존자와 유가족에게 무리한 취재를 시도했다. 온라인 뉴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사망보험금을 계산하는 등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를 내기도 했다(서상호·최원주·강지화, 2015: 56; 임연희, 2014: 180; 최진봉, 2016: 540).

이러한 언론의 모습을 목도한 대중들은 기레기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언론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2011년도에 456건이었던 기레기 언급량은 계속 그 추이를 유지하다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주여...,) 기록이래.” (임희윤. (2012. 8. 21.). 응답하라, 에미넴! 나는 지금 예민해.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20821/48759340/1>)

“요즘 인터넷 댓글을 보면 ‘기레기’라는 단어가 종종 눈에 띈다. 그 뜻을 알고 난 뒤에 충격을 받았다. 언론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위기감도 느꼈다.” (이도운. (2013. 7. 10.). 한국 언론의 5대 특징.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710031008>)

“그는 오후 1시에 “오늘 탄현 출근이라 탄현에서 목동 통구이 시즌 불구경 중이다. 아무래도 담당자만 경정계로 끝날 듯싶다. 기레기(기자들을 비하하는 단어)들은 날 죽어도 못 찾는다”고 적었다.” (미상. (2013. 8. 22.). ‘SBS 내부문건’ 버젓이 일베 게시물에. 경향신문. 현재는 기사 링크 삭제된 상태.)

“제가 바로 그 악명 높은 ‘기레기’(쓰레기+기자)의 원조 상기형아입니다.” (김상기. (2013. 10. 19.). 상기형아의 소망.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7666212&code=11171382>)

2분기에 14만 5천여 건으로 급증했다(정연수, 2020). 즉, 이 시기부터 대중들은 기레기를 기사를 비하하기 위한 단어로 널리 쓰기 시작한 것이다(이상기·이정민, 2020; 정연수, 2020). 참사 당시의 기레기는 재난 보도에 있어 비윤리적이었던 행태를 직접 목도한 대중의 신랄한 비판을 함의하고 있었다. 이는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와 신중한 태도로 사고 현장, 유가족, 정부 당국을 대중과 매개하라는 요구이기도 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참사가 일어난 4일 뒤 바로 보도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속보 중심의 경쟁적인 보도, 무책임한 받아쓰기 및 선정적인 보도가 이어졌다(언론노보, 2014).

언론의 명백한 과오가 일차적 원인이었던 것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변화한 언론 환경 또한 기레기 담론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다. 소위 뉴미디어의 발달을 통한 온라인 저널리즘이 확대되면서 대중의 분노와 비판을 기레기라는 호명으로 집결하여 가시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전통적인 일방향 미디어인 종이 신문이나 지상파 뉴스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뉴스 생산자에게 집중되었던 권위가 약화되었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순환시키는 뉴스 이용자 주도의 “포스트-네트워크(post-network) 시대”가 되었다(Lotz, 2014; 이현울, 2016: 56에서 재인용). 나아가 뉴스 댓글창 및 개인 SNS를 통한 대중의 공론화 역할이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되고, 대중은 빠른 속도로 담론을 생산하고 확산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었다.

예컨대 세월호 침몰 후 언론의 오보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었던 시점인 사고 당일 오후 1시경, 단원고 학부모들의 심경을 묘사한 통신사 기사가 온라인상에 게재되었고 1,424개의 많은 댓글이 달렸다.¹¹⁾ 기사가 올라온 후 최초로 올라온 네 개의 댓글은 사고를 당한 이들의 무사 귀환을

11) 노수정. (2014. 4. 16.). [진도 여객선침몰]'전원 구조'→'구조 중' 오락가락 발표에 학부모 분통. 뉴시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5797801?sid=102>

해당 기사는 2023년 7월 21일 기준 뉴시스 사이트 내에서는 삭제된 상태이며, 네이버 포털 사이트 안에서 기사를 볼 수 있는 인링크(Inlink) 방식으로만 남아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분석한 댓글은 네이버 댓글란에 작성된 댓글을 말한다.

염원하는 댓글이었으나, 다섯 번째 댓글부터는 “하여간 기레기들이 문제임”이라는 댓글을 시작으로 “명불허전 기레기들”, “기자+쓰레기=기레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기레기를 언급한 댓글들이 등장했다.

아니 저렇게 자식 소식 들은 부모 인터뷰 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 자식 소식 못 듣고 울고 있는 부모한테 마이크 들이대면서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기자들은 뭐냐? 그게 니들 기레기들이 입이 닳도록 말하는 기자정신이나? 그리고 구조작업이 한창인 구조대원들 붙잡고 인터뷰 하는 것들은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진짜.. 지금 상황에선 가만히 있는 게 구조 도와주는 거다

우리나라 기자들 진짜 문제 있는 듯....

↳ 기레기들 특종 건질라고 그러는 듯 사람 목숨은 안중에도 없지

기레기들 정신 차려라. 어떤 놈이 기사 선점하겠다고 확인 안 된 기사 쓰고 다른 기자들은 부랴부랴 갖다 베끼기 급급.. 이게 언론이나?

서로 속보 먼저 널려는[내려는] 기레기들 진심 한심하다

제발 기레기들은 입 좀 다물어.. 지금 사람 생사가 달렸는데도 돈 벌 생각만 하나 더러운 놈들..

집안에 처앉아서 기사 쓰는 기레기들 다시는 인터넷에 기사 못 쓰게 해주십시오!!!

해당 기사의 댓글들은 기레기라는 표현을 통해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언론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취재원을 고려하지 않는 취재 방식, 상업성에 매몰된 특종 및 단독 경쟁,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는 현장 취재의 부재 등, 참사 후 불과 6시간도 지나지 않은 사이

에 대중은 총체적인 언론의 문제를 목격했다. 더욱이 아직 참사 피해자들이 구조될 가능성이 있었던 시점이기에, 대중은 “사람 목숨”과 관련하여 신중하지 못했던 기자들을 기레기로 호명했다.

보도가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정확성 또한 얼마나 중요한데.... 앞다투어 오보를 낸 기자들 정신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유가족 가슴에 두 번 멍들게 하지마라..

- ↳ 언론의 오보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ㅠ
- ↳ 오보 낸 기자들 고소해야 함
- ↳ 정상적인 방송사가 없다 제대로 된 기자는 이미 인터넷으로 쫓겨났다 팟캐스트 방송으로 뉴스를 보면서 돈은 kbs에 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 ↳ 경기도 교육청 쪽에서 전원 구조라고 말했고 그걸 보도한 건데.. 무조건 언론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않을까요? 적어도 이 전원구조 오보에 한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 ↳ 교육청 학교가 일단 진정시키려고 구라친 걸 조사도 안 해보고 내보내는 게 기자가 할 짓? 구조대 확인해보면 될 것을 현장에 있지도 않은 것들 말만 믿고 ㅈㅈ
- ↳ 기레기들아 기자되기 쉬우면 나도 좀 시켜줘라 000들아.
- ↳ 기레기들도 징계해야 된다
- ↳ 제대로 된 기자가 인터넷으로 쫓겨났다고 개소리하지마라 기레기는 대부분 인터넷에 상주한다

1,424개의 전체 댓글 중 가장 많은 공감 수인 4,558개의 공감을 받은 위 댓글 또한 언론의 오보를 비판하는 댓글이었고, 해당 댓글에 다시 달린 댓글인 소위 ‘대댓글’에서도 기레기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원 댓글은 앞서 언급한 다른 댓글과 비슷하게 언론이 지켜야 할 신속성, 정확성 등의 덕목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언론의 오보를 비판하고 있고, 이에 동의하는 대댓글이 주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허위 발표를 한

교육청에 일차적 책임 소재가 있다며 무조건 언론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대댓글에는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의 말만 믿고 직접 조사해보지 않은 기자의 잘못이라는 지적으로 응수하는 대댓글이 달렸다.

특기할 만한 부분은 “제대로 된 기자는 이미 인터넷으로 쫓겨났다”며 주류 언론이 아닌 온라인 대안 언론의 존재를 언급하는 댓글과, “기레기 [기레기]는 대부분 인터넷에 상주한다”며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인터넷 언론사를 지적하는 댓글이 동시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세월호 참사라는 계기를 통해 기레기 담론이 주류 언론 및 상업주의적 언론을 향한 비판을 포괄하는 형태로 확장되어 나감을 보여준다. 온라인 저널리즘의 확대 및 주류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실망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대안 언론이 인터넷상에서 생겨나고 있었으며, 동시에 뉴스 이용자들의 클릭 수에 수익을 의존하는 상업주의적인 인터넷 언론사의 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언론의 문제적 맥락 위에서 세월호 참사는 대중의 기레기 호명을 결집하여 담론화 하는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언론은 단독과 속보에 매몰된 선정적이고 상업적인 보도 행태를 보여주었고, 온라인 저널리즘이 확대되는 변화된 언론 환경 속에서 대중은 적극적인 담론의 생산자로서 이와 같은 언론의 비윤리적 행태를 기레기라는 말을 통해 비판하였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레기는 언론의 실질적인 반성을 촉구하는 대중의 호명으로 등장하여 언론의 여러 문제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담론으로서 온라인상에서 급속하게 형성되어 확산될 수 있었다.

2) 일상적 기레기와 정파적 기레기

기레기가 대중에게 널리 확산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2014년만 해도 이 말은 세월호 참사라는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 안에서 쓰이는 말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지나 기레기라는 말이 대중 전반에게 익숙해지고 세월호라는 구체적인 맥락이 걷히게 되자, 기레기 호명의 기저에 깔려 있던

일반적인 차원의 계기들이 본격적인 호명의 맥락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 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상업성에 매몰되어 전문성과 공공성을 담보하지 않는 경우와, 민주당 및 민주당 관련 인사들을 비판하는 경우이다. 즉, 현재의 기레기 담론은 두 가지를 함의한다. 자본과의 관계에서 공익을 추구하지 않는 언론을 향한 일반 대중의 호명임과 동시에, 정치권력과의 관계에서 진보 정치인에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을 향한 진보 정치세력의 호명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를 ‘일상적 기레기’로, 후자를 ‘정파적 기레기’로 부르고자 한다.

신우열(2019: 81)은 기레기 담론을 “메타언론담론(metajournalistic discourse)의 구체적인 형태”로 보고, “한국 언론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반박하고, 공격하며, 토론을 유도하는 일련의 대중적 표현”으로 정의한다. 문화, 사회, 정치적 함의를 망라하는 이 정의가 보여주는 대로, 기레기는 세월호 참사 이후 대중이 언론을 비판하는 일상적인 말로 자리매김했다. 김민철과 강연곤(2022) 또한 기레기라는 말이 특정이슈에만 등장하는 표현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언론 불신을 표출하는 표현으로 폭넓게 쓰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기레기를 호명하는 댓글 수는 2019년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영역에서 증가세를 보였는데,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언론을 향한 대중의 수정행동(corrective action)이 점점 강화된 결과라고 해석한다(김민철·강연곤, 2022: 133).

상술한 기레기 담론의 의미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일상적 기레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일상적 기레기는 구체적인 형상으로 특정되기보다는 폭넓은 범위에서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라고 여겨지는 가치들, 전문성이나 공공성을 지키지 않았을 때 호명된다. 상술했듯이, 상업적 이익과 공적 가치를 모두 추구해야 하는 언론사의 특성이 충돌하면서 전자가 후자를 압도하는 경우 전문성과 공공성이라는 저널리즘의 원칙이 깨지기 쉬워진다. 즉, 일상적 기레기는 기레기 담론의 함의 중 언론 기업의 구조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다.

(1)

제목: **기레기** 컨트롤c + 컨트롤v 취재 현장

내용: [뉴스 영상 링크] 잘못된 것을 취재한다지만 우르르르…… 다가가서 저런 게 취재일지 의문이네요…

↳ 그들 왈, “그냥 **언론기업** 종업원인데, 자꾸 우리들에게 썬[진짜]저널리스트를 요구하지 말라구!!”가 떠오르네요. 그나마 이런 생각이라도 하면, 다행이구요.¹²⁾

(2)

제목: 이미 세계에도 널리 퍼진 K컬처

내용: [기사 캡처 화면] 아아… 그것은 **기레기**라는 것이다.

↳ 근데 진짜 언제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걸까…?T_T

↳↳ 사람들이 인터넷 기사만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클릭 장사**가 핵심이라 자극적인 내용의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장 빨리 올리는 게 중요해졌죠. 요새는 티비도 잘 안보니까 티비 뉴스들도 엄청 자극적으로 썸네일 달아서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 **언론이 기업화**되면서 아닐까 싶어요. 중요한건 진실이 아니라 회사의 영리에 있는 기업이요..

↳↳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도 가능하니 기다기라고 하자

↳↳ 사실 한국 언론에 대한 폄훼라기보다는, 그 언론 보도 말고 당사자인 우리 말을 믿으라고 하는 가벼운 답변이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아프게 들리는[들리는] 게 참 웃프네¹³⁾

인용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글과 댓글에서는 언론의 기업화를 지적하며 기자를 기레기로 호명함을 볼 수 있다. (1)은 경찰이 단속하는 현

12)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63866?od=T31&po=0&category=0&groupCd=>

13)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number=1245931>

장의 뉴스 영상 링크를 적어 놓고, 해당 영상의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하는 모습을 비판한 글이다. 영상 뉴스에서는 여러 명의 기자들이 한꺼번에 단속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 마이크를 들이대는 장면이 나왔다. (1)의 글 작성자는 이에 대해 “우르르” 다가가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는 것이 진정한 취재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글 제목을 통해 이러한 모습을 기레기의 형상으로 지목했다. 한편 (2)의 게시글은 대만 기업의 경영자가 “한국 언론을 믿느냐”는 말을 한 것에 대한 뉴스를 인용하면서 기레기가 “K컬처”가 되었다며 반어적으로 자조하고 언론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전문성 없이 취재하는 기자의 모습, 타국 기업인으로부터 신뢰도를 의심받는 한국 언론의 모습을 기레기로 호명하는 두 글의 댓글은, 이러한 기레기가 등장하게 된 원인을 언론의 기업화로 지목한다. 즉, 이 게시글과 댓글들에서 호명하는 기레기는 특정 사안에 한정된 기레기라기 보다는, 상업성을 추구하는 언론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기자를 호명하는 일상적 기레기임을 알 수 있다.

(3)

제목: KBS2 예능 결방하는군요.

내용: 전국적으로 50분 가까이 돌아가실 때에도 재난주관방송사라는 인간들이 고작해야 시보뉴스 정도나 하더니 이제서야 눈치가 보였나 보네요. 기레기들이 모두 서울 살아서 지방민들 죽어나가는 건 그냥 숫자 통계에 먼나라 불구경 정도로 보였는지 아니면 외국 관광 가신 높으신 분들 지지율 걱정하느라 심기방송 하셨는지. 이제 와서 이래봐야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¹⁴⁾

(4)

제목: 어찌라고? 니들은 한번이라도 우리들 걱정해본 적 있냐?

내용: 요새 연예인들이 자신이 진 빛에 관한 기사가 넘쳐나는데,,, XX 그

14)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90626?od=T31&po=0&category=0&groupCd=>

러니까 어찌라고,, 성금이라도 모아서 니들 빚 갚아주라? 연예인
니들은 한번이라도 우리들 걱정 해본 적 있냐? 빚진 게 무슨 자랑
이라고, 또 이런 시답잖은 일을 기사화 하는 기레기들은 뭐냐? 빚
졌으면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서 일 XX 해서 빚 갚아라! 우리 국민
90% 이상은 빚지고 산다... 하지만 니들처럼 떠들지 않고 빚 갚으
려고 투잡에 쓰리잡 땀다. 재벌과 연예인 걱정하는 놈들,, 하, 답
이 없구나!!!¹⁵⁾

위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글 또한 기레기를 호명하고 있는데, 특히
공공성을 결여한 기사를 기레기로 호명하고 있다. (3)은 2023년 7월 태
풍과 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음에도 공영방송인 KBS가 이 사
안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음을 비판하고 있다. 글 작성자는 수해가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반면 대부분의 기자들이 서울에 거주한다는 점
을 지적하면서, 비수도권 지방의 이슈를 등한시하며 전체 ‘공공’을 위해
기사를 쓰지 않는 기사를 기레기로 호명한다. (4) 또한 “재벌과 연예인”
과 “국민 90% 이상”을 대비하면서, 연예인의 개인사를 기사화하는 기사
를 “시답잖은[시답잖은] 일을 기사화”하는 기레기로 호명한다. 두 글 모
두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원칙을 공공성으로 상정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
은 일상적 기레기를 호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정파적 기레기는 세월호 참사 이후 특정한 정치 이슈에서 민주
당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호명한 결과로 가시화되었다. 정연수(2020)
의 분석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기레기에 대한 언급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7년 대선을 기점으로 급증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 적폐 청산 슬로건에 가세해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 단어의 주요
사용층으로 등장했다고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기레기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이슈를 살펴보면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이슈가
268만 2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7년 문 대통령 방중 일정 중 수형

15)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906139&bm=1>

기자가 중국 경호원에게 폭행당했던 사건이 9만 3120건으로 뒤를 이었다 (ibid.). 조국 관련 이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부의 인사가 부당한 처사를 당했다고 인식하는 사건이었고, 이를 집요하게 취재한 기자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 수행 기자 폭행 사건은 오히려 폭행을 당한 한국의 기자를 비난 하면서 기레기가 소환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 기자가 맞을 짓을 했다거나,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분란을 만들지 말라거나, 언론 왜곡 보도에 의해 문 대통령이 정치적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속 시원하다는 식의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곽재훈, 2017). 이와 같은 정파적 기레기에 대한 호명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보다도 선행하는, 언론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파적 기레기를 호명하는 대중은 ‘기레기 아카이빙’을 통해 가시화되기도 했다. 기레기 아카이빙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짜 뉴스 및 왜곡 보도 기사를 제보하고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사진과 실명 및 소속 등을 수집하여 기록해놓은 것이다. 대표적으로 리포트래시¹⁶⁾, 마이기레기닷컴¹⁷⁾ 등이 있다.

마이기레기닷컴의 운영자는 해당 사이트가 기자의 정치 성향보다는 기자들이 저지르는 각종 불법, 탈법, 위법사항에 관심이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사이트의 정파성을 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밝힌 운영자의 글에 여러 사람들의 댓글이 달리면서 마이기레기닷컴의 정파성 여부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다.

무슨 정치적 중립이야 ㅋㅋ 사이트만 봐도 그쪽 계열이 확실하구만 그렇게 기자의 윤리의식에 관심 있다면 왜 현 정부에 부정부패엔 입 꼭 다물고. 개인 sns 같은 거 털어가며 비난하는 게 그쪽이 말하는 기레기들이랑 다를 게 뭐가 있음? 드루킹 사건 때문이라도 당신같은 인간들이 대한민국

16) <https://reportrash.com> (2023년 3월 16일 기준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하며, 트위터 계정의 기사 업로드는 2023년 1월 25일에 멈춰있다.)

17) <https://mygiregi.com> (2023년 3월 16일 접속 기준 2022년 10월 31일 글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

에 남아있다면 자유월남꼴 나는 게 확실. 그리고 추측하건대, 이 사이트 들어와 옹호하는 댓글 남기는 인간들도 그렇고 사이트 운영자도 4-50대 이상 같음 ㅋㅋ 딱 봐도 말투가 틀딱¹⁸⁾ 말투에 정권옹호 하는 거 보니 100% NLL¹⁹⁾계열

↳ 사이트만 봐서 그쪽 계열이 확실한 것 같으면 들어오지 마.. 웃기는 짜장일쎄

(...) 문제 많네, 문빠²⁰⁾ 기자들은 패싱하고? ㅋㅋㅋ 개웃기네ㅋㅋㅋㅋ

↳ 너 기레기지? 조선일보?

↳ 잡았다 요념~

↳ 어이 기레기.. 니네들 욕하는 사이트는 그렇게 짜증나니 ? 국민들은 니네 기사 보고 혈압이 올라 매일 혈압약 먹어야 될 정도다.. 니네들이 매번 하는 말이 기사 짜증나면 보지 말라는 거지 ? 사이트 짜증나면 들어와서 분탕질 좀 치지 마.. 아유 이 기레기들 혈압 오르는 글들 보니.. 내가 다 기쁘다... 제발 외신 기자들 기사 쓰는 거 발톱 때만 큼이라도 좀 따라가 봐라..²¹⁾

일부 사람들은 마이기레기닷컴이 문 대통령에게만 우호적인 진보적 정파성을 띠고 있다는 댓글을 남겼고, 해당 사이트의 활동에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댓글의 내용을 부정하지 않는다. 나아가 해당 사이트가 문 대통령을 옹호하는 기자는 기레기라고 호명하지 않고 “패싱”한다는 댓글에, 한 이용자는 댓글 작성자가 보수 매체의 기레기라고 확신하는 대댓글을 달았다. 이와 같이 반대의 정파성을 띤 두 집단이 마이기레기닷컴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해당 사이트가 정파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방증한다.

18) 노인층을 향한 혐오와 비하를 담은 은어.

19) 맥락상 글쓴이가 의도한 것은 북방한계선(NLL)이 아니라 민족해방과 운동권(NL: National Liberation)인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

20) 문재인 대통령의 팬 또는 지지자를 일컫는 은어.

21) https://mygiregi.com/bbs/board.php?bo_table=gija_wiki&wr_id=6589

마이기레기닷컴의 운영자가 정파성을 부정했다고는 하나, 직접 해당 사이트의 운영방침을 밝힌 다른 글을 통해 분명한 정치 성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해방 직후였다면, 조선 방가와 동아 김가의 3족을 사형시켰겠지만, 이젠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기사를 취재하는 커뮤니티/(언론)이라는 컨셉으로 마이기레기닷컴을 이어가려 합니다.

앞으로 기자들의 기사를 분석하여 질 떨어지는 기사를 기레기로 지정하여 그들을 조국 털 듯이 털 예정입니다. 마이기레기닷컴은 일반시민의 현상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며, 기자들의 각종 위법, 불법, 탈법 사항을 제보를 받아 진행될 예정입니다.²²⁾

위 글에서 설명되는 기레기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라는 보수 매체에 대한 강력한 반감의 맥락 속에 있으며, 조국 전 장관을 집요하게 취재한 기자로 예들려 묘사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레기를 제보하고 사이트에 후원을 하는 대중은 “일반시민”으로 호명되고 있다. 김수아(2020: 155-156)는 “강력한 진영주의가 존재”하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반-지식인, 반-언론인 정서 구조가 보수 진영과 충돌하는 맥락에서 언론과 지식인이 주요한 배격의 대상으로 떠오른 맥락”이 한국 사회에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 노무현 대통령 이후 당선된 유일한 진보측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맥락은 문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야당 지도자 문재인이 “자본·권력·언론에 희생당한 정의로운 야당 소수파 지도자(또는 그 계승자)”라는 피해자 정서가 형성되어 있다(곽재훈, 2017). 이들은 보수 언론이 먼저 특정한 프레임을 사용하여 대중을 동원했으니 이에 대해 반 언론 정서를 표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인식 아래, 이러한 언론 비판을 통해 자신들이 ‘시민’임을 보증한다(김수아, 2020:

22) <https://mygiregi.com/bbs/page.php?hid=guide> (2023. 7. 21. 접속)
원문을 그대로 가져왔으며, 띄어쓰기를 비롯한 맞춤법 오류만 수정하였다.

156).

상술한 조국 장관 이슈와 수행 기자 폭행 사건에서 호명된 기레기는 저널리즘의 일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일상적 기레기와는 구별되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정치사회적 맥락을 반영한다. 독재 정권의 언론 탄압, 그러한 탄압을 받으며 저항과 순응의 입장으로 분열되어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언론, 세월호 참사 및 보수 정권 탄핵, 민주화 세력의 집권이라는 일련의 역사적 맥락에서 정파적 기레기가 호명된 것이다.

3) 기자 비판과 기자 혐오의 사이에서

세월호 참사 후 기자들은 자신들의 취재 보도 과정을 비판적으로 돌아보며 스스로 기레기임을 자처했다. 참사 직후 한 달 동안 기레기가 언급된 기사를 찾아보면 이 말을 반성과 계기로 삼은 칼럼이 다수 올라온 것을 볼 수 있다.²³⁾ KBS와 중앙일보는 각각 뉴스와 기사를 통해 자사 보도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송대성, 2014; 유지향, 2014; 중앙일보 편집국, 2014). 이런 가운데 언론계 전체에 파문을 일

23) 다만 일부 매체에 편중되어 있다. 한겨레가 25개로 제일 많았고, 경향신문이 6개, 서울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등에서 1-3개의 글이 나왔다.
정석구. (2014. 4. 21.). 언론도 침몰했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633844.html>
권혁철. (2014. 4. 22.). 기레기와 유언비어.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area/634049.html>
박태해. (2014. 4. 22.). ‘무개념’ 재난 보도 이래도 되나.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140422004566>
유대근. (2014. 5. 1.). 2009년 봄, 그 반성문은 어디로 갔을까.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501023009>
최재현. (2014. 5. 2.).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중도일보.
동규. (2014. 5. 8.). 4월 16일…언치일(言恥日).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921389>
김미나. (2014. 5. 13.). “세월호 참사 보도도 참사였다…” 방송가 이어지는 자성 목소리.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315461&code=11131100>

으켰던 사건은 KBS 막내 기자들이 사내 게시판에 올린 성명이었다. 이들은 팽목항 현장에서 자신들은 기레기였다고 부적절했던 취재 과정에 대해 자조와 반성을 담아 단체 성명을 올렸다.²⁴⁾ 특히 이 사건은 공영방송의 기자들이 낸 성명이라는 점에서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참사 몇 달 후에는 방송기자연합회가 발간하는 잡지 『방송기자』에 참사 시의 보도 관행들을 되짚어보고 반성하는 특집호가 구성되기도 했다.²⁵⁾ 해당 호에 실린 엄지인 외(2014)의 기자들의 토론을 담은 기사에서는 팽목항 현장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기레기가 되었는지 되돌아보는 내용이 실렸다.

김한준: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편집부에서는 큰 판을 먼저 그리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그 지시에 맞춰서 취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무리한 인터뷰 같은 것도 나오는 것 같은데, 방향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데스크의 지시보다는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이 우선이어야 할 텐데 방향이 바뀐 것 같아요. 항상 회의를 먼저 하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니까요.

강나루: 먼저 현장에서 보고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데스크가 내린 지시가 줄줄이 아이템으로 이어지는 폐단이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가장 빠른 정보는 팽목항 상황판에 기록됐는데, 데스크에게는 아무래도 통신기사가 가까웠을 테죠.

엄지인: 저희 역시 사고 초기 정부 발표로 ‘학생들 전원 구조’ 자막이 나왔을 때, 현장에 있는 지역사 기자는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갇혀

24) 곽희양. (2014. 5. 7.). KBS 막내 기자들 “현장에서 KBS 기자는 ‘기레기 중 기레기’”.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1405071127031>

25) 방송기자연합회. (2014. 7.). 방송기자, 19.

있다고 보고를 했다는데, 현장의 의견은 보도되지 못했죠. 현장의 판단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의 문제도 고민인 것 같아요.

인용한 기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장의 상황을 무시하는 데스크의 지시와,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일선 기자들의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데스크는 현장과 괴리된 채 정부 발표를 비판 없이 수용하여 미리 짠 “판”에 맞는 취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야 했던 현장의 기자들은 현장을 그대로 보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판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인터뷰를 강행하기도 했다고 토로한다. 생존 학생을 인터뷰했던 엄지인 기자는 “마음이 급하니까 [학생에게] 양해만 구하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서로에게 트라우마가 되는” 일이었다고 술회했다(엄지인 외, 2014: 34).

또한 기자들은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단독 기사 경쟁 문화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반성했다. MBN 기자인 김한준(엄지인 외, 2014: 34)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멘트, 그림 따오는 기자가 능력 있고, ‘도둑질’해서라도 단독 하는 기자가 뛰어난 것이지, 예의 지키면서 하는 사람은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게 이 바닥의 문화”라고 밝힌다. 팽목항 취재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의 이야기를 실은 『한겨레 21』 기사(엄지원, 2014)에서도 이와 같은 단독 경쟁에 휩쓸린 기자들이 스스로 기레기임을 자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자1: 전 정말 기레기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어요. 안산 단원고 취재 당시 교무실 바로 옆 교실에 임시 기자실을 꾸려놨거든요. 사고 첫날 숨진 채 발견된 학생이 그 반이었어요. 책상을 보니까 학생 이름이 있더라고요. 촬영기자에게 “찍어, 찍어” 했죠. 다른 언론사들도 찍었고요. 일부는 학생들 소지품을 꺼내기도 했고. 과거에 학교에서 학생 희생자가 있는 경우 관성적으로 책상 위의 국화를 찍어서 신문 1면에 내보내고 했잖아요. 그런 단순한 경험에 비춰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촬영했는데 나중에 ‘기자들이 학생들 소지품까지 뒤졌다’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 포화를 받는 걸

보고서야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느꼈어요. 늘 일해온 방식으로 했던 거, 그 방식으로 경쟁하려 했던 게 사실은 문제였던 거죠.

기자2: 저도 스스로 기레기라고 느낀 순간이 기억나요. 안산 고대병원에 있을 때 생존자 학생이 복도에 나와 있다가 기자들을 만났어요. 한명 두명 모여들다가 완전히 기자들이 아이를 에워쌌어요. 제가 그 아이 옆에 앉아 있었는데, 앉아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들을 보는 게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걱정되더라고요. “내가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다리를 잡았다”고 하는 등 잊기 어려운 이야기들인데. 취재당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기자3: 괴물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단독 기사가 주는 재미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들여서 단독 기사를 찾아내고 거기에 매몰돼 달려가는 모습이 괴물같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인정받긴 하겠지만 독자들에게 인정할 수 없거나 싫은 모습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기자들은 단독 기사를 위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매몰돼 달려가는” 자신들을 기레기 또는 괴물이라고 표현했다. 이와 같이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기레기임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말이 세월호 참사라는 구체적인 맥락 안에서 언론의 명백한 과오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를 지나 일상적 기레기와 정파적 기레기로 담론의 함의가 나뉘게 된 최근에 이르러, 기자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2014년도와 2019년도에 ‘기레기’라는 단어를 담은 기사의 맥락을 비교한 이상기·이정민(2020)의 연구를 보면 두 시기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2014년은 ‘세월호’와 ‘쓰레기’가 중심 키워드였다. 세월호 참사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면서 기자들 스스로가 저질렀던 잘못

과 지키지 못했던 주요한 가치들이 기레기와 함께 소환되었다. 반면 2019년의 기사들에서 기레기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슈와 관련되어 등장했는데, ‘쓰레기’와 ‘신뢰/불신’이 중심 키워드였다. 19년도에 이르러서는 기레기가 저널리즘 전반에서 주요하게 여기는 진실성, 객관성, 신뢰성과 같은 윤리적 가치와 연결되어 등장하며, 선정적이고 상업적인 기사를 기레기와 연결하는 맥락이 새롭게 등장한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혐오’라는 키워드가 기레기와 연결되어 등장했다는 것이다. 즉, 기자들은 기레기의 호명이 혐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기레기 아카이빙은 정파적 기레기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심화될 수 있는 사례이다. 강보라(2021: 21)는 기레기 담론이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분기점으로 삼아 촉발된 대중 담론”이며, 다양한 사건사고, 이데올로기, 온라인 문화와 결합하여 영향력을 키워왔다고 본다. 따라서 기레기 담론을 단순한 언론 혐오 현상으로 간주하기보다 나름의 구조와 맥락을 지닌 대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기레기 아카이빙은 시민 참여 아카이빙으로서 “언론의 중앙화된 의제화에 저항하는 전략적 트롤링(trolling)”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언론은 이러한 현상을 통해 언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정철운, 2021).

그러나 해당 아카이빙 사이트들에서 수집하여 게시하는 기레기는 대부분 정파적 기레기에 해당한다. 기레기 아카이빙에서 드러나는 정파성 문제에 대해 강보라는 이현정(2014: 241)의 말을 빌려 형식적인 중립성에 매이기보다 당파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기록을 통해 편향을 줄이고 최대한 다양한 기록을 확보하는 데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카이빙의 콘텐츠가 ‘기사’보다도 ‘기자’에 더 집중되어 있어 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낙인찍기의 위험이 있다.

이달의 미디어 < 2019년 6월 > 더보기			금주의 기자 < 2019년 25주 > 더보기			
#	미디어	제보 기사	#	기자	미디어	제보 기사
1	조선일보	155	1	뉴데일리	뉴데일리	5
2	뉴데일리	92	2	동아일보	동아일보	4
3	동아일보	54	3	조선일보	조선일보	3
4	중앙일보	47	4	동아일보	동아일보	3
5	한국경제	30	5	한국경제	한국경제	3
6	데일리안	23	6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3
7	한국일보	13	7	뉴데일리	뉴데일리	3
8	국민일보	10	8	뉴데일리	뉴데일리	3
9	헤럴드경제	9	9	한국경제	한국경제	3
10	세계일보	9	10	한국경제	한국경제	3

금주의 기사 < 2019년 25주 > 더보기				
#	기사 제목	미디어	기자	제보 횟수
1	탈	조선일보		17
2	日	서울경제		16
3	[끝	SBS		16
4	[송	동아일보		16
5	나	데일리안		15
6	[만	조선일보		15
7	與	조선일보		15
8	5	조선일보		15
9	野	동아일보		15
10	[이	중앙일보		15

[그림 II-1] 리포트래시 순위 집계 화면²⁶⁾

실제로, 리포트래시에서 기레기로 제보된 기자가 쓴 기사의 대부분은 보수 정치인의 발언이나 행동을 서술한 기사이다. 제보한 사람들은 이 기사를 ‘헛소리/선동’이나 ‘악의적 헤드라인’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명확한 근거 없이 기자 개인을 낙인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게다가 제보 횟수가 누적된 기자는 ‘금주의 기레기’로 순위 매겨지고 사이트 메인에

26) 리포트래시의 공개 트위터 계정(@ReporTrash)에 업로드 된 이미지를 가져왔으며, 본문에 인용할 때에는 기자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기자의 전체 이름 및 기사 제목의 일부를 삭제하였다.

사진, 이름, 소속이 뜨게 되는데, 이들은 더 많은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표현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지만, 정치 성향이 다른 대상에 대한 혐오는 상대적으로 용인되는 경향이 있으므로(Iyengar & Westwood, 2015; 김민철·강연곤, 2022: 157에서 재인용), 정파적 기레기에 대한 호명이 정당한 비판의 외피를 쓴 혐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레기 담론을 생산적인 언론 윤리 담론으로 전환하려면 기레기로 호명을 당하는 주체인 기자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레기로 불리는 기자들이 언론 윤리의 일차적인 실천 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자들이 기레기 담론을 어떻게 이해하며 의미화하여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예인(2021)은 기레기 담론이 기자들의 인식과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기자들이 기레기를 호명하는 댓글을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받아들인다고 주장한다. 기자들은 기레기와 관련된 댓글을 뉴스의 플랫폼화에 대한 구조적 비판으로 수용하기도 하며, 대중이 휘두르는 정치적 무기로 이해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때 기자들이 기레기를 구조적 비판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성찰의 기회로 삼지만, 정치적 무기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무력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다. 바꿔 말하면, 저널리즘 일반에 대한 비판을 함의하고 있는 일상적 기레기는 성찰의 도구로서 받아들이고, 정파적 기레기는 혐오로 연결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상적 기레기와 정파적 기레기를 구분하여 이해하면 현재의 기레기 담론을 실천적인 언론 윤리와 연결하기 용이해진다. 기레기 담론의 시작은 세월호 참사 때의 비윤리적인 보도 행태라는 구체적 맥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담론이 확장되면서 이전 시기의 정치적 맥락이 개입하며 기자 집단을 향한 혐오의 가능성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 국면에서 다양한 주체들과 교섭, 연대, 길항을 반복하며 구성되어 온 언론 윤리가 기레기 담론으로 표상되면서 다층적인 맥락을 포함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얽혀 있는 담론의 맥락을 파악하면 기레기 담론을 대하는 기자 준비생 및 기자 집단의 인식과 실천

을 조금 더 세밀하게 포착할 수 있다. 기자 준비생 및 기자 집단은 기레기 담론의 복합적인 맥락을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마주하는 윤리적 난제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III장과 IV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기자로서의 윤리적 자기정체성이 형성되는 양상을 분석한다.

Ⅲ. 윤리적 기자 지망하기

본 장에서는 기자 준비생들이 언론에 대한 팽배한 불신과 여기에서 비롯된 기레기 담론을 인지하면서도, 계속해서 언론사 시험을 준비해 나가며 예비 기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양상에 대해 서술한다. II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 사회의 언론 불신은 한국 근현대의 정치사회적 변화의 맥락에서 형성되어 왔으며, 이는 현재에 이르러 대중의 기레기 호명이라는 특징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파적 기레기를 향한 호명은, 기레기 담론이 단순한 언론 불신의 차원을 넘어 혐오의 맥락까지 포함하는 대중-언론 간 상호구성물임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기레기 담론의 확산이 기자 준비생들의 직업에 대한 열망을 약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 준비생들은 여전히 기자직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역설적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기자 준비생들의 인식론적 토대를 조명하고, 이 토대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분석한다.

기자 준비생들은 기레기 담론과의 관련 속에서 여러 입장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다. 이들은 아직 기자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레기를 호명하는 대중이며, 언론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경주한다는 점에서 취업 준비생이며, 언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기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각각의 입장은 서로 충돌하면서 윤리적 딜레마를 만들어내는데, 준비생들은 이 충돌이 담지하고 있는 사회적 조건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이를 인지하는 가운데, 준비생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조정하고 가치관을 타협해 나가면서 윤리적인 기자로의 지향을 견지한다.

1. ‘언시생’이자 ‘취준생’이라는 딜레마

기자를 지망하는 준비생들은 ‘언시생(언론고시생)’²⁷⁾이면서 동시에 ‘취

준생(취업준비생)’이라는 이중적인 자기 인식을 갖고 있다. 언론사 입사를 목표로 한다는 맥락에서 언론고시를 보는 것과 취업을 준비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이나, 준비생들은 이 두 가지가 윤리적 차원에서 대립한다고 생각한다. 언론고시라는 말이 내포하는 언론의 모순적 특성, 즉 사기업이지만 공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은, 준비생에게도 언시생과 취준생이라는 이중적 위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준비생들은 언시생으로서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언론사의 기자가 되어 사회에 기여하는 기사를 쓰고 싶다는 이상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취준생으로서 생계를 위해 어디든 취업해야 한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처럼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준비생들은 자신의 가치관과는 다른 성향의 언론사나 비윤리적인 기사를 내는 언론사도 지원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연구자가 면담한 준비생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젠다에 관심이 많았고, 진보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언론사의 기사를 읽으며 기사를 준비했다. 특히 이들은 주류 보수 언론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입사 준비를 위해 어떤 신문을 선택하여 읽고 있는지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준비생 강백호는 “일단 조중동²⁷⁾은 싫었”다고 밝히며 이들이 “극보수 성향”임을 이유로 들었다. 권준호 또한 현재 진보지로 분류되는 신문을 읽는다고 대답했는데, “조선일보 기자들이 진짜 취재를 잘 하지만 조선일보 읽는 건 정말 마지막으로 미루고 싶”다고 말했다.

준비생들은 자신이 이와 같이 진보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갖게 된 것을 어렸을 때부터 자라 온 환경의 영향으로 설명했다. 나아가 이들은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자신들이 기자가 되고자 한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채소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기자가 꿈이었는데. 일단

27) 기자가 되는 시험은 언론 기업의 개별 채용 시험이므로 국가고시가 아니지만 국가고시를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우며 일단 통과하면 공적·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언론고시’라 불린다.

28)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신문사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아울러 이르는 말.

그냥 주변 환경이 제가 대외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했고 어린이 기자단 이런 것도 좀 많이 했던 게 있고. 그다음에 환경운동연합에서 되게...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많고 항상 뭔가 그런 환경이었어요. 엄마 아빠도 거기를 다니고 해서 했는데. 그런 걸 보면 언론에서 대응하러 농성 같은 거 하거나 하면 오시잖아요, 취재하러. 그 모습이 좀 **막연하게 멋있어 보였던** 것도 있어서 너무 어릴 때 그 꿈을 갖고 나니까 그냥 당연하게 고등학생 때까지는 쪽,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 꿈은 그냥 기자' 이렇게 좀 살아왔던 것 같고.

이달재: 저는 사실 동생이 미국으로 가게 된 계기도 맞닿아 있는데. 한부모 가정에서 저는 쪽 살아왔어요. 한부모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 다 그런 아프고 슬프고 그런 감정들도 계속 느껴왔고. 되게 위축되기도 하고. (...)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보니까 저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또 이 사회에는 되게 많은 거예요. (...) 내가 그러면 저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지? 내가 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실상을 알리고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을 보다 보듬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하는 계기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기자에 대한 목표가 되게 굳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기자라는 꿈을 품게 된 거는 그냥 되게 어렸을 때 그냥 **막연하게 멋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작을 하게 됐지만 되게 그러한... 되게 성인이 되고 나서 돌아켜 보니까 그게 컸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채소연은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기자가 꿈이었다고 이야기한다. 환경 단체에 속해 있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진보적인 의제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었고 농성 현장에서 취재단을 만나는 것도 익숙한 일이었다. 대학교 입시를 위해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도 “사회적 약자들의 지킴이”가 되겠다는 포부를 적었다. 이달재 또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배경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이들,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두 사람이 기자 일을 지망하게 된 데에는 기자라는 직업이 “막연하게 멋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영향을 미쳤다. 이들에게 기자가 멋있어 보였던 이유는 “막연하다”는 말의 의미 그대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뒤이은 이달재의 말에서 이 ‘막연한 멋있음’의 의미를 유추해볼 수 있다.

이달재: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새로운 사안을 발굴하거나 발굴한 사안을 공론화시키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시민들이 ‘나 힘들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도 막상 그게 언론이라는,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 이들의 어려움은 바뀌지가 않는 거잖아요, 이 어려운 현실 자체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들의 **현실을 확실히 바꿔주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기자를 지망하게] 됐고.

송태서: 그러면 사회복지사나 사실 이런 직업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단기적이고 일회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기자가] **장기적으로 사회 자체를 어쨌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기자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알려지고 또 여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도 언론의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기사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많은 직업 중에서도 기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연구자가 물었을 때, 이달재는 사회의 확실한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언론의 공론화 능력을 꼽았다. 이는 송태서의 말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송태서는 초등학생 때부터 어머니와 봉사 활동을 다녔던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때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많은 일 중에 기자의 일

을 선택한 이유로 “장기적으로 사회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꼽는다. 즉, 이들은 기자라는 직업이 갖는 영향력,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하는 힘에 대해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고, 이러한 가치를 직접 실현시킬 수 있는 기자의 위치에 있게 되기를 원했다.

권준호: 그전에는 (...) 기자라는 집단에, 그런 언론사라는 집단에 제가 들어가고 싶은, 그러니까 그걸 약간 선망하는 느낌이었고. 대학교 들어오고 나서는 ‘이거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가지는 문제의식이 좀 더 유효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더 선망하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좀 업신여기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연구자: 완전히 다른 느낌인데도 계속 기자를 하고 싶으셨네요.

권준호: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거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해야겠다.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목소리를 내게... 이 사람들이랑 좀 다른 목소리를 내야겠다.’ (...)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저를 계속 이렇게 밀고 가는 동력은 그런 것 같아요.

권준호의 말을 통해서도 보듯이, 준비생들이 자신이 자라 온 개인적 배경을 현재의 기자직에 대한 열망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윤리적 당위’와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선망’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당위와, 이 당위를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싶다는 선망이 더해져 기자직을 지망하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준비생들이 기자가 되고자 하는 계기들을 한국 사회 안에서 문화적으로 맥락화하는 데에는, 이 계기들을 “진정성(authenticity)의 레짐” 안에서 구축된 결과물로 간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김홍중(2009)에 따르면 진정성의 주체는 공동체가 부과하는 도덕에 대해 내면적으로 윤리적인 성찰을 거쳐 행위 방향을 결정한 후, 그 행위를 공적 지평으로 확장

하여 사회적 삶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 행위는 다시 공동체에 도덕적 압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모형이 되어 작용한다(김홍중, 2009: 16). 한국 사회에서 진정성 레짐이 극적으로 작동했던 대표적인 세대가 바로 “학생, 노동 열사들, 광주에서 희생되었던 시민군, 기득권을 포기하고 노동 현장으로 투신한 운동가들”로 대표되는 민주화 세대였다(ibid.). 한국 근현대 사회에서 “외적 규범의 강제력과 싸우면서 스스로의 참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근대적 자아구성의 근본 기획”이라는 진정성의 레짐이 실현될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민주화운동이 이루어졌던 시기인 것이다(ibid: 11).

II장에서 살펴보았듯 민주화 운동이 진보 언론의 탄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준비생들을 기자직으로 추동하는 계기들은 민주화 세대가 가졌던 진정성의 유산이 계승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준비생들이 갖고 있는 윤리적인 당위와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은, 독재 권력에 대항하여 언론 자유를 외쳤던 진보 언론의 가치지향적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진보 언론을 만든 민주화 세대가 구축해 온 도덕률이 준비생들에게 하나의 모형이 되어 준비생들의 직업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준비생들 개개인의 자라온 환경이 이 영향을 증폭시키는 촉매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설정한 이상적인 기자상에 걸맞은 기자가 되는 데에는 여러 장애 요소가 있다. 권준호가 말한 대로 “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주류 언론보다도 진보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언론사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준비생들은 자신들이 취준생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연구자: (...) 주간지 같은 데는 생각 없으세요?

권준호: 저는 생각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비겁한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채용이라는 게 일간지 취재기자가 제일 채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한 거죠. 이것도 사실 타협이라고 하기에는 일간지 취재 기자가 되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권준호는 자신의 “문제의식을 잘 던질 수 있는” 매체는 취재하는 데에 시간적 여유가 확보되는 주간지 매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채용 규모가 큰 일간지의 취재기자가 합격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비겁”할 수도 있지만 일간지 매체 입사를 우선 지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전국 일간지 기자직 종사자는 9,820명이며, 주간지 기자직 종사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641명이었다. 매출에서는 더욱 차이가 났는데, 서울에 소재하는 언론사만을 기준으로 2020년도 일간지의 매출액은 약 2조 4천억 원이었지만, 주간지의 매출액은 약 3천억 원에 불과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1a; 2022). 언론사의 경영 규모가 신입 사원을 채용하는 규모와도 비례할 것이므로 취업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권준호가 설명한 대로 이상과 현실의 “타협”이 필요했다.

이달재: 현실적인 부분과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이상, 이 둘이 되게 대립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만 봐도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언론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언론사는 막상 연봉이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중에 제가 가정을 이루고 했을 때 이 연봉을 받으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계속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대만: 원래는 사실 한국일보가 되게 끌렸었고. 제가 연구소에서 일할 때 한국일보 기사를 엄청 좋게 봤었거든요. 재밌게 보고. 엄청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기사도 엄청 많고. 한국일보가 좋다고 생각했고. 물론 뭐 그냥 한겨레나 중앙일보나 팬찮다고 생각했는데. 조선일보 갈 수만 있으면 좋죠.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시생과 취준생 사이의 딜레마를 초래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진보 언론사의 낮은 처우였다. 이달재는 자신이 진보적 성향임을 밝히며 “사회

가 약자들을 보듬는 것”을 정의(正義)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언론사는 연봉이 적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고민하고 있었다. 정대만의 언술에서도 언론사를 선택하는 일에 “먹고 살아야 하는” 고민이 개입된다. 정대만은 주거복지와 관련한 연구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때 한국일보의 쪽방촌 특집 취재를 보고 좋은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당장 돈을 안 벌면 굶어 죽게 생긴” 상황에서, 언론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연봉이 되었다. 친한 선배와 후배가 각각 보수 언론사와 진보 언론사에 입사하면서 두 사람의 연봉을 모두 알게 된 정대만은 “거들떠도 안 본” 보수 언론사를 “갈 만한” 곳이라고 여기게 된다.

신문사의 매출액을 통해 기자에 대한 처우를 짐작해본다면, 202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표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가 2,907억 원, 중앙일보가 2,674억 원, 동아일보가 2,540억 원으로 전체 언론사 매출액에서 1~3위를 차지했다. 반면 진보·중도지로 분류되는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는 각각 830억 원, 790억 원, 712억 원으로 4~6위를 기록했다. 상위 진보·중도지 세 곳의 매출액을 합쳐도 3위인 동아일보의 매출액을 따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계를 고민해야 하는 준비생들이 진보지를 지원하게 되는 유인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기자가 되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준비생들의 진정성은 생계 문제 앞에서 딜레마를 마주한다. 민주화 세대가 남긴 진정성이라는 유산은 지금의 청년 세대 준비생들에게 온전한 형태로 계승되지 못했다. 청년 세대에게 ‘생존’이 “삶을 고민할 때 조희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설정의 틀”이 된 현재에(김홍중, 2015b: 190), 준비생들 또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딜레마는 일종의 새로운 “생존의 의미론”을 보여준다. “진정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바로 그런 진정성을 통해 체제에 기능하는 이중적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ibid.: 197). 언시생이자 취준생으로서의 준비생들은 이 딜레마 안에서 끊임없이 진동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되기 위해 이중적 존재가 되어 간다.

2. 불합리한 언론 구조에 대한 간파

언시생과 취준생 사이의 딜레마를 통해 개인이 직면한 생존의 현실을 상기하는 것과 더불어, 준비생들은 기레기를 만들어내는 불합리한 언론사의 구조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 이들은 좋은 학벌의 이점을 활용하여 언론사 인턴 및 대외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기자가 된 선배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언론사 내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들을 얻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언론사의 위계 구조 및 수익 구조의 문제로 인해 기레기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더불어 준비생들은 자신들이 기자가 되었을 때에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예컨대 강백호는 신문사도 기업이기에 취업을 하게 되면 “찍소리 못하고” 회사가 쓰라는 대로 기사를 써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는 건 나”이기에, 기레기를 만들어 내는 언론사의 구조에 순응을 하고 싶지 않지만 순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슬프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준비생들은 기레기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이미 파악하면서 이 구조 속으로 편입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현실 인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존재했다. 우선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인턴 활동을 통해 직접 언론사 내부 사정을 경험하는 것이 있다. 준비생들은 인턴으로서 실제 취재와 보도를 경험하면서 직접적으로 내부 사정을 파악하고 여러 구조적 문제들을 인식하게 되었다.

송태서: 저는 사실 00일보 디지털 편집팀이라고 기사를 쓰는 건 아닌데 기사 나오게 되면 그걸 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목을 다시 단다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노출시키는 기사들을 pv 조회수를 보고 결정을 빨리 말지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

었는데. 그냥 그때 인턴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기자 개인이 가진 힘보다는 사실 데스크의 힘이 너무 크다는 걸 느꼈어요. 제목도 기자가 단다고 하지만 이미 그걸 한번 데스크에서 반영을 했을 텐데도 그걸 편집팀에서 또 노출시키는 과정에서 마음대로 교체를 하기도 하고 내용도 수정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정말 취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담는다고 해도 그게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또 데스크에서 원하는 내용으로 바뀐다면 과연 내가 원하는 그 기자의 모습대로 살 수 있을지 그런 고민도 많이 되고...

서태연: 제가 대선 딱 그 시기쯤에 들어가서 이제 투표 끝나고 나서 내각 검증에 하는 거에 같이 했었어요. 그 인사 검증의 기준이 2019년 이후로 엄청 높아져서 그런 건지 자녀들 그런 것까지 다 털어서 집에 찾아가고 이런 것까지 다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때도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이게 검증인지 사생활 침해인지 약간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 (...) 짧은 리포트를 쓰게 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더 많이 알아보고 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방송이나 뉴스는 시간을 잘 지켜서 빨리빨리 나가는 게 시의성을 잃기 전에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핵심이 파악되면 그냥 빨리 기사를 써서 빨리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었고. (...) 내가 나중에 보도국에서 일하면 더 이걸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충분히 얘기를 많이 들은 건지 잘 모르겠는 상황에서 기사를 써야 될 때도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전화로 멘트 하나 따면 그냥 끝이니까 방송에서는. 그런 게 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송태서는 유력 언론사의 디지털 편집팀에서 인턴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

데, 이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부장급 기자인 “데스크”와 편집팀이 일선 취재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바꾸는 경우를 자주 목도했다. 이미 취재기자가 속한 부서의 데스크가 제목과 내용을 바꾼 것에 더해, 그 기사가 편집팀으로 넘어온 후 편집팀에 의해 다시 제목이 자극적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송태서는 기자 개인이 가진 힘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자 “내가 원하는 기자의 모습”대로 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서태연의 경우, 대학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다가 기자 일도 “해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언론사 내부의 분위기나 특성을 알기 위해 인턴을 하게 되었다. 일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던 만큼 실제로 해보면서 기대도 실망도 크진 않았지만 “생각했던 것과 달랐던 부분”이 있었다. 검증과 사생활 침해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집요하게 취재를 진행하고, 정확성과 깊이가 담보되지 못하는 현장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된 것이다. 면담을 진행한 날짜 기준으로 서태연은 인턴을 마친 지 3개월이 지난 때였는데,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기사를 계속해서 준비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밝혔다.

두 면담자의 언술에서 드러나는 언론사의 병폐, 즉 데스크 및 편집국 간부에 의한 편집권 침해와 마감 시간 압박에 따른 날림 취재는 저널리즘의 위기를 논할 때 고질적인 문제로 이야기된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무엇보다 언론사의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 발생한다.

우선 편집권 침해는 언론사 내 관습의 측면에서 편집국의 수직적인 위계 구조로 인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신문사의 보도는 취재기자가 기사를 작성하면 데스크의 게이트키퍼(gatekeeping)²⁹⁾ 과정을 거쳐 기사가 송고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언론사의 수직적인 구조로 인해 취재기자나 편집기자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위계에 의한 결정이 우선시되고 있다(김동규·김경호, 2015). 취재기자들은 자신이 작성한 기사가

29) 뉴스 생산 과정에서 어떤 기사를 내보낼 것인지 편집권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는 과정을 일컫는다(White, 1950).

윗선에 넘어가면 그 기사에 대한 권한을 더 이상 주장하기 어렵다. 더불어 조직 전반에 존재하는 위계적이고 순응적인 문화는 자본종속적 문화가 작동될 수 있는 핵심적인 배경이기도 하다(이오현·이석호, 2019). 수직적 위계 구조에서 데스크가 의도하는 대로 특정 내용의 기사가 만들어지기 쉽고, 이는 수익을 내기 위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나 광고를 수주하기 위한 기사가 제동 없이 생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날림 취재를 초래한 가장 큰 구조적 원인은 언론사의 과도한 경쟁 구조 및 이에 따른 기자의 업무 과중이다. 바꿔 말하면, 한 명의 기자가 하루에 작성해야 하는 기사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희정(2005; 이대혁, 2005에서 재인용)은 한국 언론의 과도한 경쟁 체제하에서 한 명의 기자가 여러 개의 출입처를 동시에 출입하면서 매일 일정량의 기사를 써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자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기사를 작성해야 하므로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다양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어렵다(김창숙·최지향, 2020).

이에 대해 이재경(2019)은 한국 언론의 뉴스 생산 방식이 “최소한의 기자 인력으로 그날그날의 뉴스 수요를 맞춰나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언론사 중 편집국 인력이 300명을 넘는 회사는 거의 없으며 중앙 일간지라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취재 인력이 100명이 안 되는 곳이 많다. 이는 미국 뉴욕타임스의 편집국 인력이 1,600여명, 일본의 아사히와 요미우리의 취재 인력이 2,000여명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조건이다. 한국 언론사 기자들은 부족한 취재 인력을 메우기 위해 하루에 네다섯 건 이상의 기사를 출고하게 되는데 이는 “윤리적 검토를 고사하고, 기사에 필요한 기본 정보의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업무 강도”라고 할 수 있다(이재경, 2019: 121). 즉, 기자의 윤리 문제는 언론사의 구조적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준비생들은 인턴 활동을 통해 이를 직접적으로 체감하며, 계속해서 기자를 지망하는 것에 대해 회의하고 있었다.

인턴 활동이 준비생들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언론사의 구조적 문제를 간파하게 하였다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 선후배와의

네트워크였다. 송태어나 서태연의 경우처럼 직접 인턴 경험을 하지는 않더라도 대부분의 준비생들은 기자가 된 학교 선후배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언론사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다.

채지수: 이권 회사마다 다른데 보수적인 곳들도, 정치적으로 그런 보수적이 아니라, 약간 군기나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해서. (...) 선배들 눈치 보고. 그냥 업무적으로 까이는 거면 괜찮은데 이제 그런 급신급신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어떤 선배들에 따르면 그 상사에 따라서 자기 기사가 고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엄청 좌지우지 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어떤 선배는 그 얘기를 해서 이게 진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알게 모르게 상사의 그런 영향, 압박, 이게 좀 크다고 해서 좀 의외였거든요. 저런 케이스도 있구나. 그런 거를 생각하면 현타³⁰⁾가 또...

앞서 언급한 언론사의 문제였던 수직적 위계 구조에 대해 채지수 또한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채지수는 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한 합격 가능성에 심한 압박감을 느껴 잠시 준비를 그만두었다가 7개월 전 다시 준비를 시작했다. 학부 때 언론사의 서포터즈를 했던 대외활동 경험 덕분에 현직 기자들을 몇몇 알게 되었는데,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업무적이지 않은 곳까지 존재하는 언론사의 수직적 문화를 전해 듣고 “의외”의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다시금 기사를 준비하는 데에 회의하게 되었다.

강백호: 가장 크게 비판받는 지점이 결국 복붙이잖아요, 복붙 기사 쓰기.³¹⁾ 근데 그것도 결국 저는 구조에서 기인된 거라고 생각하거

30) ‘현실 자각 타임’의 준말로,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일컫는다. (우리말샘. “현타”.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368741&viewType=confirm 참고.)

든요. 결국 이 기괴하게 누구랑도 절대 협업할 수 없고 무조건 먼저 기사를 내거나, 누가 기사를 먼저 내도 그 뒤에 적어도 최대한 빨리 따라가야 하는 그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신문사 기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아침에 신문 1면을 조선일보랑 비교해요. 조선일보에서 낸 거 우리 냈나 못 냈나 이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결국 보수, 아무리 극보수여도 가장 기사를 잘 쓰는 신문사로 유명하니까 결국 거기서 가져온 걸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나 보는 거예요. 그게 되게 저는 기괴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 그리고 그 경쟁 구조에 순응할 수밖에 없게 된 기자들이 기레기라 불리는 것 같다 생각을 해요.

언론사의 과도한 경쟁 구조에서 기레기가 생겨나는 문제도 강백호의 언술에서 드러난다. 그는 선배 기자들을 통해, 많은 신문사에서 “가장 기사를 잘 쓰는 신문사”의 1면과 자사 신문의 1면을 비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괴한” 경쟁 구조에 기인하여 기레기가 만들어지는 것임을 깨달았다. 풀뿌리 언론이 부재하고 수도권에만 언론사들이 과밀해 있는 경쟁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순응한 기자들이 기레기가 된다는 것이다.

많은 준비생 중에서도 특히 강백호는 언론사의 구조적 문제들을 상당히 명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강백호는 “다행히 주변에 언론사에 이미 들어간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기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턴과 대외활동 등을 통해 알게 된 기자는 물론, 다양한 매체에 입사한 학교 선배 기자를 알고 있었다. 이중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기자도 있었지만 알아두고 있는 것만으로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준비생들이 언론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는 데에는 학벌이

31) ‘복붙’은 ‘복사 후 붙여넣기’의 줄임말이다. 온라인 기사를 낼 때 타 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복사한 후 자신의 기사에 붙여넣기 하여 자신이 쓴 기사처럼 기사를 내는 것을 일컫는다.

큰 영향을 미쳤다. 앞 단락에서 언급한 강백호의 사례에서, 강백호가 다양하고 폭넓은 소통 창구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명문대 출신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 다른 준비생들 또한 인턴 기회를 잡거나 선후배 네트워크를 넓히기 위해 학벌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강백호의 경우와 달리 자신의 학벌이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준비생들은 자신들이 더 많은 기회와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이달재: 저는 인턴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턴이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 인턴도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연구자: 대체 인턴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이달재: 그건 진짜 학벌 스펙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송태서: 나도 내가 [좋은 학교] 갔으면 내가 아는 선배들 중에 언론사를 들어갔을 때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떤 거를 준비해 두면 좋고 또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이런 거를 좀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생기는 건데. 사실 저는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희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그런 영향력이 큰 언론사들 있잖아요. 방송사라든지 성향별로 대표되는 매체들에 들어간 선배들이 없어요. (...) 어쨌든 학교에서 생긴 인맥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지점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요즘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높은 대학에 들어갈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달재는 인턴 모집 서류 심사에서 자주 불합격을 겪으면서, 송태서는 준비 과정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의 학벌과 자신의 학벌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학벌이 언론사 입사에 유리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송태서는 좋은 학벌의 친구들이 기자가 된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입사에

유용한 정보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학교 선배 중에는 영향력이 큰 매체에 들어간 선배가 없어 정보를 얻을 수 없음을 아쉬움을 느꼈다. 노력을 통해 좋은 학벌의 준비생들과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좋은 학벌의 준비생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인맥을 얻는 것을 보면서 “좀 더 높은 대학에 들어갈걸 그랬다”며 후회했다.

즉, 준비생들은 기레기를 만들어내는 언론사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간파하고 있지만 그 간파의 정도는 준비생들의 학벌에 의해 달라진다. 소위 명문대에 다니는 준비생에게는 더 많은 인턴 기회, 더 넓은 네트워크가 주어진다. 부르디외와 파세롱(Bourdieu & Passeron, 2003)이 지적하듯이, 준비생들이 언론 현장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미 학교에서 문화자본의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준비생들은 이러한 사실, 즉 학벌에 따라 준비 과정에서 획득하는 정보의 양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준비생들은 언론사의 여러 구조적 문제와 자신들이 마주한 불안정한 미래를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여전히 기자가 되고자 한다. 이때, 준비생들이 계속해서 기자를 지망하려는 의지를 관철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특정한 인식론적 토대가 발견된다. 이는 앞서 말한 “생존의 의미론”을 바탕으로 준비생들이 “이중적 존재”로서 예비 기자가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김홍중, 2015b: 197). 이 과정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 다음 3절에서 서술한다.

3. 윤리적 딜레마의 극복 방식

이중적 자기인식과 불합리한 언론 구조에 대한 간파가 야기하는 딜레마 상황에서, 준비생들은 기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를 잃지 않고 여전히 기자직을 지망한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자가 되고자 하는 과정에서, 준비생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념을 유지하며 예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자기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이 과정을 세 층위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레기를 호명하는 대중과의

관계, 언론의 가치 지향에 대한 입장, 기레기로 불리는 기자와 기사에 대한 인식이다. 준비생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관계 및 사고의 틀을 구축하고 조정해나가며 예비 기자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기레기를 만들어내는 구조 속에서도 윤리적인 기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대하며 기자가 되고자 노력한다.

1) 대중과의 거리두기

기레기 호명이 대중과 언론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화되는 행위임을 고려할 때, 준비생들 또한 대중과 언론을 특정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중과 언론 사이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설정한다. 무엇보다 준비생들은 대중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조정한다. 이들은 기레기를 호명하는 대중에서 ‘근거 없이 비난하는 혐오자 대중’을 구분해내고, 자신들을 혐오자 대중의 비판자로서 위치시킨다. 이때 혐오자 대중을 비판하면서 드러나는 준비생들의 자기정체성은 대중이라는 범주보다도 기자라는 범주 내에서 포착된다.

강백호: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거는 결국 그 한국 언론사가 만들어낸 구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기자가 기레기다. 근데 그거를 독자층은 잘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현상적으로.

서태연: 이제 그분들이 하는 걸 보면 진짜 엄청 많이 취재를 했는데 이거는 약간 검증이 좀 덜 돼서 빠고, 빠고, 빠다 보면 (...) 노력에 비해서는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은 기사가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기레기라는 댓글이 달리거나 이게 뭐 기사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릴 때는 기레기라는 말이 좀 너무 많이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 더 심층적이고 더 정확하고 더 설득적인 정보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실망감에서 오는 표현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뭔가 그냥, 그냥, 근거 없이 언론 혐오를 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강백호와 서태연은 대중의 기레기 호명에서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한다. 강백호는 기레기가 한국 언론 구조의 문제에 기인한 산물이라는 사실을 독자층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경쟁 구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기자들이 기레기가 되지만, 기사를 읽는 독자 대중의 입장에서 이를 이해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서태연 또한 기레기 호명이 일부 근거 없이 남발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인턴을 하면서 기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한 서태연은 오히려 검증이 부족한 부분을 뺀 기사에 기레기라는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고 기레기 호명에 회의감을 표했다. 확실하게 검증된 내용만 기사에 담는 것이 오히려 윤리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들이 기레기로 불리는 것은 “근거 없는 언론 혐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들의 언술에서 나타나는 발화자의 위치이다. 강백호는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과 자신을 구분하고 있으며, 서태연은 대중의 입장을 나름대로 이해하려 시도하지만 인턴 기자였던 자신의 입장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 즉, 준비생 자신들은 기사가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과정을 알고 있고 기레기가 구조적 문제라는 점 또한 인지하고 있지만, 일부 대중은 기레기가 구조적 문제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자 개인을 기레기로 호명한다는 것이다. 준비생들은 이와 같은 기레기 호명의 맹점을 지적함으로써 무분별하게 기레기를 호명하는 대중과 자신들 사이에 거리를 두고자 한다.

송태서: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 컨트롤타워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최근에 법을 개정을 한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따지고 싶었는데 댓글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태원 참사를 지금 정쟁화하고 이러는 거 자체가, 그냥 사고였을 뿐인데 이거를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기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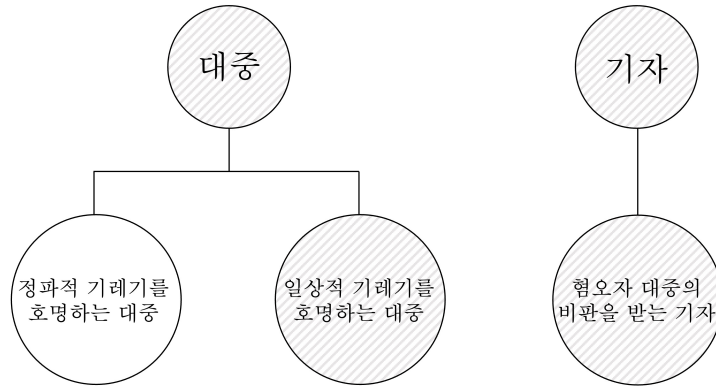
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실을 보도하고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데 그 자체만 가지고도 정치색이 어떻다는 이런 걸 운운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대만: 아무것도 안 해도 욱먹긴 하더라고요. 친구가 00일보에 입사를 했거든요. 원래 정치적 성향은 그쪽이 아닌데 여러 개를 봤는데 00일보만 붙은 거예요. (...) 이제 그런 걸 쓰잖아요. ‘누가 입사했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신입 기자인데 거기다가 바로 댓글에다가 ‘또 수구꼴통 하나 늘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 친구가 충격 받아서 카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 신기하다[고 생각했죠].

송태서와 정대만의 말을 통해 준비생들이 거리를 두고자 하는 대중은 앞서 정의했던 정파적 기레기를 호명하는 대중임을 알 수 있다. 송태서는 사실을 설명하는 기사를 쓴 것만으로도 정치색을 띠고 있다며 기레기로 몰아가는 댓글이 달렸다고 슬회한다. 또한 특정 정치인의 행동을 적은 것만으로도 그 정치인에 대해 나쁜 기사만 쓴다며 기자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기레기라고 비난하는 댓글이 달렸다고 밝혔다. 정대만은 특정 언론사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수구꼴통”이라는 비하를 당한 친구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기자 개인이 무조건 욱을 먹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준비생들은 기레기 담론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자신들의 위치가 더 유리하다고 여기면서, 기레기 담론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대중이 기자직에 대해 부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준비생들은 대중을 자신들과 대립되는 집단으로 상정하고 구분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레기 호명의 맥락 안에서 준비생들은 정파적 기레기를 호명하는 대중과 거리를 두며, 이 과정에서 인식론적으로 삼분된 집단을 전제한다(그림 III-1). ‘정파적 기레기를 호명하는 대중’, ‘일상적 기레기를 호명하는 대중’, ‘혐오자 대중의 비판을 받는 기자’가 그것이

다. 준비생들은 기레기를 호명하는 대중이기도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언론 현장을 경험한 기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두 집단에 모두 속해 있는 모호한 위치인데, 이 삼분법에서 준비생들의 위치는 ‘일상적 기레기를 호명하는 대중’ 혹은 ‘혐오자 대중의 비판을 받는 기자’가 된다.



[그림 III-1] 기자 준비생의 위치(빗금 표시된 부분)

‘일상적 기레기를 호명하는 대중’은 정파적 기레기의 반대항이자 여집합으로서의 일상적 기레기를 전제하고, 일상적 기레기에 대한 호명은 기사를 향한 정당한 비판이라는 점을 내포한다. 준비생들도 “상업성을 위해 자극적으로 조회수를 뽑는 기자”, “기초적인 검증도 없이 기사를 쓰는 기자”, “자기 기사에 책임감을 못 느끼는 기자” 등 일상적 기레기를 호명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같은 준비생들의 기레기에 대한 정의는 준비생 개개인이 기자로서 주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 가치에 강조점을 두고 다양한 양상으로 기레기가 이해된 결과이다.

이한나: 수많은 취재와 다양한 시각들 그리고 뛰어난 통찰로 구성된 기사를 나는 특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보도가 되고 조회수가 기록이 되는 어떤 시험대에 오르게 될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

아요. 그래서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의 특종은 한 시간 더 빠른 보도, 30분 더 빠른 보도, 10분 더 빠른 보도에 맞춰져 있고. 당연히 그 속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취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또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보도를 하게 돼서...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앞에서 스스로 말했던 좋은 기사를 쓰지 못하는 기자가 된다면 저는 아마 그게 제 의지는 아닐 거라고 제발 믿고 싶고.**

예컨대 이한나는 많은 취재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담은 뉴스가 특종이며 좋은 기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속도에 집중하게 되면 제대로 취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뿐더러 자극적인 취재에 매몰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목표하는 기자상과 그렇지 않은 기자상을 말한 뒤, 이한나는 이를 자신의 미래와 연결하면서 스스로 나쁜 기사를 쓰는 기자는 되지 않길 바라는 믿음을 내비친다. 이한나의 사례는 준비생들이 일상적 기레기를 호명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들이 목표하는 기자상을 환기하고 있으며 성찰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준비생들이 일상적 기레기를 호명하는 행위는 자신과 상관없는 기사를 비판하는 행위이기보다는, 예비 기자로서 수행적으로 자기 성찰의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발화로 기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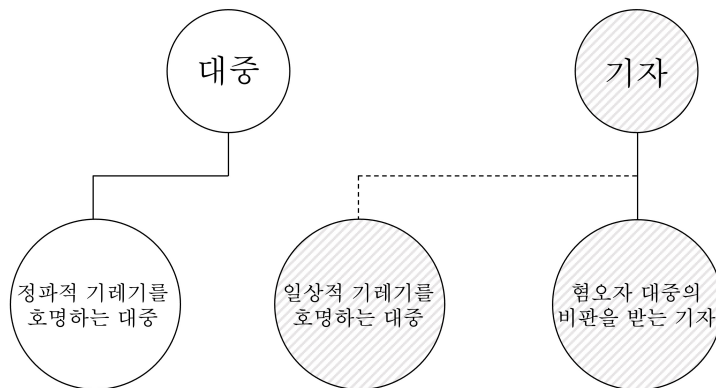
송태서: 그리고 저한테도 가끔 메일이 오거든요. 저는 인턴인데 욕을 하는 그런...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속상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오히려 그만큼 큰 영향력을 가졌다는 거를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한편 '협오자 대중의 비판을 받는 기자'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정파적 기레기를 호명하는 대중을 비판했던 송태서는 인턴 기자로 있으면서 실제로 욕설이 담긴 메일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송태서는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자신이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

한다고 여기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미화하여 수용하고 있었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자의 영향력을 희구했던 송태서에게 자신을 향한 대중의 비판은 그 영향력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었고, 그의 직업적 동기를 되새기게 하는 경험이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인턴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현장을 체험했던 준비생일수록 대중보다도 기자의 위치에 자신의 정체성을 놓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준비생들은 대중이자 기자이기도 한 이중적인 위치에서 자신들을 특정한 대중과는 구분된 위치에 놓는다. 기레기를 호명하는 대중을 정파적 기레기를 호명하는 대중과 일상적 기레기를 호명하는 대중으로 나누고, 자신들을 정파적 기레기를 호명하는 대중에서 분리하는 것이다. 이로써 준비생들은 일상적 기레기를 호명하는 대중 또는 혐오자 대중의 비판을 받는 기자에 위치하게 된다.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삼분 구도에서 준비생들이 선택한 두 위치는 대중보다도 기자에 가까운 위치로서 기자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일상적 기레기를 호명하는 대중으로서의 준비생들은 그 호명을 통해 사실상 대중이 아닌 기자로서 위치하게 된다 (그림 Ⅲ-2).



[그림 Ⅲ-2] 기자 준비생의 인식 변화 후 위치(빗금 표시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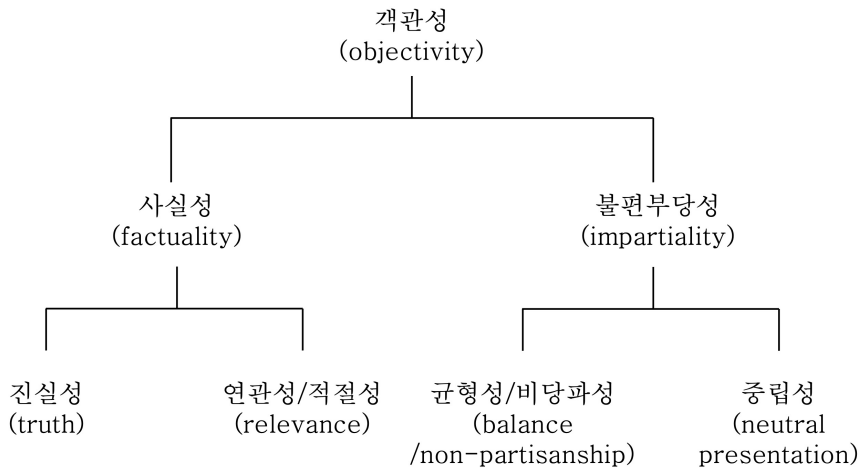
준비생들은 기레기를 호명하는 대중이자 기레기로 호명되는 기자이기도 한 이중적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대중을 정파적 기레기를 호명하는 대중과 일상적 기레기를 호명하는 대중으로 이분하고, 자신들을 일상적 기레기를 호명하는 대중으로 위치시켰다. 이때, 일상적 기레기를 호명하는 대중으로서의 준비생들은, 언론과 거리를 두고 언론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이 목표하는 기자상을 환기하고 성찰하기 위해 일상적 기레기를 호명했다. 즉, 준비생들이 일상적 기레기를 호명하는 행위는 수행적으로 준비생들을 예비 기자에 위치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이에 따라 준비생들은 대중과 거리를 두고 예비 기자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형성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2) 객관성의 수용

객관성은 언론이 지켜야 할 주요한 윤리 중 하나로서, 준비생들 또한 객관성을 언론의 가치로 두는 윤리적 정향을 보여준다. 언론사 입사 준비 과정에서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 준비생들은 객관성을 사고의 틀로 삼는 태도를 체득하는데, 이때의 객관성은 준비생들에 따라 중립, 균형, 다양성 등의 여러 기표로 나타난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객관성을 지향하게 됨으로써, 본래 진보적 입장에 있었던 준비생들은 보수적인 입장의 존재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준비생들은 반대되는 가치관의 언론사에 지원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충하면서, 언시생이자 취준생으로서의 이중적 자기인식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근거를 마련한다.

준비생들의 언술에서 나타나는 객관성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웨스터슈탈(Westerståhl, 1983)은 언론의 객관성이 사실성(factuality)과 불편부당성(impartiality)으로 구성된다고 봄으로써 언론의 객관성 논의에 초석을 놓았다. 웨스터슈탈은 다시 사실성을 진실성(truth)과 연관성/적절성(relevance)으로, 불편부당성을 균형성/비당파성(balance/non-partisanship)과 중립성(neutral

presentation)으로 나눈다.



[그림 III-3] 웨스터슈탈의 객관성 구분

이 구분을 기준으로 연구자가 면담한 준비생들이 갖고 있는 태도는 균형성과 중립성을 포함하는 불편부당의 객관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균형성/비당파성은 특정 사안에서 대립하는 당파의 주장을 기사에서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지와 관련되며, 중립성은 기자가 사건에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특정 당파의 주장을 기자의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밝히는 행동을 포함한다(ibid.: 417-420). 준비생들은 기자에게 필요한 자세로 이러한 특성들을 꼽고 있었다.

채지수: 예를 들면 특정 정치에 지나치게 편향된 그런 글을 쓴다든지, 물론 대놓고 나는 어느 쪽이라고 기사에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중립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슬슬 글을 읽었을 때 정말 자연스럽게 이쪽이 나쁜 거구나라는 그런 좀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지 않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극단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갖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공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태서: (...) 중간을 지키는 게 참 어렵겠죠. 중간에 있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 쉽지는 않겠지만 뭔가 좀 밸런스를, 기사 자체에서 두 개를 다 담지는 못해도 이게 좀 해석의 여지가 있다 싶으면 기획 기사처럼 해서 양측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좀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필요도 있지 않을까.

채지수와 송태서의 말에서는 중립과 균형이 직접적으로 언급된다. 채지수는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편향된 글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한쪽이 나쁘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지 않아야 좋은 기자라고 생각했다. 송태서 또한 중간에 있으려고 노력하면서 양측의 목소리를 모두 담으려고 노력하며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도 기자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두 사람이 설명하는 중립과 균형은 웨스터슈탈이 구분했던 중립성과 균형성의 설명에도 부합한다. 채지수에게 있어 중립이란 기자가 특정 입장에서 거리를 두고 정치적으로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의미이며, 송태서에게 균형이란 양측의 시각을 편중되지 않게 기사에 담고자 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송태서가 설명하는 균형은 다른 준비생에게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태도였는데, 준비생에 따라 ‘많은 목소리를 담는 것’,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 등으로 설명되었다.

이한나: 기자라는 거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좋은 그릇에 녹여낼 수 있는 사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강백호: 지금 와서는 신문을 읽으면서 **다양한**… 뭐랄까요,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엮혀 있는 주체들의 입장**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 대한… 사실 저는 소수자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주체들의 입장까지 제가 고려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제 지지도가, 옛날만큼의 그런 생각이 점점 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두 사람이 강조하는 다양한 입장을 수용하는 태도 또한 언론의 객관성 중 균형을 지키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한나는 기자가 최대한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학보사에서 취재했던 경험을 통해 기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목소리를 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학보사의 기사를 쓰기 위해 취재를 하면서 한 사건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엮혀 있고 여러 행위자들이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자는 독자로 하여금 문제를 바라보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면서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한나와 비슷하게 강백호도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을 고려하게 되었다. 강백호는 노동권과 난민 이슈에 관심이 많아 관련 단체에서 오래 활동도 하고 활동가들의 글도 많이 찾아 읽었다. 그런데 기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신문을 읽다 보니 “너무 많은 걸 읽고 보고” 하면서 쏟렸던 관심이 분산이 되었고, 한 사안에 개입된 주체들의 다양한 입장을 생각하게 되었다. 더불어 입사 시험 과목 중 하나인 논술을 준비하면서 문체가 건조해지고 자신의 글을 “끊임없이 점검”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백호는 이를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자신이 갖고 있던 색을 잃어버리고 소수자들에게 연대를 못 해주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이처럼 준비생들은 준비 과정에서의 경험들, 예컨대 학보사 취재 경험, 폭넓은 신문 읽기, 논술 작성 등을 통해 자신의 성향과 판단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운다. 객관적으로, 불편부당하게, 다양성

을 수용해야 한다는 태도를 익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자신들의 성향과는 반대되는 언론사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연구자가 면담한 준비생들이 모두 진보적 성향이었다는 점에서, 객관적 태도는 이들이 보수 언론사를 지원하게 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이한나: 그들의 결과물을 보고 나와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저는 일단 실무를 안 해봤고. 그리고 제가 아마 이야기하다가 조금 느끼셨겠지만 저는 조금 진보 성향이 강하고... (...) 그래서 저는 00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서도 내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또 거기에 계신 기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가 그렇게 딱 막힌 곳이 아니다, 네가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 논거들을 가지고 오면 충분히 보도 성향과 다른 이야기도 다 신는다, 기본적인 언론사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가야할 때는 고민을 크게 해보겠지만 실제로 시험을 보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언론사든 가서 시험을 보고 와보고 면접 보고 하는 게 저한테는 더 도움이...

이달재: 물론 저는 좀 한쪽의 가치관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다양한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살아나가는 게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가치관, 그러니까 그 나쁘다고 생각한 기자가 쓴 기사라고 해도 그 기사가 만약에 진실을, 특정한 진실을 발굴한 거라면, 그리고 그 진실을 발굴한 일이 뭔가 사회 진전에 도움이 됐다고 하면 어떤 시각으로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제 관점에서만 바라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시각에서는 그게 오히려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한나와 이달재는 모두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스스로를 설명했

다. 그러나 자신의 성향과는 다른 언론사 또한 “기본적인 언론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쓴다면 수용 가능하다고 언술한다.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는 민주적인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한나처럼, 이달재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자신의 입장과는 다른 시각의 효용도 인정하고 있다. 더불어 그는 오히려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편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기도 했다.

이달재의 이런 관점은 자신과 지향점이 다른 언론사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경험을 쌓아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언론사에 이직을 하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일단은 어디든 가서 경험부터 빨리 쌓자는 마음”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권준호와 강백호의 말에서도 우선 합격 가능성이 높은 곳에 들어간 뒤,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것에 대한 꿈이 드러난다.

권준호: 일단은 일간지 취재 기자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또 일간지 취재 기자가 되어서 싸울 수 있는 경험들도 있으니까 그냥 하고. 주간지라거나 진짜 좀 하고 싶은 말들을 할 수 있는 데로 가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어요.

강백호: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리를 잡고 나서 나중에는, 사실 확실한 꿈은 아닌데, 나중에는 그냥 독립 언론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객관적이고 정직한 언론 지침을 가진 언론사를 내가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가고 싶은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일단 그곳에서 경험을 쌓고, 후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언론사를 가거나, 직접 독립 언론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다고 언술한다. 여러 언론사에 지원하여 합격 가능성을 높이고 급여 조건이 좋은 보수 언론사에서 경제적인 안정

도 도모한 후에,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언론사로 옮기고 싶다는 것이다. 즉, 이들의 꿈은 “내적 욕망과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현실화 가능성 사이에서 복잡한 교섭”이 발생한 결과이다(김홍중, 2015a: 43). 원하지 않는 언론사를 가는 것은 현실과 타협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꿈을 향한 발판으로 의미화된다.

결론적으로, 준비생들은 준비 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성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이는 중립과 균형, 다양성, 민주적 가치 등으로 드러나는 객관성을 언론의 가치로 삼는 태도로 추상화되어 체화된다. 이 태도를 바탕으로 준비생들은 자신과 지향점이 다른 언론사에도 지원할 수 있는 심리적 완충지대를 마련하고, 자신의 성향과 다른 언론사에서의 경험을 진정한 꿈을 향한 전(前) 단계로서 수용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준비생들이 마주한 이상과 현실의 딜레마가 극복될 수 있는 인식론적 토대가 마련된다.

3) 기사(記事)와 기자(記者)의 구분

준비생들이 언론의 구조적 문제를 간파한 후 마주하는 딜레마는 ‘기사’와 ‘기자’를 분리하여 받아들이는 인식론적 구분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된다. 준비생들은 기레기가 불합리한 구조의 산물임을 간파하고, 실제로는 윤리적인 기자일지라도 데스크나 사주의 개입에 의해 비윤리적인 기사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기레기를 만드는 언론사의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것을 거쳐서 자신들에게로 굴절되어 의미화된다. 준비생 자신들 또한 데스크나 사주의 압력에 의해 기레기라는 비판을 듣는 기사를 쓰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 기사와는 달리 여전히 윤리적인 태도를 가진 기자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인턴 시기에 함께 일했던 좋은 선배 기자들과의 경험, 이미 기자가 된 친한 학교 선배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기사와 기자를 구분한다는 것은, 기사의 내용이 그 기사를 쓴 기자 개

인의 생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준비생들은 기자 개인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언론사의 논조 및 데스크의 지시에 따라 기사의 내용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기사와 기자를 구분하여 인식하면서 기사에 대한 비판을 기자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강백호와 권준호는 언론의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윤리적인 기자일지라도 비윤리적인 취재를 하고 상업주의에 타협한 기사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백호: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윤리를 지킬 수 있다면 지키지 않을 기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요. (...) 그러니까 결국 단독으로 먼저 유가족의 입장에 대한 기사를 내리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없었다면 그들도 천천히 시간을 두고 탐사 보도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런 구조에서의 압박이 있다 보니까 기자가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권준호: 그들이 예를 들어서 상업주의적인 논리에 타협을 했다면 그 기자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업계 풍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사의 단순한 압박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복잡한 것 같아요. 그들에게 아무런 고민 없이 돌을 던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의 언술에서 나타나는 단독에 대한 압박, 업계 풍토, 상사의 단순한 압박 등은 윤리적인 취재와 기사 작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이다. 강백호는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의 영향을 강조하며, 구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기자의 입장에 공감했다. 권준호는 기자가 상업주의에 타협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인식했다.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 있기에 기자에게 “고민 없이 돌을 던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며, 강백호와 마찬가지로 기

자를 무작정 비판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기사는 기자 개인이 작성하지만 언론 기업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독자에게 소비되어 수익을 창출해야만 하는 상품이다. 특히 포털을 통해 뉴스가 유통되는 환경에서는 상품성이 높은 기사를 생산하여 포털에 더 많이 노출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자는 이를 위한 노동을 강제당한다(최영재, 2022). 강백호가 언급하는 “단독”과 권준호가 설명하는 “상업주의적인 논리에 타협”한 기사 역시 독자에게 더 많이 소비되게끔 작성된 상품이다. 준비생들은 기자들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언론사의 요구에 따라 상품성이 있는 기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준비생들은 상품성을 갖는 기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기자의 의도보다도 언론사의 경쟁구조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더욱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온전한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소외됨을 준비생들 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준비생들의 인식 안에서는 소외되는 기자 개인에게 감정적으로 이입하기 쉬운 조건이 형성된다. 앞서 강백호와 권준호가 기자의 입장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자에 대한 감정적 이입은 준비생들이 실제로 알고 지냈던 “부장님”이나 “형”과의 관계를 통해 강화된다.

송태서: 일단 그때도 사람들은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팀 분위기도 되게 좋고 부장님도 정말 잘 챙겨주시고 했는데. 근데 제가 있었던 팀이 편집부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다른 편집부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정말 뭔가 자극적이고 좀 장사를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그때 좀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제목이 정말 그냥 사실 그 자체였는데 그거를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목을 바꾸거나 그거를 또 제가 직접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괴리,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다르니까 괴리를 많이 느끼면서 뭔가 실태를 안 느끼이기도 했어

요. (...)

연구자: 그럼 거기서 사람이 좋다는 거는 인격적으로...

송태서: 네, 인격적으로... 업무를 할 때도... 기계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게 느껴졌고. 근데 일 자체만 봤을 때는 (...)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랑 다르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권준호: 그 형은 정말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고 진보적인 어젠다에 정말 관심이 많았는데 00일보에 갔어요. 근데 그 형이 00일보에서 겪은 것들을 술 마시면서 몇 번 들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그 괴리 때문에...

송태서가 일했던 디지털 편집팀의 일은 “자극적이고 장사를 한다”는 점에서 송태서의 이상에 맞지 않는 언론사였지만 “사람들은 너무 좋았”다. 편집팀에서 하는 일은 수익을 내는 데에만 매몰되어 자극적으로 느껴졌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온정적이고 편안했기에, 송태서는 그 사이의 괴리를 느끼게 되었다. 권준호는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친한 형이 반대 성향의 언론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다. 송태서의 언술과 마찬가지로, 권준호가 묘사하는 기자 형의 스트레스 또한 “괴리”로 표현된다. 즉, 두 사람은 언론사의 보수적이고 상업적인 방향과 기자의 진보적이고 윤리적인 신념 간 괴리가 있는 현실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다.

이들이 이러한 상황을 ‘괴리’로 묘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이들이 기자가 하는 ‘일’과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상품으로서의 기사보다도 원치 않는 노동을 하는 기자에 집중한 준비생들은, 다시 기자가 하는 일과 기자라는 사람을 구분하게 되었다. 준비생들은 기자들이 하는 일과는 별개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들과 성향이 비슷하거나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기사와 기자를 구분하고, 다시 기자에서 기자가 하는 일과 기자라는

사람을 구분하는 일련의 인식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와 같은 인식에 이르지 못한 경우 기사를 계속해서 지망하는 데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소속된 언론사의 보도 방식 및 논조 등에 기자 개인이 동화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한 준비생은 기사를 계속해서 지망하는 데에 실패했다. 기사를 지망하다가 그만둔 정대만의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대만은 명확한 진로를 정하지 않은 채 대학 졸업을 유예한 상태였는데 기자인 친한 형이 기자라는 직업을 추천해주어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6개월 정도 준비를 하다가 최근 그만두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기는 했지만, 더욱 쉽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친한 형을 통해 듣는 기자로서의 삶이 너무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정대만: 그러면서 이제 기자의 삶을 얘기해 주면 그게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맨날 비슷한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자기같은 기자 아니면 취재원 사람밖에 안 만나는데 남 힘든 얘기를 팔아서 이제 조회수도 먹어야 되고. 00일보 간 사람은 성향은 보수가 아닌데 00일보를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숨기고 사는데. 같은 또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랑 너무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사람이 완전 거기 물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가운데로 좀 수렴을 하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들으면 회사 성향에 아무래도 맞춰지긴 하나 보다. 그것도 사실 좀 좋아 보이진 않는...

특히 정대만은 친한 기자 형이 들려주는 기자에 대한 이야기들, “남 힘든 이야기를 팔아서” 돈을 벌고, 점차 “회사의 성향에 맞춰지는” 부분들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권준호가 언급한 기자 형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정대만의 친한 형 또한 권준호가 언급한 형의 경우처럼 진보적인 본인의 성향과는 다른 보수 성향의 언론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대만은 그 기자 형이 점차 회사가 일하는 방식이나 회사의 정치적 논조에 동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동화를 부정적

으로 받아들인다. 즉, ‘기자의 일’과 ‘기자라는 사람’을 분리하는 데에 실패했고, 이에 따라 기자 일을 더 이상 지망하지 않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준비생들은 기사 작성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기사를 인식함으로써, ‘사람으로서의 기자’에 이입하며 ‘윤리적인 사람으로서의 기자’를 계속해서 지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들은 기레기를 만들어내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간파를 바탕으로, 상품으로서의 기사가 독자에게 소비될 때 독자의 흥미 및 다른 언론사와의 경쟁 구조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간파는 오히려 그러한 기사를 쓰는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기자에 대한 감정적 동조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준비생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향의 기사를 쓰지는 못할지라도 여전히 윤리적인 신념과 진보적인 성향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미 언론사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는 준비생들은 언론의 구조적 문제들을 간파하고 비판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 비판의 내용을 각자의 현실에 적용하여 계속해서 기사를 지망하는 동기로 삼는다. 이들은 기레기를 호명하는 정파적 대중과의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객관적 태도를 수용함으로써 취업의 문을 넓히고, 기사와 기사를 구분함으로써 여전히 윤리적인 사람으로서의 기자로 남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다. 기자가 되면 기레기를 만드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준비생들은 이상과 현실을 타협해나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한다.

IV. 주변화된 기자 되기

본 장에서는 기레기 담론 안에서 기자들이 저마다의 윤리적 실천을 수행하며 기자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서술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자들이 자신들의 직업적 위치를 설정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구조적 제약을 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기자 개인의 직업적 가치관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언론사의 수직적 위계 구조이다. 둘째, 기자에게 필요한 친화력이라는 직업적 역량을 발휘하는 과정에 존재하는 맹점이다. 셋째, 다른 주체들의 자본력에 의존하는 언론사의 수익 구조와 이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기자들의 위치이다. 이와 같은 제약을 겪고 있는 기자들은 각자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기레기를 정의하며 비판적으로 또는 자조적으로 기레기를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레기에 대한 이해가 얽히며 기자들은 자신을 주변화된 기자로 인식한다. 여러 주체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은 자신의 위치가 상대적 열위에 있어 기레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자들의 ‘을’이라는 위치성은 각자 자신이 겪은 현장 경험을 통해 구축된 기레기 담론과 접합하면서 특정한 윤리적 실천을 만들어낸다. 연구자는 이를 다시 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기자들은 기레기 담론에 대항하거나, 기레기 담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기레기 담론으로부터 탈주하면서 저마다의 윤리를 실현한다. 이와 같은 기자들의 윤리적 실천은 일상의 미시적인 차원에서 성찰적으로 이루어지며(Goffman, 2013[1967]; 2016[1959]; Lambek, 2010; Laidlaw, 2002; 2014), 기자들은 이 실천을 통해 수행적으로 기자로서의 윤리적 자기정체성을 형성한다(Butler, 2008[1990]).

1. ‘을’로서의 기자

1) 기자 되기의 이율배반

기자들은 언론사에 입사하여 준비생 단계에서 간파했던 사실들을 실제 경험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언론사의 수직적 위계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소속된 언론사의 성격과 배치된 부서의 특성에 따라 자신들이 목표하는 가치 있는 기사만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이들은 회사에 순응하게 만드는 위계적인 관습·관행이 기레기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비판하면서도,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갈등하고 있었다.

Ⅲ장에서 준비생들이 기자가 되고자 했던 동기들을 살펴보았듯, 연구자가 면담한 기자들 또한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기자가 되었다. 저마다의 구체적인 계기는 달랐지만, 이 모든 계기들을 추동하는 것은 사회를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목적의식이었다. 예컨대 입사 2년차인 이명현의 경우에는 기자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기자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직업을 수행하는 점이 멋있어 보였고, 자신 또한 영향력을 갖고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고 싶다고 생각했다. 입사 4개월차인 수습기자 전호정은 열정적으로 사회봉사에 헌신하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신 또한 어릴 때부터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정적인 일보다 동적인 일을 좋아하는 자신의 적성에는 기자라는 직업이 잘 맞을 거라 생각했고 준비 끝에 기자가 되었다.

그러나 기자들은 언론사에 입사한 후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문화를 경험하면서 기자 일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회의했다. 실제로 언론사의 수직적 문화는 특정 언론사에 한정되지 않는 언론사 전반의 특징이다. 속도성이 중요한 기사를 빠르게 내기 위해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가 언론사 내에 굳어졌고, 기사가 나가는 과정에서 취재기자보다 데스크의 의견을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김달아, 2020; 김사승, 2012; 윤석민·이철주, 2003). 이에 따라 언론사에는 개인의 자율성보다도 조직의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관행들이 재생산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향식 위계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행들이 기사 작성의 효율성 제고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오히려 효율성을 저해하면서도 수직적인 문화 그 자체를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관행들이 언론사에서 재생산되고 있었다. 과도하게 고된 업무를 시키는 수습 교육이 대표적이다.

언론사의 권위적인 문화는 수습기자 시절에 거쳐야 하는 ‘마와리’와 ‘하리코미’라는 독특한 관행에 의해 재생산된다. 마와리와 하리코미는 각각 일본어 ‘(警察)回り’와 ‘張り込み’에서 파생된 말로, 마와리는 기사화 할 소재를 찾기 위해 경찰서를 도는 것을, 하리코미는 경찰서 등에서 숙식을 하며 취재하는 것을 일컫는 언론계 은어이다.³²⁾ 연구자가 면담한 기자들은 이 두 가지 관행의 목적이 취재의 효율성이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기와 기강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호정: 근데 저희가 세세하게 보면은 좀 타이트한 편이지만 저희의 그 교육이 결코 특수하다고 볼 수는 없고. 모든 언론사들이 마와리라는 교육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습이면 다 겪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교육의 목적보다는, 저는 교육의 목적보다는 기강 잡기의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마와리의 경우에는.

연구자: 내 말에 고분고분해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전호정: 네. 지시를 하면 토 달지 않고 바로바로 네 알겠습니다, 주말에 나가서 취재하라고 해도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 언론사는 굉장히 주체적인 인재상을 원하고 좀 더 활동적이고 생기가 넘치고 이런 인재를 원하지만 자기들이 키우는 건 그렇게 키우지 않는...

32) 언론계에는 일본어에서 파생된 은어가 많다. 이는 근대 언론이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현재의 유력 언론사 대부분이 일제강점기에 창간되어 이어져왔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언론사 내에서 사용되는 일본어 용어들은 일제의 잔재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자: 그러면 마와리를 돈다는 것의 의미가 정말로 어떤 소스를…

황태리: 아니죠. **충성심과 로열티**를 주기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하게 해주
는 거죠. (…)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딱히 제대로 취재할 거 있
으면 마와리 돌게 안 하고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굳이…

신준섭: 수습기자 할 때 지금은 좀 많이 상황이 바뀌긴 했는데 저는 52시
간제 적용 전에 입사를 해서 하리코미라고 하잖아요, 집에 안 보
내는 거. 그때도 참 그만두고 싶었고…

김수겸: 수습기자 때 퇴사를 한 친구들의 대부분이 정말 많이 회의감을
느끼고 퇴사하는 경우가 99%거든요. (…) 사실 업무와 관계없이
군기 잡고 위계를 가르치고 그런 것들의 교육이 오히려 (…) 나
중에 수습기자가 끝나고 나서 정식 기자가 됐을 때도 군대 문화
가, 옛날에 내가 당한 만큼 내가 고참이 돼서 또 괴롭히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사실 전반적인 기자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자들은 입을 모아 수습기자 교육에서 시키는 마와리와 하리코미를
비판했다.³³⁾ 이러한 교육은 효율적인 기사 생산과 거리가 멀고 업무 관
련성도 없으며, 단지 선배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비인간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특히 수습기자인 전호정의 경우, 수
습교육의 강도가 강한 언론사에 입사해서 마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
는데, 자신의 집과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경찰서를 배정받아 새벽 일찍
일어나 일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는 선배들이 의도적으로 집에서 먼 거
리의 경찰서를 자신에게 배정했다고 추측하고 있었으며, 관례적으로 이
러한 문화가 지속되어 왔다고 말했다.

33) 박재영(2014)에 따르면 기자 수습 교육은 일제강점기부터 존재했으며, 기
자를 공개 채용으로 뽑는 방식이 보편화되고 다수의 신입을 단기간에 교육할
필요가 생기면서 제도로 굳어졌다.

이와 같은 혹독한 수습기자 시기는 “평범한 사람이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기자로 재탄생하는 결정적인 시기”이다(박재영, 2014: 96). 그러나 이 수습교육을 거치며 신입 기자들은 특종을 잡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반복적으로 낙종³⁴⁾에 대한 질책을 당하고, 불필요하고 지나친 정도로 선배 기자 및 데스크의 눈치를 보는 태도를 갖게 된다(이석호·이오현, 2019: 183). 이에 따라 “언론조직의 내부방침과 관행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기자가 만들어진다(송상근, 2018: 29). 특히 언론사의 위계 순응적 문화에는 남성 기자들이 경험한 군대 문화 및 군사정권 시기의 외부적 강압 요인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황비용·장환영, 2021: 66). 엄격한 위계와 일방적 명령에 복종하는 한국의 군사화된 기업 문화(문승숙, 2007)에 순응하게 만드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투자 은행의 문화를 분석한 호(Ho, 2013[2009])의 연구에서도 신입 사원에 대한 수습 교육은 회사의 문화에 적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투자 은행의 신입 직원들은 한 달 간의 혹독한 훈련을 받는데, 이 과정을 거쳐 “성공을 거둬야 하는 불안과 경쟁의 문화에 적응”하게 된다(ibid.: 120). 즉, 이 훈련은 금융 비전공자들에게 재무 계산을 가르치기 위한 실무 훈련이기도 하지만 회사의 경쟁적 문화에 적응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루어진다. 한국 언론사의 수습교육 또한 신입 기자들에게 언론계의 “단독 [기사]” 경쟁 문화에 익숙해지게 만들고, 선배 기자 및 데스크의 지시를 따라야만 하는 위계 순응적 문화에 적응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문화가 지배적인 언론사에서, 기자들은 회사의 명령에 순응하면서 일하게 된다. 특히 부서 이동과 관련하여 기자들은 원하는 부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합당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인사 발령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명현: 형식적으로라도 인사 지망을 받았었거든요, 원래는. 꼭 그 요구를 받아주진 않더라도 그냥 대충 한번 보자 하면서 받아주긴 했

34) 낙종(落種): 특종을 놓침

었는데. 이제는 인사 지망 받지도 않아요.

연구자: 정말 그냥 윗사람 마음인 거예요?

이명현: 네. 그냥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연구자: 왜 정치부로 가게 됐는지 이유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명현: 아직도 미지수예요. 물론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갔을 텐데.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명현은 사회부에 있다가 급작스럽게 정치부로 부서 이동 발령을 받았는데, 이를 “언론계 악습”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사전 언질도 받은 바 없이 인사 방이 붙은 후에 자신이 부서 이동 대상자임을 알았고, 그 다음날 바로 정치부 취재를 위해 국회로 출근했다. 단 하루 만에 부서 이동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명현은 부서 이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알지 못했고 그저 회사의 명령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인사가 기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는 “회사의 필요”를 명목으로 삼아 기자들이 명령에 순응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러한 문화에 대해 전직 기자였던 황태리는 “까라면 까” 문화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기자들에게 부서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기자들이 원하는 기사를 쓰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 부서에 따라 기사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구자가 면담한 기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정치부 기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안을 포착하면서 정파적 갈등을 표면적으로 서술하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많다. 사회부 기사는 사회의 부조리한 부분을 드러내는 기사 위주이기 때문에 심층적인 취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교적 많으며, 산업부 기사는 기업의 동향에서 소재를 얻어 작성되기 때문에 각 기업 홍보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자들에게 중요하다. 따라서 기자들은 어느 부서에 속했는지에 따라 기사의 내용과 형식은 물론 취재 원과의 관계까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명현: 차라리 범죄자 기사 쓸 때가 나왔어요. (...) 그렇게 까는 기사를

쓰다 보면 이렇게 제도적인 허점으로든 그게 연결이 돼서 뭔가 그래도 좀 유의미한 기사를 썼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여기 와서는 잘 모르겠어요. 인용 기사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신준섭: 그러니까 사회부 아니면 요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심층 취재팀 이런 게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을 만나서 취재하고 기사 쓰기는 쉽지 않죠. (...) 정치부 기사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해요. 오늘 아침에 나왔던 게 3~4시간 이후에 갑자기 새로 회동해서 뒤집어지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공들여 써놓은 기사도...

신현빈: 제가 애초에 시작을 산업부 기자로 시작을 하기도 했고. 근데 그거에 대한 건 있어요, 확실히. 그런 뭔가 약자의 목소리를 안 듣고 이런 거에 대한 파생에서 나오는 아쉬움인 건데 결국은. (...) 저희가 워낙 기획보다는 스트레이트 같은 (...)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기자들은 심층 취재 및 탐사 보도를 할 수 있는 사회부에 있기를 원했다.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대변하는 기사를 통해서 사회를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기자가 되고자 했던 처음의 동기를 만족시키기에 정치부나 산업부는 적합하지 않았다. 사회적 약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기득권인 정치인들의 말을 인용할 뿐인 기사, 몇 시간이 지나면 “휘발”되는 기사, 기획력이 드러나지 않는 스트레이트 기사 등을 작성하면서 기자들은 이러한 기사 작성 행위를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배치된 부서에서 원하지 않는 기사를 쓰는 일은 불만족스럽고 의미 없는 기사 작성 행위를 넘어, 기자들 자신이 생각하는 기레기의 모습을 정의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산업부 기자인 신현빈은 기레기가 수직적인 위계에 기인하여 저연차들에게 강요된 결과

임을 강조했다.

연구자: 아까도 내가 쓰레기를 쓰는 건 아닌지 고민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신현빈님이 생각하시는 기레기의 정의는 뭔가요?

신현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언론사 내에서 나의 지위와 나의 평판을 위해 쓰거나 아니면 혹은 데스크의 지시나 어떤 지시가 부당하다고 느끼는데 부당함을 얘기하지 않고 쓰는 기자?

연구자: (...) 그렇게 생각 없이 기사를 썼을 때에 어떤 지점에서 제일 나쁜 영향이 갈까요?

신현빈: 그들[기업]의 이익을 옹호해주는 기사를 쓰게 되는 거죠. (...)

연구자: 이런 식으로 쓰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신현빈: 완전 주죠. 그리고 그걸 부장이 여러 명 단톡방[SNS 단체 채팅방]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부장들이 각각의 기자들한테 개인 톡[SNS 일대일 채팅방]으로 그걸 정리해서 다, 다 막 쪽 줘요. (...) 그러니까 그게 기자 개인이 생각 없이 쓰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전 그것보다는, 그런 기레기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저연차들의 열정을 이용해서 그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그 열정을 이용하느냐**, 그런 데서 생성되는 것 같아요. (...) 그렇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의 열정이, 저연차들의 열정이 다른 식으로 악용된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약간 **기레기같은 기사**가...

신현빈은 “아무 생각 없이” 기업과 데스크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기사를 쓰는 기자를 기레기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정의에 들어맞는 기레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기업과 데스크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기레기같은 기사”만 존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출입하던 기업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그 기업이 일종의 보도지침을 언론사에 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후, “갑은 절대 기자들이 아니”며 기업과 데스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일선 기자의 현실을 절감했다. 즉,

신현빈에게 기레기는 저연차 기자로서 거스르기 힘든 오명에 가까웠다.

이와 같이 기자들은 언론사 입사 후 언론사의 위계적인 문화를 경험하고 상사와 회사의 명령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깨닫는다. 이와 같은 위계적인 문화는 언론사 윗선의 일방적인 현장 배치로 구체화된다. 기자들은 부서를 선택할 권리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된 부서의 특성에 따라 기사를 작성해야만 한다. 기자가 되고자 했던 처음의 목표, 즉 기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목표는 기자 개인의 의지만으로 이를 수 없는 것이 된다.

2) 친화력의 맹점

기자 개인의 역량 측면에서 기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자의 실질적 역량은 무엇보다 ‘친화력’이다.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취재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하므로 기자들은 취재원과 쉽게 가까워질 수 있는 친화력을 기자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꼽았다. 바꿔 말하면, 기자들은 자기 자신을 자원으로 삼아 최대한 많은 취재원을 자신의 편으로 얻는 “사람 장사”를 잘해야 한다.

그러나 취재원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두 가지 맹점을 내포한다. 기자로서 권력자인 취재원을 견제하지 못할 가능성, 그리고 정보 획득을 위해 부당하거나 비윤리적인 상황을 용인하게 될 가능성이다. 기자들은 친화력을 발휘하고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단순히 유능한 기자가 되는 것을 넘어 기레기가 될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연구자가 면담자들에게 ‘기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능력 혹은 덕목’에 대해 물었을 때, 면담자들은 추상적인 신념의 차원과 실질적인 역량의 차원으로 나누어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추상적인 신념으로는 기자의 개인적인 배경과 경험에 따라 다양한 답변이 나왔지만, 실질적인 역량으로는 많은 기자들이 공통되게 친화력을 꼽았다. 예컨대 2년차 기자인 정우선은 현재 정치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기자에게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중요하지만 정치부에서는 “친한 척 잘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하게 7년차 기자인 신준섭 또한 이상과 현실을 나누면서, 이상적으로는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권력에 대한 비판의 칼날”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친화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취재원에게서 정보를 얻어야 기사를 쓸 수 있으므로 취재원에게 신뢰를 주고 취재원과 친밀감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명현: 무조건 **기자는 진짜 사람 장사**.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장사.

연구자: 무슨 의미예요?

이명현: 그러니까 내 편을 만들 수, 취재원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고 해도 제 의지로 어떻게 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 유리한가요 그럼?

이명현: 근데 정치부는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되게 일본어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언론계가. ‘사와리 좋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연구자: 사와리?

이명현: 네. 친화력이 좋다. 그거를 굳이 뭐 사와리 좋다고 표현을 하긴 하던데. 그래서 저는 정치부 올 때, 아니 정치부 오기 전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의원들이 사와리 좋은 기자들 되게 많이, 되게 좋아해.**

이명현의 언술에서 나타나는 “사와리 좋은” 역량은 특히 정치부 기자에게 필요한 역량이다. 일본어 ‘觸り’에서 유래한 언론계 은어 사와리는 무언가가 닿았을 때의 촉감, 사람을 대했을 때의 느낌을 일컫는다. 따라서 사와리가 좋다는 말은 불임성이 좋고 처음 보는 사람과도 친근하게 잘 대하는 성격을 의미한다. 국회를 출입처로 삼아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 국회 내의 수많은 의원 및 보좌진들에게서 정보를 얻으려면 친화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다른 정치부 기자인 정우선 또한 국회 관계자들

로부터 대답을 유도해내려면 날카로운 태도보다는 “능글능글하게” 경계를 풀며 질문하는 것이 더 유효한 전략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자, 특히 정치부 기자가 취재원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권력을 가진 이들을 견제하지 못하고 기자로서 비판 의식을 잃어버릴 위험을 내포한다. 특히 정우선은 기자가 하나의 정당을 출입처로 삼아 취재하는 경우에 정당 의원들과 친밀해지는 것을 넘어 그 정당에 “동화”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정우선: 저는 지금은 출입처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출입처가 있는 게. 왜냐면 국회에 있으면서는 (...) 국힘[정당 국민의힘] 출입 기자는 국힘만 출입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일부 기자들은 국힘은 우리 당이라고 생각해요. 기자들이 의원들한테 선배라고 하거든요. 의원들 보좌진들한테 선배라고. 근데 저는 선배란 말은 진짜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엄청 그 권력에 가까이 다가 가야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너무 친밀하면 사람을 견제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른들은 불가근불가원 이런 말 쓰는데. 정말 너무 거기 동화돼서 그냥 보도 자료를 그냥 쓰는... 사실관계 확인, 이 사람이 어쨌든 워딩 안에 숨을 수 있으니까. (...)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이런 이런 지점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적어줘야 이걸 보는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할 텐데, 그 사람들이 의도한 프레이밍을 그대로 그냥 받아서 써버리면 그냥 보는 사람들은 ‘이거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너무 해롭다고 생각하고.

정우선은 출입처의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취재원의 보도 자료를 바로 기사로 내버리는 기자를 기레기라고 생각했다. 정치적으로 “프레이밍”된 말이 그대로 진실인 것처럼 보도되면서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기레기가 일정

한 출입처를 취재 현장으로 삼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기자로서 자신이 누구를 위해 복무하는지, 자신의 일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계속해서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정우선의 말에서 흥미로운 점은 “선배”라는 호칭으로 연결되는 기자와 의원의 관계이다. 정치부 기자들이 의원 및 보좌진들과 가장 쉽게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연결고리는 바로 ‘출신 학교’였다. 기자가 의원을 선배로 호명함으로써 권력을 가진 공적 직책으로서의 의원이 은폐됨과 동시에 의원과 기자의 거리가 사적인 관계로 좁혀진다.

정우선: 근데 지금은 제가 국회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개할 때 제가 어디 학교 출신인지 아는 선배들이랑 정치인들 거기서 일하는 국회 보좌진들 같이 만나면 “정우선 기자는 어디 학교 출신이에요”라고 말하고, “아~ 어디 학교야?” 이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은 비슷한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고등학교까지 내려가서. 고등학교가 진짜…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중요할 수도 있겠다. (…)** 옛날 학교들. 경기고, 충암고… 그래서 남자들은, 의원들이 나이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지금 대통령과 비슷한 또래의 남자 정치인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권력이 많고 권력이 많은 건 정보도 많은 거니까. 어쨌든 나를 어필하는 게 필요하니까. 근데 기자는 저는 약간 진짜 영업사원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취재원한테 자기를 하나라도 더 어필하고 나를 기억해주길 바라는. 국회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한테만 먼저 말해주길 바라는… 이게 실력으로 눈에 띄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나라는 존재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으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어디 매체 누구다, 나 어디 학교니까 기억해 달라 그런… 그런 것들이 되게 있어요.**

정우선에 따르면 출신 학교는 “영업사원”으로서의 기자가 자신을 어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우선은 유력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이 나온 대

학 출신이었고, 대학을 매개로 취재원들과 네트워크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다른 요소들보다도 가장 빠르게 취재원들에게 자신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학교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학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는 그 안에서 다시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연결고리를 매개로 세분화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남성 집단의 결속을 강화한다. 국회에 같은 대학 출신이 많아 좁고 친밀한 내집단을 구성하기 어렵게 되자, 기자들은 고등학교에서 공통점을 찾아 더욱 배타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했다. 이때 연결고리가 되는 고등학교들이 대부분 서울의 유명한 남고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여성 기자들은 네트워크에서 배제된다.

기자가 취재원과 친밀해지는 것의 또 다른 맹점은 이와 같이 정보가 남성 기자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친화력이라는 역량을 발휘한 결과로 용인하게 된다는 점이다. 기자-취재원 간 관계 맺기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 기자들은 구조적인 제약에 의해 친화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국회, 경찰서, 기업 등 어느 곳을 출입처로 삼든 주요 정보원은 남성인 경우가 많으므로 언론 현장에서 여성 기자들은 취재원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어려운 것이다. 더불어 전체 기자 중 여성 기자의 수는 2021년 기준 1만 7백여 명으로 31.5%에 불과하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여성 기자의 수가 남성 기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 기자들은 정보원으로부터 배제되지 않기 위해 현장에서 마주하는 부당한 일들을 용인해야 했다.

이명현: 근데 이건 어느 부서를 출입하든 마찬가지일 것 같은 한테. 그 남기자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취재원들이랑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취재원, 그니까 정보 소스들이 남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 경찰도 남자 경찰들이 확실히 많거든요. 경찰서 언론 창구들은 과장들인데. 제가 여자 과장을 본 게 손에 꼽아요. 대부분이 다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남자 기자들은 술자리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군대에 있었던 얘기를 풀면서 그런 벽을 허물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약간 보면서...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죠, 그들보다. 취재원이랑 가까워지려면. 되게 “형님, 형님” 이러면서... “선배” 뭐 이러면서 친해지는 경우도 많고.

최동은: 그래서 사실 뭐 기자 정신 이런 거 없어요. 굽혀요. (...) 막 칭찬해 주고 띄워주고. 막 좋아하는 척 하고. 아저씨 할아버지 누가 좋겠어요. 좋아하는 척하고 그러면서 물어보고. 슬쩍 물어보고. 계속 막 구슬려요. 그냥 진짜 구워삶듯이 계속 그렇게 하는... 대쪽같이 할 말 하고 이러지 않아. 뺨은³⁵⁾ 소리, 그냥 진짜 못 들은 척 넘기고. 무조건 저자세, 무조건 저자세.

여성 기자들은 정보를 얻기 불리한 상황에서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함은 물론, 남성 취재원의 성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2년차 기자인 최동은은 정부 공무원들을 주요 취재원으로 삼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다. 이 부서에서는 공무원들과의 식사 및 술자리에서 기사화 할 수 있는 여러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이 최동은의 일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남성 취재원들을 만나면서 성차별적 발언을 들어도 “못 들은 척” 넘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토로했다. 기사를 내기 위해서는 취재원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취재원의 차별적 발언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여성 기자들이 묘사하는 친화력 발휘의 과정에는 이들의 과도한 감정소모가 포착된다. 흑실드(Hochschild, 2010[1979])가 지적하듯, 감정노동은 젠더적으로 여성에게 더 강도 높게 부과된다. 남성보다 여성이 돈, 권력, 지위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회에서, 감정과 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은 여성에게 더욱 중요해진다. 자신이 직면한 상호작용의 상황이 순조

35) 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에 반대되는 말이나 행위를 설명할 때 붙이는 수식어이다. 정치적 올바름은 인종·민족·언어·종교·젠더적으로 편견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롭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 “피상적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방어 기법 (defensive practice)”을 발휘하여 좋은 인상을 연행해야 하는 것이다 (Goffman, 2016[1959]: 20-21). 신자유주의적 노동 통제는 모든 노동자에게 미묘하고 일반화된 모욕의 위협에 노출시키고(김현경, 2015), 그 중에서도 여성 노동자는 직업 현장에서 마주하는 모욕에 더 많은 감정을 소모하며 대처해야 한다. 연구자가 면담한 여성 기자들 또한 남성 기자가 구축한 “그들만의 리그”에서 더 큰 모욕을 감내하고 더 많은 감정적 자원을 투입하여 “저자세로” 친화적인 모습을 연행하고 있었다.

기자들의 ‘단독’ 경쟁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정보 획득의 기회가 불평등하게 분배된 기자 사회에서 경쟁에 내몰린 여성 기자들은 취재원과의 관계에서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기자들은 경쟁적으로 단독을 쫓는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기사를 기레기로 정의하고 있었다.

연구자: 단독 횟수를 카운트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최동은: 저희는 있어요. 저희는 그게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량 평가를 하고 부장이 정성 평가를 하는데 이제 다 그게 기준이에요. 단독. 단독을 몇 개 썼고 그게 포인트로 다 채점이 돼서 포인트가 가장 높을수록 나중에 인센티브 배분할 때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 특히 기자들은 사실 메이저한 매체가 얼마 없고 나머지 다 좀 조만고만하니까 점프를 하려는 기자들이 되게 많아서 자기 존재감을 알리려면 그런 검색했을 때 자기 이름으로 단 단독들 많은 거. (...) 그렇게 뭔가 존재감을 알리는 거예요 계속. 너무 많으니까 기자가. 기자가 너무 많으니까. (...) 근데 진짜 기레기의 이주 그 근원은 단독 경쟁과 정말 뿌리 깊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 되게 좀 비윤리적인...

황태리: 기자가 보는 기레기? 엠바고 깨고. 엠바고 깨고, 모두가 지키자고 한 건데 본인이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기자

끼리 암묵적인 룰이었는데 엠바고라는 거는. 단독 한번 달아보겠다고 저놈의 자식, 그거는 진짜 상도외가 어긋난 거지, 우리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약간 이런 거. 그리고 기사거리도 아닌 걸 갖다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부풀려서 또 단독 달고 쓰고. 저거 사실 우리끼리는 아닌 거,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거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단독 달겠다고 이렇게 부풀려서 쓰고.** 그거는 진짜 솔직히 되게 여우같은 행동. 저희 입장에서 기레기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단독 경쟁은 특히 ‘기자 사회 내부’에서 호명하는 기레기가 등장하는 주요한 배경이었다. 최동은이 소속된 언론사에는 단독을 낸 횟수를 계산하여 기자의 등급을 매기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시스템이 있다. 단독을 낸 횟수가 금전적 이익과 직결되는 것이다. 또한 기자 사회에서 단독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주요한 방편이며 더 좋은 매체로 이직하기 위한 발판이다. 때문에 최동은은 정보를 독점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황에서 비윤리적인 기레기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전직 기자인 황태리 또한 “기자가 보는 기레기”는 단독을 달기 위해 엠바고(embargo)³⁶⁾를 깨거나 기사를 부풀려서 의도적으로 단독을 만들어내는 기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기자의 일이 정보를 가공하여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취재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기자들이 취재원과 신뢰를 쌓아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친화력을 발휘하여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기자의 일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원과 친밀해지는 과정에서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을 잃어버리고, 단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문제적 상황에 노출되기도 한다. 기자들은 정보를 얻어내어 유능한 기자가 되는 것과 몰염치한 기레기가 되는 것 사이에서 진동하며 현장을 마주하고 있었다.

36) 보도 시점을 유예하는 것.

3) “우리는 비즈니스 라이터”

기자들은 자신들이 사주에게 고용된 기자로서 회사에 수익을 가져다주는 여러 주체들의 요구에 따라야만 하는 위치에 있다고 인지한다. 앞서 지적하였듯 포털에 기사를 게재하고 조회수에 따라 얻는 수익이 중요해지면서, 기자들은 자신이 쓴 기사가 데스크에 의해 독자들의 클릭을 유도할 만한 자극적인 제목으로 바뀌는 일을 빈번하게 겪게 된다. 또한 광고를 통한 수익,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홍보성 기사를 통한 수익이 주된 수입원인 경우 기자들은 이들 기관이 요구하는 보도 통제에 따르거나 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써야 한다. 기자들은 기자로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스스로를 “비즈니스 라이터(business writer)”라고 자조하고 있었다.

이처럼 뉴스 생산 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이 개입되는 것은 언론사 뉴스가 이중적 생산물(dual product)이라는 점에 기인한다(Albarran, 2002; Picard, 2005: 67에서 재인용). 뉴스로 인한 수익은 독자와 광고주라는 이중의 플랫폼을 통해, 즉 “독자가 투여한 시간과 관심뿐만 아니라 광고주가 지출한 비용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것이다(ibid.). 이때 독자를 통한 수익과 광고주를 통한 수익은, 뉴스가 직접적인 교환의 대상이 되는 생산물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나뉜다. 포털의 pv(pay-per-view)나 독자의 구독료에 따른 수익은 뉴스를 교환의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수익이라고 할 수 있고, 뉴스에 광고를 노출시킴으로써 광고주로부터 광고의 기대 효과로서 얻는 수익은 간접적인 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사는 이러한 수익 모델을 적절하게 채택하여 자사의 수익 구조를 구성한다(Ha, 2018: 144-145).

연구자가 면담한 기자들 또한 자신들의 기사가 갖게 될 수익성과 사회적 의미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수익 구조가 독자 중심인 언론사의 기자들은 기사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체감하고 있었다. 특히 pv는 기사 소비를 통한 직접적인 수익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 구조를 가진 매체의 기자들은 무엇보다도 독자의 선호를 고려해야만 한다.

이정현: 예전에 할 때는 ‘우리 신문을 보는 독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줄 것인가’였으면, 요즘에는 ‘네이버에서는 이런 기사가 되고 다음에서는 이런 기사가 되는구나’ 그런 거를 생각하고. 이제 사람들이 기사를 클릭하면 그게 이렇게 랭킹별로 뜨는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 이런 걸 보면 지금 어떤 포털이나 어떤 사이트에서 이 기사가 잘 유통되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여요. 그걸 분석해서 이 기사가 지금 먹히고 있으니 이 기사를 좀 더 잘 팔아봐야겠다 그런 유통 같은 걸 생각하게 되고.

7년차 편집기자인 이정현은 6년 동안 종이 신문 지면의 편집 업무를 맡다가 몇 달 전 디지털 뉴스를 편집하는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는 지면 기사를 편집할 때는 몰랐지만 디지털 뉴스의 조회수와 pv를 직접 수치로 확인하게 되자 “이것도 산업”이라는 점을 체감했다. 특히, 기사 제목을 조금 더 자극적으로 바꾸고 나서 조회수가 순식간에 급등하는 것을 본 후, 포털과 독자의 특성을 고려하며 “먹히고 있”는 기사가 무엇인지 분석하게 되었다.

많은 기자들은 이와 같이 독자에게 읽히기 위한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기레기가 만들어진다는 데에 동의했다. 정우선은 동료 기자가 작성한 기사 제목이 데스크에 의해 발제 의도와는 정반대의 논조로 바뀌는 일을 목격했고, 최동은은 이와 비슷한 일을 직접 겪기도 했다. 전호정은 클릭 수에 매몰된 자극적인 제목을 다는 일을 “언론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최동은은 “제목은 나의 영역이 아니”기에 체념하고 있다며 냉소했다. 이들은 모두 2년 미만 경력의 저연차 기자들이기에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윗선에 의해 기레기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았다. 즉, 이들이 비판과 냉소를 담아 호명하는 실질적 기레기는 자신을 기레기로 만든 데스크나 편집국이었다.

저연차 기자들이 비판하는 편집기자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현은, 자신의 일이 기레기에 가까워지기 쉬운 일임을 인정했다. 자극적인 제목

이 곧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을 목도하다 보면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에 익숙해진다는 것이다.

이정현: 아무래도 이게 수치로 조회수나 pv가 찍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 기사를 잘 팔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센 말이나 자극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 그리고 그러다 보면 뭔가 되게 맛있는 제목으로 돼 있었던 기사가 기사의 제목만 조금 바꿔줘도,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더 눌러보고 싶게 하면 애가 늘린다는 걸 아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레기에 조금 가까워지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면 그런 멸칭을 듣게 되는, 그래서 그 선을 잘 잡는 것? 선을 넘지 않되 그렇다고 또 너무 맛있는 제목을 달면 아무도 눌러보지 않는데. 근데 사실 기사라는 건 읽히려고 쓴 건데 이 기사가 읽혀지지 않으면 존재의 가치가 있나? 그래서 결국에 읽히려고 쓰인 거면 애를 잘 읽히게 만드는 게 또 편집기자의 일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정현은 편집기자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악의적 의도 없이 기레기가 될 수 있다고 이해한다. 그는 자사의 기사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편집기자로써 자신의 책무는 취재기자들의 “공이 많이 들어간” 기사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읽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취지가 좋은 기사들이 묻히지 않도록 “소구력 있는” 제목으로 바뀌되 “선을 넘지 않”게 하는 데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편집기자인 이정현에게 기레기란, 제목을 바꾸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제목을 바꾸는 과정에서 아무런 윤리적 고민을 하지 않는 태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광고에 의존하는 수익 구조를 가진 언론사의 기자들은 광고를 넣는 기업이나 기관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야만 한다. 특히 한국 언론 산업

에서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무엇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Ha, 2018: 145). 따라서 광고주가 비용을 지출할 만한 유인이 없고 독자에게만 어필하는 뉴스인 경우, 그리고 이때의 독자가 대가를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경우에 언론사는 수익을 올리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Picard, 2005: 67).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가 면담한 기자들은 광고주의 요구에 따르는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그러한 만큼 홍보성 기사를 써야 한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최동은: 그렇게 부처 홍보해 주는 기획 기사도 종종 있고, 산하기관도 종종 있고. 돈이 오고 가는 기사예요, 그런 거는. 부장이 이렇게 가끔씩 어디 부처 대변인이랑 약속 좀 잡아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신호예요. 우리가 돈이 오고 가는 기사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만나면 “기획 좀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처에서 만들어서 이제 기자한테 던져주고 기자가 막 써주고. (...) 엄청 현타 오죠, 엄청 현타 오고. 너무 하기 싫어요. 진짜 사실 너무 쓰기 싫고. 그래도 뭐 저는 부처니까 현타가 조금 덜하다면 덜하지만. 저의 선배로 예를 들면 00기업인가? 이제 옛 바뀌 먹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옛 바뀌 먹는 기사** 한번 쓰라 그래서 썼는데 그게 진짜 현타가 엄청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최동은의 말에서 나타나는 홍보성 기사 작성과 그에 대한 대가 지불, 즉 “옛 바뀌 먹는” 행위는 언론사의 요구로 성사된다. 이러한 경우의 기사는 언론사의 수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획된 기사가 된다. 부장급 기자가 기획 기사를 쓰라고 지시하면 평기자들은 지시에 따라 기사를 써야 한다. 최동은은 돈을 준 기관이 “세팅해 주는 대로” 기사를 쓰면서 기사 일에 대해 많은 회의가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적한 언론사의 하향식 위계 구조가 광고에 의존하는 수익 구조와 함께 맞물려 작동하면서 평기자들은 원치 않는 기사 작성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다. 자신들의 판단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사를 작성하면서 기자들은 기사의 공적·사회적 가

치를 생각할 수 없게 되고, 자신들을 회사에 수익을 가져다주기만 하는 회사원으로 인식하게 된다.

최동은: 그래서 사실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부처를 출입하다 보면 현장이 없고 맨날 사람 만나는 게 일이다 보니까 진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 왜냐면 정말 척지면 안 되니까 그 눈치가 보여서 정말 뽀족한 기사 나오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정말 민감한 그런 거 건드리는 기사가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한겨레 경향은 되게 스탠스가 확고하니까 좀 대단하다 싶어요. 그리고 그 한겨레 선배는 확실히 브리핑이 있을 때 질문도 되게 스스럼없이 하거든요. 그게 진짜 멋있어요. 진짜 저거 찼 기자. 우리들도 막 그래요. 경제지 기자들도, ‘기자는 한겨레가 진짜 기자고 우리는 비즈니스 라이터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정우선: 그래서 00경제 [다니는] 아는 친구는 “나 오늘 돈 벌러 간다” 이래요. 그러면 부동산 기사 계속 써주는 거거든요. 그니까 광고 기사 급으로 거기도 이제 부동산 기업들이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요구하는 논조로 기사를 막 써줘요. 기자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들이 월급을 주니까 나 쓰고 싶은 기사 쓰고 또 한편으로는 돈 벌러 간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최동은의 말에서 “비즈니스 라이터”로 묘사되는 자조적인 호명은 “돈 벌러 간다”는 정우선의 동료 기자의 말과 대응한다. 사주와 기자 간의 명백한 위계가 있는 상황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는 언론의 사회적 기능은 언론사의 이윤 추구 논리에 의해 약화되기 쉽다. 사주나 경영진이 아닌 일선 언론인은 기업적 성과보다 사회 제도로서의 언론의 가치를 중요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이정훈·김균, 2006), 데스

크와 평기자 사이에 명백한 위계가 있는 상황에서 평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

이명현: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이 기자는 기레기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 요즘 그냥 그 단어 자체를 잘 안 써가지고. 제가 안 써가지고. **제가 기레기이니까.**

연구자: 아이... 아니, 스스로 기레기라고 생각하세요?

이명현: 오히려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저는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소명 의식을 갖고 일하는 기자가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기사를 쓰는** 그런 기자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자조적인 의미에서 기레기라고 쓰거든요.

나아가 이명현은 “먹고 살기 위해서 기사를 쓰는” 자신을 기레기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회가 말하는 기레기”는 있겠지만 기자들끼리 동료 기사를 기레기로 부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대신 기자 사회 내에서 기레기라는 말이 쓰일 때는 다른 기사를 호명할 때보다도 자신을 가리킬 때라고 고백했다. 소명의식 없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기자가 되었을 때 스스로를 자조하기 위해 쓰는 말이라는 것이다. 이는 앞서 편집기자인 이정현이 정의한 기레기의 의미, 즉 고민 없이 그저 열심히만 일하는 기자와도 맥락이 닿아 있다. 이정현과 이명현이 정의하는 기레기는 특정한 행위나 결과를 통해 호명되는 기표가 아니라, 기자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기자가 스스로에게 호명하는 기표가 된다.

이와 같이 기자들은 언론사 내의 선·후배 및 동료, 취재원, 독자 및 광고주 등의 주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직업적 실천을 수행한다. 이때 기자들은 언론사 내의 관계에서는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위계 안에서 윗선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으며, 취재원과의 관계에서는 친화적인 모습을 연행하면서도 정보 독점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했다. 또한 독자 및 광고주를 의식하면서 기사의 방향을 자신의 의지대로 정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즉, 이들은 상대적 우위를 뜻하는

‘갑’과 상대적 열위를 뜻하는 ‘을’ 중에, ‘을’의 위치에 있었다.

을의 위치에 서 있는 기자들은 기레기가 되기를 강요받기도 하며, 기레기가 되어버린 동료 기자를 목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대중의 호명으로 등장한 기레기라는 기표는 기자 사회 내에서 기자들 각자가 마주하는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며 다층적인 의미를 갖는 기표가 되었다. 특히 연구자가 면담한 기자들에게 기레기는 기자로서의 이상을 좌절시키는 현실에 대한 자조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잃지 않으려는 비판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이때, 기자들은 기레기 담론을 수용하기만 하는 무기력한 존재로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기자들의 을이라는 위치성은 기레기 담론과 접합하여 특정한 윤리적 실천 양상으로 나타난다. 구조적 기레기가 되지 않고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기자들의 윤리적 실천은 기자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수행적 실천이 된다. 이 실천의 구체적 양상은 다음 절에서 살펴본다.

2. 기레기 담론과 윤리적 실천의 접합

기자들은 을이라는 자신들의 위치에서 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한 “일상의 윤리”를 실천함으로써 “미덕의 주체”가 되기를 시도한다(Laidlaw, 2002; 2014; Lambek, 2010). 일상의 윤리는 명시적인 규범보다도 일상에서의 암묵적 행위 및 상호작용의 차원에서 드러나는 윤리를 일컫는데(Lambek, 2010), 일상의 윤리를 실천함으로써 윤리적 삶을 사는 주체는 그 실천이 사회적 제도 및 권력과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의식적인 성찰을 발휘하여 미덕의 주체가 된다(Laidlaw, 2002; 2014). 기자들에게서 보이는 윤리적 실천은 충실하게 기자직을 수행하고자 하는 직업적 동기뿐만 아니라 기자들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윤리적 감각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며, 언론을 둘러싼 여러 권력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된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기자들이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윤리적 딜레마의 상황에서 성찰적으로 윤리적 행위를 선택하고 윤

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모습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자들의 윤리적 실천은 기레기 담론을 준거로 기레기를 만들어내는 구조와 주체들에게 저항하는 행위로 표현되는데, 이때의 저항은 “힘없는 자들의 하부정치”의 성격을 띤다(Scott, 2020[1992]: 15).³⁷⁾ 기자들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황의 막후에서 전략적인 윤리적 실천을 시도한다. 연구자는 이와 같이 기레기 담론 안에서 전략적 저항의 행위로서 수행되는 기자들의 윤리적 실천을 ‘반(反)기레기적 실천’으로 부르하고자 한다. 반기레기적 실천은 기레기 담론과의 대항, 기레기 담론의 부분적 수용, 기레기 담론으로부터의 탈주라는 세 양상으로 발현된다.

1) 대항: 탈정치적 윤리

기레기 담론과의 대항은 기레기 담론의 두 가지 함의 중 정파적 기레기 담론에만 선택적으로 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자들은 정파성을 띠는 대중의 기레기 호명이 단순한 정치적 선호에 근거한 혐오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호명에 대항한다. 정파적 기레기 담론에 대한 대항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로 정파적 기레기 담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기자들은 정파적 기레기는 기레기의 범주에 넣지 않고, 정파성을 띠었다는 이유로 대중에게 기레기로 호명되었을 때 이 호명에 대

37) 스콧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언설(discourse)에 권력 관계가 내포되어 있음에 주목하고, 공개적으로 이 언설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공식 대본(public transcript)으로 개념화한다. 반면 공식 대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막후에는 공식 대본과 일치하지 않는 피지배 집단의 말, 행동, 관습 등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은닉 대본(hidden transcript)이다. 공식 대본과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은닉 대본은 “지배 집단의 배후에서 이루어지는 권력 비판을 대표”한다(ibid.: 15). 예컨대 힘없는 자들끼리 나누는 소문, 험담, 몸짓, 농담 등이 은닉 대본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소는 피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적 불복종을 은폐하면서 권력을 던지지 비판하는 의미를 갖는다. 스콧은 바로 이러한 불복종의 형태를 힘없는 자들의 하부정치라고 지칭한다.

향한다. 둘째로, 정파적 기레기 담론 안에서 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 정파성을 띠는 기사를 작성하는 것에 대항하는 것이다. 이때의 대항은 기사를 작성할 때 정파성이 아닌 전문성을 추구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우선 기자들이 정파적 기레기 담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정무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기레기로 매도하는 대중의 호명을 비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우선: 저희가 어쨌든 독자 구독이 60%고 광고가 30%인데 이런 구조가 저는 별로 없다고 들었거든요, 언론사에서. (...) 제가 오늘 000 [야당측 정치인] 기사 하나 썼는데 그래서 오기 전에 잠깐 댓글 달려서 보고 왔는데 구독 끊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렇게 뭔가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이런 정무적 기사를 쓰는 게. 저도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 저희는 그래서 진짜 예를 들면 000 [여당측 정치인] 관련 기사를 쓸 때보다 000 [야당측 정치인] 관련된 기사를 쓸 때 훨씬 더 엄격한... 못 쓰게는 안 하지만 훨씬 더 데스크가 엄격한 것 같아요.

정우선: 그리고 이게 또 구분해야 되는 게, 저도 방금 000 [야당측 정치인] 기사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막 욕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전에 000 [여당측 정치인] 기사 썼다가 '야 이년아'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너무 정파적이라서 자기가 보는 세계와 다른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기레기라고 손쉽게 부른다고도 생각하는데.

정우선은 독자의 구독에 의존하는 수익 구조를 가진 언론사의 기자로서, 주독자층의 정치적 성향에 신경 쓰고 있었다. 주독자층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비판한 자신의 기사에 구독을 끊겠다고 댓글이 달린 것을 보고 부담이 생긴 것이다. 그는 자신이 소속된 매체는 포털 기사 조회수로 수익을 얻어야 하는 다른 언론사와 달리 고정적인 독자 수익이 있어 속보

를 남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강점은 있지만, 정무적인 기사를 쓸 때에 더 검열하게 되는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우선은 특정 대중이 호명하는 정파적 기레기를 기레기 담론에서 구분하고, 이를 정당하지 않은 호명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신준섭: 그리고 그냥 뭐 기레기를 만드시는 거죠 또, 독자들이. 그냥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저도 아까 기레기 된 거예요. 우리가 나쁜 말이지만 뭐 틀딱충이니 잼민이니 급식충이니³⁸⁾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붙이는 풍조도 점점 강해지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신준섭 또한 정우선과 비슷하게 대중의 자의적인 기레기 호명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사회부와 정치부에 있으면서 공교롭게도 이슈가 있는 출입처만 다니며 기사를 썼기에 독자로부터 많은 댓글과 메일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는 무조건 중립을 지키기보다는 설득력이 있는 하나의 관점을 택하여 기사를 쓰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반대 진영의 독자에게 악성 댓글과 메일을 받았다. 그러나 신준섭은 자신이 쓴 기사의 사실관계가 틀렸거나 관점이 지나치게 편향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즉, 정파적 기레기라는 호명을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태도는 기레기 담론의 일부를 아예 부정하는 것으로서 기레기 담론에 대항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들이 타당한 근거 없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기레기를 호명할 때, 기자들은 이러한 호명을 혐오로 이해하고 거부한다.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정당한 비판과 근거 없는 혐오를 구분하여 받아들임으로써, 기자들은 기자로서의 직업적 동기를 잃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정우선과 신준섭의 사례처럼 정파적 기레기 담론 자체를 부정하

38) 틀딱충은 노인일, 잼민이는 초등학생을, 급식충은 중고등학생을 향한 비하와 혐오를 담은 말이다.

는 것이 아니라, 담론 안에서 정파적 기레기에 대항하기 위해 정파성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반기레기적 실천도 포착된다.

신현빈: 저는 그건 진짜 경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 기자가 행동하는 거. 그 사람한테 지나치게 감정이입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 가치관이 모두가 옳고 이게 진짜 부러지지 않을 가치관이고 세상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사실 이거는 진짜 시민단체나 정치인이나 어쨌든 다른 사람의 역할이고 사실 기자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신현빈의 언술에서 기자는 시민단체나 정치인과 구분된다. 그가 만났던 한 정치부 기자는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고 그것만을 옳은 가치라 여기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따라다닐 정도로 정치에 깊숙이 개입한 사람이었다. 이 기자는 정치부나 사회부의 기자가 아니면 “기자라고 하기 좀 그렇지 않”느냐는 말도 서슴없이 할 정도로, 사회와 정치에 관여하는 기자의 역할만을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었다. 신현빈은 정치판과 거리두기를 하지 못하는 이 기자를 보면서, 기자가 정치적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을 경계할 필요를 느꼈다.

신현빈: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정의로운 기자라고 흔히 말하는 그게 있잖아요. 전 그것도 되게 좋은 거, 진짜 우리나라에 너무 없지만 너무나 더 필요한 기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제가 산업부 오면서 들었던 또 다른 기자상? 이 정도의 상은 좋은 상이라고 생각한 건, **전문적인 상.**

연구자: 전문적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신현빈: 그 분야를 되게 잘 알아서 기사를 써도 훨씬 더 풍부하게 쓰는 사람. 앞뒤 맥락도 다 알고 있고 역사적인 맥락이나 이런 것도 알고 있고 그냥 인사가 나도 이 인사가 왜 이 인물이 여기 왔는지 알고 있고. (...) 그냥 기자상이 좀 다양해져야 한다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정의로운 기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서 되게 잘 아는 기자.

연구자: 그럼 잘 아는 것이 그런 정의로 연결될 수도 있을까요?

신현빈: 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 그럼 더 계속 풍부해지는 거고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한테 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 걸 수도 있고. (...) 옳다, 나쁘다라고 쓰는 목소리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다르게 볼 수 있는... 뭔가 그게 해석보단 정보성이 많은 기사? 때론 해석의 여지를 그냥 독자들에게 열어둬서.

신현빈의 말에서 그가 갖고 있던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관심, 사회적 정의에 대한 고민 등은 전문성과 능력의 담론으로 전환된다. 그는 자신의 직업적 실천이 사회에서 갖는 역할을 고려하면서 정치적 가치 판단이 들어간 기사보다는 정보 위주의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기사를 지향하게 되었다. 나아가, 기자로서 풍부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독자에게 더 중요할 수 있고 그것이 정의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과성을 거부하면서도 실효성이 있는 윤리적 실천을 모색하려는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신현빈의 태도는 앞서 그가 정의한 “아무 생각 없이” 기득권을 옹호하는 기레기를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기도 하다. 그는 기업과 데스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저연차 시기를 지나, 지금은 친한 선배 기자가 창업한 스타트업 경제 뉴스 매체로 이직하여 일하고 있다. 데스크와의 수직적인 위계가 강하지 않은 환경에서 주도권을 갖고 기사를 작성할 수 있게 되자, 비로소 윗선의 강제가 아닌 개인의 “아무 생각 없는” 무감함을 통해 기득권을 옹호하는 기레기가 될 여지가 생겼다. 이에 그가 선택한 윤리적 태도는 판단과 주장을 의도적으로 기사에서 배제하여 편향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전문성을 강화한 기사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득권을 가진 기업보다도 “개미 주주”들이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제지 기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

각하게 된 것이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태도에서 나타나는 윤리를 탈정치적 윤리로 이해한다. 탈정치적 윤리는 일종의 전략적 실천으로서, 윤리적 주장이 정치적 편향으로 읽힐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의식적인 거부에 기반한다. 기자들이 윤리적 당위 혹은 주장이 드러나는 기사를 썼을 때, 독자들이 자신의 기사에 정치적 프레임(frame)을 씌워 매도할 가능성을 애초에 제거하는 것이다. 이는 일찍이 터크만(Tuchman, 1972)이 주장한 언론의 전략적 의례(strategic rituals)와도 연결된다. 터크만에 따르면 서구 언론에서 객관주의가 주요한 가치로 여겨지게 된 것은 뉴스가 정파성을 띠었을 때 받게 될 외부의 규제나 비판을 미리 방어하기 위한 의도와 연결된다. 즉, 기사에서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고 진위 판단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관행으로 삼는 언론의 객관주의는, 그 자체로 규범적인 가치를 갖는다고기보다 기자들의 직업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터크만이 이를 지적한 이유는 전략적 의례로서의 객관주의가 은폐하고 있는 현실, 예컨대 기자는 기사에서 자신의 판단을 온전하게 배제할 수 없고, 기사는 매체의 입장에 따라 편집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폭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러한 전략적 의례가 한국 사회의 정파적 기레기 담론 안에서는 기자 개인이 취하는 윤리적 실천일 수 있다고 본다. 이미 한국의 언론은 역사적 맥락 위에서 당파성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객관주의의 불가능성이 더 이상 ‘폭로’해야 할 담론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파적으로 양극화된 한국의 언론 지형 안에서, 소속된 매체의 정치적 입장에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으면서 기자 개인이 직업적 윤리를 실천해야 한다고 할 때, 의도적으로 정파적 판단을 배제하고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자로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한국의 언론 상황을 고려하면서 전략적 의례가 실천되는 미시적 차원에 주목하면 이 실천의 윤리적 가능성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한국 언론에서 “객관주의 형식이 사실은 정치적 담론의 수사학으

로 작용”했다는 남재일(2004: 255)의 지적은 타당한 면이 있다. 군부 독재 시기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언론이 객관주의를 실용적으로 채택했고, 민주화 이후에는 객관주의를 다시금 상업주의에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언론사 차원에서 객관주의가 정치적·상업적으로 동원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객관주의적 관행을 기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하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자들은 객관주의를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보다, 자신의 윤리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실천 방식의 하나로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기자들이 보여주는 기레기 담론과의 대항은 두 양상으로 나타난다. 정파적 기레기 담론 자체를 거부하거나 정파적 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 객관주의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객관주의의 전략적 이용은 탈정치적 윤리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정파적으로 양극화된 한국 언론의 지형에서, 방어적으로 사회적 정의를 주장하는 방식의 하나로 정파성을 제거한 전문성을 선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레기 담론과의 대항은 한국 언론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반기레기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2) 수용: 일상의 윤리

기레기 담론의 부분적 수용은 기자들이 기레기 담론의 함의 중 일상적 기레기를 자신들의 현실태로 인정하고, 이 가운데 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한 저항적 실천을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데에서 드러난다. 일상적 기레기는 기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기레기의 가능성을 포괄하기에, 기자들은 각자가 정의하는 기레기의 형상을 성찰의 도구로 이용하여 반기레기적 실천을 수행한다.

연구자가 면담한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기사에 책임을 지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레기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예컨대 신준섭은 보도를 통해 누군가가 잘못될 수 있다는 기사의 위력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에 신중하게 기사를 쓰고자 노력한다고 말했다. 기사가 더 주목받을

수 있도록 부풀리거나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게끔 하는 일, 즉 기사에 “초를 치는 일”은 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지키는 것이다. 이러한 신준섭의 태도를 보고 선배들은 “너무 책잡히지 않으려는” 기사를 쓴다고 말하지만, 신준섭은 아직까지는 신중하게 표현을 고르고 정확하게 기사를 쓰려고 노력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호정은 데스크 과정에 있어서 자신이 의도한 바와 다른 표현이 들어갔을 때 데스크에게 가능한 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고 말했다. 수습기자의 위치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윗선에서는 “선을 넘는 행위”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선배 기사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의도를 전달했다. 전호정은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어쨌든 제 이름을 달고 [기사가] 나가고 제가 만난 사람”이라는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술했다.

그러나 기자들이 모든 상황에서 이와 같이 자신의 윤리적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자들은 회사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경우를 더 많이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기자인 기자들이 윗선의 비윤리적인 지시를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기 위해 행하는, 즉 일상적 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하는 대응이 포착된다. 구체적으로, 윗선의 지시를 의도적으로 까먹고 회피하거나, 취재원에게 무리한 인터뷰를 시도하는 대신 곁에서 침묵하거나, 처우가 좋지 만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언론사로 이직하지 않는 것 등이 있었다.

최동은: 국감 때 정말 딱 타이밍이 좋으니까 그때 매출 당겨오기 좋은 시기라고 다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그 나쁜 기사 많이 시켜요. 그래서 그때 막 발제도 엄청 압박을 많이 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번 국감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도 안 썼어요. 그냥 하나도 안 쓰고. 공공기관 괴롭히는 거 그냥 안 쓰고 어영부영 그냥 넘어갔어요. 어영부영 넘어가고...

연구자: 막 이렇게 오더가 쏘아서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그런 못된 기사 쓰라고?

최동은: 부장이 팀장한테 시켜서 팀장이 저희들한테 한번 모아놓고 얘기

했었는데 그 팀장한테 듣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기획 발제해’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거는 팀장도 바빠서 못 챙기고 저희도 **바빠서 막 까먹은 척 넘어가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김수겸: 제가 겪으면서 딱 10년 해보니까 드는 생각은… 뭔가 모든 일이 그렇겠죠. 하나가 불만이 생기면 계속해서 생기잖아요. 뽐뽐하고 시간에 쫓기고 그다음에 취재에 대한 압박도 심한 상황에서… 옛날에는 그걸 잘 못 견디고 불만을 가졌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오히려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겠단다. (…) 그냥 뭘 이렇게 지시를 해도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대답은 ‘네’ 하더라도. ‘네’ 하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면 안 된다.

먼저 ‘회피하기’는 회사 내의 상사와의 관계에서 전략적으로 행해지는 반기레기적 실천이다. 최동은은 광고를 넣어주지 않은 부처와 공공기관에 보복성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쓰라는 회사의 지시를 일단 수락한 뒤 “까먹은 척 넘어”갔다. 부서 전체가 바쁜 시기이다 보니 “어영부영”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최동은은 이를 십분 활용하여 윗선의 지시를 회피했다. 김수겸 또한 비슷한 전략을 보여준다. 그는 짧은 시간에 무리하게 취재를 하라는 윗선의 압박에 “대답은 ‘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우선 시간적 여유가 확보되어야 제대로 취재하고 여러 번 확인해서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데스크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단은 지시에 수긍한 뒤, 당일에 보도가 나올 수 없다고 판단이 들면 그때 다시 “기사를 미뤄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최동은과 김수겸의 불복종은 공개적 상호작용인 공식 대본의 막후에서 공식 대본과 일치하지 않는 은닉 대본의 전형을 보여준다 (Scott, 2020[1992]). 앞에서는 윗선의 지시에 따르지만 뒤에서는 지시에 복종하지 않는 이와 같은 행동은 일종의 은닉 대본으로서, 평기자인

이들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불복종의 양태라고 할 수 있다. 수직적 위계구조의 언론사에서 평기자들이 비윤리적이거나 무리한 상사의 지시에 즉각적으로 대항하기는 어려우므로 시간 차이를 두고 지시를 따르지 않을 기회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평기자들의 전략적 저항은 상사에 대한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비윤리적인 기사 작성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윤리성을 획득한다.

전호정: 빈소를 저희만 이렇게 다 다른 빈소에 다 찢어져가지고 혼자 혈혈단신으로 이제 가서 취재를 하는데. (...) 제가 현장에 가서 맞닥뜨렸을 때는 그게 굉장히 생채기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데 가자마자 저도 좀 많이 울먹울먹하게 되고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질문 같은 걸 안 하고 그냥 명함만 드리고 와서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뒤에 가서 계속 보기만 했었거든요.** 다른 조문객들한테 물어보려고 시도는 했지만 얘기를 못 들어서 결국 보고를 못 하긴 했는데. 저 말고 다른 빈소에 간 동기들은 보고를 다 하고 기사도 다 나오고 그래서 저만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결과물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별로 후회가 되지 않고. 그냥 저는 제 나름의 저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취재를 할 때에 위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본인만의 그런 **정도**를 가지고 일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한편 기자의 ‘침묵하기’는 취재원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반기레기적 실천이다. 전호정은 2022년에 있었던 10.29 참사의 유족들을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고 빈소에 가게 되었다. 그는 억울하게 묻힌 죽음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이 기자의 일이라는 점에 공감했지만, 실제로 유족을 만나자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생채기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에 그는 상사의 이동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리만 지키며 침묵했다. 결과적으로 아무 보고도 하지 못한 전호정은 인터뷰 사례를 따

온 다른 동기들과 비교를 당하며 상사에게 크게 질책을 당했지만 후회가 되지는 않았다고 술회한다. 앞서 그는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는 기자를 기레기로 호명했기에, 스스로 이러한 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 취재원을 대할 때에 “정도”를 지키며 무리한 취재를 시도하지 않았다. 기사의 소재를 취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자로서의 직업적 성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성과를 포기하고 취재원을 향해 침묵함으로써 취재원을 존중하는 윤리적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이는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윤리적 행동이나 발화가 아닌, 취재원과의 상호작용의 차원에서 드러나는 일상의 윤리를 보여준다(Goffman, 2013[1967]; Sidnell, 2010).

특히, 전호정이 보여주는 침묵의 자세는 세월호 참사 때의 비윤리적 기자의 형상에 반대되는 것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취재원을 향해 무리하게 인터뷰를 요구하는 언론의 모습이 비판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언론은 생존자들에 대한 배려 없이 불안정한 상태의 단원고 학생들, 치료를 받으며 병원에 누워 있는 환자, 보호자를 잃은 여섯 살 어린이 등에게 무리하게 인터뷰를 요구하고 이를 “생생한 증언”이라며 보도했다(배선영, 2014). 전호정의 침묵의 태도는 이와 같은 세월호 참사 때의 비윤리적 행동에 반대되는, 본래적 의미의 기레기 담론에 대한 반기레기적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정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회사 내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도 될까’라고 서로 고민하고 다시 물어보는 분위기, 이 기사의 릴리즈가 조금 늦더라도 우리 조금 더 고민해 보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기자 한 명에게 모든 걸 맡길 수가 없으니까 회사 내에서도 이게 맞는 걸까 한번 고민해 보자, 그러면 젠더 데스크한테 가볼까? 그래서 같이 얘기 해 보고. 데스크도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기레기가 되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분위기가 회사 내에 정착이 되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까 생각을 했고.

이정현: 저희 선배 중에 한 명은 얼마 전에 00으로 이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선배는 ‘나는 진짜 전직을 하면 했지 이직은 하지 않는다’ 였는데 아기가 태어나고 그 선배 커리어가 포트폴리오가 확실하게 좋아서 이제 스카웃을 당해서 가셨는데. 그래서 연봉이 이렇게 높아지고… 그다음에 선배를 만나서 보니까… “선배 어때요, 돈이 많아져서 좋은가요?” “돈이 그렇게 많아지진 않았어. 근데 예전에 일했던 게 정말 확실히 재밌긴 했었어. 지금은 별로 그렇게 재미는 없어.” (….) 그런데 얼마 전에 00일보 경력 채용이 뜬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때 실망했던 찰나여서 나도 써? 나도 가버려?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근데 그치만 그 선배가 ‘돈이 많아졌지만 별로 재미가 없어’ 이렇게 말한 게 너무 기억, 뇌리에 꽂혀서…

마지막으로 ‘이직하지 않기’는 기자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반기레기적 실천이다. 이정현은 “이 일을 계속한다면 다른 곳에서는 돈을 더 많이 줄 테지만 이직을 하고 싶진 않다”고 생각했다. 회사에서 기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기자와 데스크가 함께 시간을 들여 기사의 윤리성을 고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회사 내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성에 빠져 고민 없이 일하는 태도에서 기레기가 비롯된다고 생각했던 이정현에게,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분위기는 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외부적 요소였다.

특히 그는 최근에 한 폭력 사건을 다룬 기사를 편집하면서 기사의 제목을 두고 동료 및 젠더데스크와 고민하는 과정을 거쳤고, 덕분에 기레기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이정현은 자신의 회사를 “pc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라고 표현했는데, 만약 윤리적인 고민이 용인되지 않는 회사에 있었다면 기자 일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것이라 말했다.

정우선: 저희는 돈 못 벌어요. 그게 너무 자괴감이 커요. 내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비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 내 역량이 부족해서 뭔가 답답하다 뭔가 좀 잘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일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있어도 너무 회사가 불안하다 내가 쓰고 싶지 않은 기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

정우선: 저희 팀장이 고치기 전에 물어봐요. 나 이거 이렇게 고칠 건데 이렇게 고쳐도 돼? 이렇게 고쳐도 네가 취재한 사실에 반하지 않아? 물어보거든요, 저희 팀장은. 저희는 그것도 시간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기사 바로바로 송고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우리 팀장도 엄청 현장 취재기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편이고. (...) 저는 그래서 제가 전직은 너무 하고 싶지만, 기자 아닌 일은 하고 싶지만, **기자를 할 거면 우리 회사 밖으로 나가면 훨씬 더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우선 또한 이정현의 경우와 비슷했다. 정우선은 주간지 기자로서 돈이 되지 않는 기사를 쓰고 있다는 자괴감을 느끼지만, 자신이 쓰고 싶지 않은 기사를 억지로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취재기자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데스크와, 신중한 기사 작성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정우선은 빠르게 결과를 내라고 강요하는 언론계의 구조에서 관성적으로 기레기가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자 개인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였는데, 그런 만큼 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구조에 남는 것만이 방법이였다. 따라서 그는 다른 직업으로 전직을 하고 싶은 마음은 크게 있지만 계속 기사를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쓸 수 있는 현재의 언론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정현과 정우선의 사례에서 보듯, 윤리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언론사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 또한 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한 반기레기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회피하거나 침묵하기가 기레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윤리적 방식이었다면, 이직하지 않는 것은 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구조에 그대로 남아 있음으로써 실현되는 윤리적 실천이다. 적은 돈을 받으며 생산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우선은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정현은 이직을 통한 “금융치료³⁹⁾”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타사로 이직한 선배나 타사에서 “다른 글”을 쓰고 있는 친한 기자들을 보며 두 사람은 윤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 안에 머무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높은 연봉보다도 기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데스크와 함께 윤리적인 고민을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택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자들은 일상적 기레기의 가능성을 수용하면서 각자의 환경에서 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한 윤리적 실천을 수행한다. 특히 이 실천에는 앞서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기자들의 자기 이해가 영향을 미친다. 기자들은 다양한 주체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상대적 열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위치 감각에 근거하여 회피하기, 침묵하기, 이직하지 않기와 같은 반기레기적 실천을 수행한다. 일견 기레기 담론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실천의 막후에는 그들의 위치에서 윤리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고려하면서 이루어지는 전략적 행위가 있다.

기자들의 ‘을’이라는 위치 감각과 여기에서 파생된 반기레기적 실천은 서로 맞물리며 수행적으로 기자의 윤리적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제가 된다(Butler, 2008[1990]). 이때, 기레기 담론은 기자들이 윤리적 기자로서의 직업적 실천을 수행하는 데에 준거를 제공하는 문화적 규범으로 작동한다(Butler et al., 2009[2000]: 52). 기자들이 다양한 주체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구축한 ‘을’이라는 자기 인식을 토대로, 기자들은 현장에서 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한 전략적이고 성찰적인 실천을 수행한다.

39) 돈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심리적 소진을 치료한다는 의미의 신조어.

이를 통해 형성된 윤리적 자기정체성은 기자들이 기레기 담론 안에서도 기자직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3) 탈주: “기렉시트”의 윤리

기레기 담론으로부터의 탈주는 반기레기적 실천의 극단적 양상으로서 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 아예 언론계를 떠나는 것이다. 이 탈주는 기레기라는 말에 탈출한다는 의미의 ‘엑시트(exit)’라는 단어를 합쳐 “기렉시트”로 불린다. 기렉시트를 선택한 기자들은 공통적으로 “기자님” 대우를 받으며 직업적 이득을 향유하고 있을 때 윤리적 정체성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른 직종으로 이직했다고 말한다. 즉, 기자들이 스스로를 ‘갑’이라고 인식했을 때 상술한 대항과 수용의 반기레기적 실천은 실제 수행으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탈주의 반기레기적 실천만이 수행 가능한 윤리가 된다. 그러나 기레기 담론으로부터 탈주하는 것은 일회적 실천이므로 실천 후에는 더 이상 기레기 담론과 접합하며 수행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탈주한 이들은 기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다.

물론 기자라는 자신의 위치를 갑으로 인식하면서 기자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자도 있었다. 예컨대 신준섭의 경우 취재원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스스로 “굽히고 들어가는” 부분은 있지만, “기사가 잘못 나가면 큰 일 난다는 기초적인 공감대”가 사회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는 취재원과의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신준섭은 이러한 지점을 알고 있기에 기자로서 더 예의 바른 자세로 기본적인 선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기자로서 갑이라는 자기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이를 성찰의 계기로 삼으며 일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연구자가 면담한 전직 기자들은 모두 갑이라는 자기 인식이 윤리적인 직업 수행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과 함께 기자 일에 실망한 각자의 계기들이 맞물려 기자들은 언론계에서 탈주하게 되었다.

황태리: 그렇죠. 가장, 가장 가치 있는 일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했죠. (...) 어쨌든 세상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아직도 기자들이 발굴해내고 있고. 아직도 숨겨진 이야기들에 대한 거는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고, 저희가 슬퍼하는 이야기들 대부분 기사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가치 있는 일은 많다. 그러니까 기자 온리[only]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그런 걸로 약간 생각이 넓어졌죠.

연구자: 그러면 그거를 알게 되고 그만두신 건가요, 아니면 그만두고 나니까 그 세상이 보인 건가요?

황태리: 알게 되고, 그만두고, 더 알게 됐어요. 알게 된 거는, 금방 알게 돼요. 기자하면서 금방. 왜냐면 취재원을 많이 만나는데 정말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기자는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해요. 오히려 하면서. 그러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자의 가치와 내가 생각하는 기자의 가치가 약간 다르다. 약간 나는 전달자인 거지. 약간 다리, 다리야 다리.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싶고 여기에는 관중이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나는 그 역할만을 해주는 것일 뿐 이게 되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어느 순간... 근데 이 다리를 요즘에 유튜버가 하고 있고, 블로그가 하고 있고. 기자가 딱히? 그런, 그런 느낌이었죠.

황태리는 기자의 근본적인 역할에 회의하게 되면서 전직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최근 기업 홍보팀으로 이직했다. 연구자가 면담한 다른 현직 기자들과 비슷하게 황태리 또한 영향력을 갖는 일, 가치 있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관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기자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준비 과정을 거쳐 기자가 되었다. 그러나 황태리는 기자 일을 하면서 기자의 역할이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기자의 일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연구자: 근데 이제 7년 동안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셨잖아요. 왜 그만두게 되셨는지 들려주실 수 있나요?

변덕규: 일단 너무… 안 맞더라고요.

연구자: 어떤 지점에서요?

변덕규: 뭐 거의 모든 부분에서 안 맞았다고 해야 되나. 일단 성격 같은 부분에서도… 좀 기지는, 제가 생활하면서 본 기자는 성격도 좀 세야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안다는 것을 과시할 줄 아는 사람이야 되는 것 같다, 그래야 기자 세계에서 성공하는 것 같다. (….) 내적으로는 같은 기자끼리도 으스스대면서 자기를 좀 뽐내야 성공하는 부분도 안 맞았고. 외적으로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진짜 진솔하게 듣고 싶었는데 진솔하게 듣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이용하려고 하거나 오히려 기자라고 하면 오히려 이야기를 닫아버리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변덕규는 7년 간 방송기자로 일하다가 공무원으로 전직했다. 그는 오랜 기간 기자 일을 하면서도 “모든 부분”에서 일이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본래 PD를 지망했었지만 기자 직군에만 합격하여 기자 일을 하게 된 것도 일이 맞지 않았던 하나의 이유였다. 과시해야만 성공하는 기자 문화, 취재원으로부터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현실, 휴머니즘적인 기사보다 “센 거, 까는 거”를 하라는 데스크의 지시, 친밀도를 쌓은 취재원을 기사에서는 공격해야 한다는 모순 등 많은 부분에서 기자 일이 견디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황태리와 변덕규 두 사람이 전직을 고민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는 달랐지만, 기자라는 직업이 많은 특혜를 누리고 극진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에 모두 동의했다.

황태리: 기자가 진짜 편리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혜를 받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편했다는 거랑 연결이

되는 게, 되게 많은 우대를 해줘요, 저에게. 제가 기자였을 때는 모든 사람이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기자로서 기업 홍보팀만 만나니까 취재원으로서 막 기자님, 기자님 하면서 선물 챙겨줘, 밥 사줘, 커피 사줘, 술 사줘…

변덕규: 베스트 1일걸요. 교수랑 같이. 그 맛에 기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시장이랑 밥 먹고… 그러니까 기자는 누구한테도 고개 숙일 일이 사실 전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냥 아예 없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을 만나도 내가 질문하고 당당하게 물어볼 수 있고. 이 사람이 오히려 뭔가 잘못해서 나한테 굽히면 굽혔지. 그러니까 전혀… **최고의 갑이에요.** 제가 기자 그만둘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선배들이. 너 그렇게 갑 생활하다가 공무원 하면 을 생활해야 되는데 네가 그거 견딜 수 있을 것 같냐.

산업부 기자였던 황태리는 기업 홍보팀 사람들을, 지역 방송사 기자였던 변덕규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만나 정보를 얻었는데, 이들과의 만남에서 자신들은 언제나 상대적 우위에 있었다고 언술한다. 취재 과정에서 접대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권력에 대해서도 “고개 숙일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는 앞서 살펴본 현직 기자들의 언술에서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산업부 기자로서, 공무원을 취재원으로 삼는 기자로서, 전직 기자와 현직 기자가 생각하는 자신들의 위치성은 상반되게 나타났다. 예컨대 신현빈은 현재 산업부 기자로 일하고 있지만 기업 홍보팀과의 관계에서 홍보팀이 갑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홍보팀이 그렇지는 않지만 각 언론사에는 갑의 역할을 하는 홍보팀이 있고 기자들은 홍보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단언했다. 기사를 내는 언론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 같지만 데스크가 기업의 눈치를 보면 평기자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부 기자는 기업 홍보팀의 평가에 따라

기자로서의 평판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기사를 잘 쓰는 능력 외에 “유도리”⁴⁰⁾ 있게 해주는 기자나 “형 동생” 하는 친밀한 관계와 같은 측면이 개입된다. 따라서 신현빈은 홍보팀과의 관계에서 기자가 갑의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 경제부 기자인 최동은 또한 변덕규와 마찬가지로 취재원이 부처 공무원이었지만 상대의 비위를 맞춰주며 “저자세”로 정보를 얻어야 했다.

을의 위치에서 전략적인 방식으로 반기레기적 실천을 수행했던 현직 기자들과 달리, 자신이 갑의 위치에 있다고 인식하는 기자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더 이상 윤리적 수행이 가능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황태리: 그리고 문화부도 똑같아요. 문화부는 이제 사람이 좀 절여져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되게 고상한 어떤 특권에 절여진다고 해야 되나. 문화부는 진짜… 문화부는 문화부 우대가 또 달라요. (…) 막 별의 별 전시 티켓부터 그런 티켓이 막 날아오면서 거기 는 기자를 우대해주는 게 산업보다 훨씬 세거든요. 완전, 완전, 기자님 극진하게 모시는데. 그거에 진짜 흠뻑 빠져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사회 경제 돌아가는 이슈 캐치도 잘 못해요. 여기 문화 팔로우 하느라. (…) 그거를 이제 깨닫고 내 대가리가 갑자기 꽃밭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이거는 좀 이상하다, 아니다. 이거를 딱 느끼게 되면서 그러면서 또 새로운 현타가 왔고. (…) 저는 그런 거에 절여지는 거를 무서워하는 주의였어서. 개인적인 거는 성향이니까. 그랬어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스스로 너무 빠지는 걸 원치 않았는데 이제 빠졌으니까 그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40) 시공간적 여유 및 정신적·체력적 여유를 뜻하는 일본어 ‘ゆとり’에서 온 말로, 형편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뜻하는 속어이다. 원칙을 어기면서 편의를 봐주는 부정적인 맥락에서도 쓰인다. (우리말샘 참고.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368457&viewType=confirm)

황태리는 문화부 기사를 할 때 특권을 누리는 것에 익숙해진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이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기자가 되었지만, 주요한 사회적 사안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비판의식을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게 된 것이다. 특권 의식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자 했던 자신의 신념을 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자신의 상태를 벗어나고자 했다. 이에 결과적으로 황태리는 기자 직군을 떠나게 되었다.

윤대협: 정론직필. 그거 쫓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자라는 타이틀만 달면 홍보팀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청탁금지법이 발효되고 난 후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자들한테 많이 해주지 못했는데도, 그런데도 많이 해줘요. (...) 이게 맨날 뭐 어디 가면 ‘역시 기자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여기에 뜻이 있으면 괜찮은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사실 대우를 해주면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싸가지가 없어요, 기자가 홍보팀 대하는 게. (...) 그리고 이제 제일 그런 게, 안 주면 저도 뭔가 약간 섭섭한 거예요, 이게. (...) 내가 이러다가 인간 쓰레기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일단은 뭐 내 분수에 안 맞게 그렇게 대우를 받는 게 싫어가지고 어떻게 이직을 하든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고요, 퇴사 생각을. 그랬고. 그리고 이직을 한 건데요.

영상 기자로 일하다가 일반 회사로 전직한 윤대협 또한 황태리와 비슷한 지점을 언급한다. 그는 취재원에게 들었던 “정론직필”이라는 말로 갑으로서의 기사를 표현했다. 정론직필이라는 칭찬은 윤대협이 홍보팀에게 들었던 말이었는데, 화제성이 크지 않은 행사인데도 취재하러 와주었다는 이유로 홍보팀에게 들었던 무조건적인 칭찬의 말이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홍보팀이 주는 선물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안 주면 섭섭한”

감정을 느끼게 되자, 윤대협은 황태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상태를 성찰하고 이직을 고민하게 되었다. 더불어 윤대협은 변덕규와 비슷하게 PD를 지망했지만 기자가 된 경우였기에 기자 일에 크게 자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자신이 기자 일을 하는 이윤 동기가 취재원으로부터 받는 선물뿐이라는 데에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계기들이 쌓여 윤대협은 결국 기자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직 기자들의 퇴직 결정을 윤리적 실천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이 퇴직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향응에 익숙해져 비판의식을 잃은 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한 의식적 성찰이 선행되었기 때문이다. 성찰성이 윤리적 실천이 발현되는 중요한 전제라는 점에서(Laidlaw, 2002; 2014), 이들이 언론계를 떠나기로 한 결정은 윤리를 실현하는 반기레기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기자들의 퇴직을 원인과 결과의 측면에서 분석했을 때, 낮은 처우, 가치 실현의 불가능성, 언론사 내의 불합리한 문화 및 관행, 역할 모델의 부재 등 다양한 요인들이 퇴직의 원인으로 언급된다(김창남, 2016; 2017; 박서연, 2022; 이석호·이오현, 2019; 임연희, 2016; 장행훈, 2003). 그러나 기자 개인의 내적 동기에 주목하면 기자들의 퇴직을 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한 궁극적인 저항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연구자가 면담한 전직 기자들은 언론계를 완전히 떠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기자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이 실패는 의도적이고 성찰적인 실패라는 점에서 윤리성을 획득한다.

결론적으로, 기자들은 기레기 담론 안에서 담론에 대항하거나, 담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담론으로부터 탈주하면서 저마다의 윤리적 실천을 수행한다. 현직 기자들은 대항과 수용의 반기레기적 실천을 통해 기자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수행적으로 형성하며 윤리적 기자가 되어 간다. 반면 퇴직한 기자들은 탈주의 반기레기적 실천을 선택함으로써 기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기레기 담론에서 탈주하는 것만이 이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윤리적 실천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일선의 평기자들은 언론사 내에서, 취재 현장에서,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주체들과 상호작용하며 직업적 실천을 수행한다. 그러나 많은 상황에서 이들은 자신의 의도대로 기사를 작성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이들의 평기자라는 지위는 위계적인 사내 관계에서 윗선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게 하며, 일부 기자들은 여성 기자로서 취재원과 관계를 맺고 정보를 얻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기자들은 수익과 직결되는 독자와 광고주의 반응을 고려하며 기사를 작성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아도 기레기가 될 수 있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기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한 윤리를 도모하고 있었다. 이들은 기레기 담론에 대한 성찰적 고민을 바탕으로 때로는 전략적인 방식을, 때로는 은밀한 저항의 방식을 취하면서 각자의 현장에서 윤리적이기를 선택했다. 이처럼 기레기에 반(反)하고자 하는 실천을 통해 기자들은 각자가 목표하는 윤리적인 기자가 되어 간다.

V. 결론

본 연구는 언론의 세월호 참사 보도 이후 기레기 담론이 언론의 주요한 윤리 담론으로 등장한 것에 주목하여, 기자 준비생 및 기자들이 기레기 담론과 교섭하며 기자로서의 윤리적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의 언론 윤리 담론이 전(前)민주화 시기를 거치며 정치권력 및 자본과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되어 온 궤적을 살피고, 기레기 담론의 형성을 민주화 이후 대중과 자본의 영향력이 증대한 맥락 안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특히 이 기레기 담론을 기자 준비생 및 기자의 윤리적 자기정체성이 형성되는 일상적 실천의 맥락에 위치시킴으로써, 기자됨의 과정에 개입하는 언론 윤리 및 개인의 능력, 그리고 언론 시장의 자본 구조가 얽혀 있는 양상을 조명하였다.

기레기 담론은 한국의 정치사회의 궤적을 따라 형성된 언론 윤리 담론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한국의 언론은 정치권력과의 관계에서 정파적으로 양극화되었고 자본과의 관계에서 자본의 영향력에 잠식당해 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중에 의해 호명된 기레기는 이와 같은 한국 언론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 기표이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기레기라는 기표가 언론을 비판하기 위한 표현으로 확산되면서 언론의 윤리적 성찰을 요구하는 하나의 담론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고, 기레기 담론이 정파적 기레기와 일상적 기레기라는 두 가지 함의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레기 담론에 대하여, 기자 준비생은 혐오에 근거한 정파적 기레기 호명을 비판하고, 일상적 기레기를 성찰의 근거로 삼아 예비 기자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때 준비생들은 일상적 기레기가 만들어지는 언론사의 구조적 문제를 간과함과 동시에, 자신들 또한 구조적 제약에 의해 기레기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준비생들이 이러한 간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자직을 지망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특히,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태도를 가능하게 하는 인식론적 토대를 세 층위, 즉 준비생들의 자기 인식, 가치

관 및 태도, 언론 산업에 대한 이해 방식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대중-기자의 관계 안에서 정립되는 자기 인식의 측면에서, 준비생들은 정파적 기레기를 호명하는 대중과 거리를 뒀으로써 자신들을 대중의 입장보다도 예비 기자의 자리로 위치시켰다. 또한 언론인으로서의 가치관 및 태도의 측면에서, 객관성을 기자가 가져야 할 윤리적 가치관으로 수용함으로써 자신들이 갖고 있던 당위적인 신념보다도 중립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여 제시하려는 태도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성향의 언론사에 지원할 수 있었다. 더불어 언론 산업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에서, 일상적 기레기가 만들어지는 구조적 문제에 주목함으로써 비윤리적인 기사와 비윤리적인 기사를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인식에 기반하여 준비생들은 기레기 담론 안에서 윤리적인 기자가 될 가능성을 기대하며 기사를 지망하고 있었다.

언론사에 입사한 후 기자들은 자신을 회사의 상사, 취재원, 수익원 등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대적 열위에 있다고 인식하며, 이러한 열위의 환경에서 의도치 않게 기레기가 '되어버린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속한 매체와 부서에 따라 다양한 '을'의 위치에서 기자들은 저마다의 기레기를 정의하고 있었고, 이 기레기 담론을 준거로 삼아 윤리적 실천을 수행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이때의 윤리적 실천을 반(反)기레기적 실천으로 명명하고, 이 실천의 구체적 양상을 분석하였다.

기자들의 '을'이라는 자기 인식은, 기자들이 기레기 담론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대항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윤리적 실천을 수행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자들은 정파적 기레기를 거부하고, 기사에 정치적인 주장을 드러내기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넣음으로써 탈정치적 윤리를 실현하고자 했다. 또한 일상적 기레기를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일부 수용하면서도, 언론사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는 현장의 막후에서 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다. 이때, 일부 기자들은 자신의 위치가 을이 아닌 갑이며, 갑의 위치에서 직업적 이득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윤리적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

며, 결과적으로 언론계를 떠나기도 했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기레기 담론으로부터의 탈주를 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한 성찰에 근거한 윤리적 수행으로 파악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언론을 향한 불신과 비난이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직을 선택한 사람들이 윤리적 성찰을 시도하며 기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탐구하였다. 그동안 기레기 담론은 비윤리적 기자를 향한 대중의 호명 및 언론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는 현상으로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자는 언론 구조에 대한 비판이라는 거시적인 맥락 위에서 기레기 담론을 이해하기보다, 기레기 담론의 한가운데에서 담론의 의미들을 실질적으로 겪어내고 있는 주체들인 기자 준비생과 기자들에 주목하고자 했다.

특히, 본 연구는 기레기 담론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주체로서 기자 준비생에 주목하였다. 기자 준비생의 서사는 기자가 되어가는 과정의 시작이자 일종의 전사(前史)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계기와 인식을 보여주는 데에 무엇보다 유효했다. 특히, 생존해야 하는 현실적 조건에서 기자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생들이 가치와 신념을 타협해나가는 방식을 기레기 담론의 함의와 연결지어 이해함으로써, 준비생들의 서사가 청년세대 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특수한 한국 언론 윤리 담론의 맥락 위에 존재함을 포착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자는 담론의 의미를 겪어내는 기자들의 구체적 실천에 주목함으로써, 이 실천과 연결된 기레기 담론이 기자의 윤리적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반테제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조명하였다. 실제 취재 보도 현장에서 기자들이 수행하는 반기레기적 실천은 기레기 담론을 준거로 삼는 동시에 이를 부정함으로써 수행되고 있었다. 즉, 기레기 담론은 ‘기자들의 비윤리’라는 기존의 함의를 넘어, 직업적 실천을 수행하는 ‘기자들의 실제적 윤리’를 도래하게 하는 자기 성찰의 도구이기도 했다. 언론 윤리를 일관된 규범으로 전제하고 이를 정립하려는 기존 언론학 분야에서의 시도가 거듭 어려움에 봉착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기레기 담론에 성찰적으로 대응하여 일상의 윤리를 실천하고 있는 기자들의 일상을 조

명함으로써 언론 윤리의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가 기레기 담론의 함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파적 기레기와 일상적 기레기를 구분한 것은 ‘가짜’ 기레기와 ‘진짜’ 기레기를 명료하게 나누기 위한 시도가 아님을 밝힌다. 두 구분은 기자 준비생 및 기자 집단의 인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한 도구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며, 실제 기레기 호명에서 두 호명은 완벽하게 구분될 수 없는 모호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정파적 기레기 호명은 근거 없는 혐오이며 일상적 기레기 호명은 정당한 비판이라는 식으로 선명하게 대응시킬 수 없다.

연구자가 제시한 기레기의 구분이 분석을 위한 틀로서의 유용함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결국 기레기 담론의 시원적 배경이 사회적 참사를 다루는 언론의 윤리적 무감함이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상기해야 한다. 기자가 쓰레기로 불려야만 했던 구체적인 사건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채 한국 사회에 상흔으로 남아 있다. 기레기 호명이 정파적이든 일상적이든, 이 상흔은 여전히 언론이 나아가야 할 본질적인 방향을 말해주는 지표가 된다.

그러므로 기레기 담론을 다룬 본 연구가 기자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자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연구자가 면담한 기자들이 스스로를 주변화된 기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여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주변화된 위치에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들이 아무리 회사, 독자, 취재원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을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자라는 직업이 아무리 신뢰를 잃고 비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기자는 여전히 글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 힘의 방향이 무엇을 바꾸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연구자가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기자들의 을이라는 자기 인식이 스스로를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주체에 머무르게 하는 합리화의 근거로만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자들은 자신들이 기레기가 되기 쉬운 상대적 열위에 있다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 안에서 펼쳐지는 개별 상황을 마주했을 때 ‘최선(best goods)’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판단하려는 개인들의 분투”를 보여주고 있다(Mattingly, 2012: 179).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이와 같이 분투하고 있는 기자 준비생 및 기자들이 존재함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실천하고자 분투하는 과정에는 각자의 개인적인 배경 및 한국 사회의 역사적 맥락이 교차하며 만들어진 윤리적 성찰성이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자 준비생 및 기자들은 일상 속에서 윤리적 기자가 되어간다.

참 고 문 헌

- 강명구. (1993). 한국 언론전문직의 사회학. 나남.
- 강보라. (2021). 아카이브 액티비즘에 대한 시론적 고찰: ‘기레기’ 아카이빙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8(3), 5-39.
- 강준만. (2019). 한국 언론사: 한성순보에서 유튜브까지. 인물과사상사.
- 곽재훈. (2017. 12. 15.). 한국기자 폭행, 기자들이 맞을 짓 했다고?. 프레스이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79666>
- 권한울. (2021).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따른 취재 관행 변화에 대한 연구: 디지털 뉴스 그물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길재섭. (2017). 뉴스생산 관행에 대한 한국 언론인들의 태도 유형 연구: Q 방법과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희. (2008). 포털 뉴스의 의제설정과 뉴스가치: 포털 뉴스와 인쇄신문의 비교 분석. 한국언론학보, 52(3), 28-52.
- 김규환. (1982). 일제의 대한언론 선전정책. 이우출판사.
- 김달아. (2020. 1. 15.). 발제-취재-마감-발제-취재-마감... 30년 넘게 이려고 있다. 기자협회보.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_print.html?no=47138
- 김도연. (2021. 11. 30.). “좋은 기사 묻히는 현실 속 기자에게 무얼 강요할 수 있겠나”.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19>
- 김동규, 김경호. (2005). 국내 신문사 취재 조직체계와 관행에 대한 질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5(2), 33-68.
- 김동률. (2009). 언론의 정치권력화. 한국언론정보학보, 45(1),

296-340.

- 김민철·강연곤. (2022). 포털 뉴스 댓글을 통해 본 ‘기레기 현상’: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네이버 랭킹 뉴스 데이터에 대한 탐색적 분석. 언론정보연구, 59(4), 123-167.
- 김민환. (1996). 한국언론사. 사회비평사.
- 김민흠. (2022). 1950년대 중후반기 이승만 대통령의 언론 이미지 변화 - 정부기관지 『서울신문』의 보도를 중심으로 -. 역사문제연구, 47, 299-331.
- 김사승. (2004). 전문기자의 전문성과 뉴스의 질을 구축하는 취재보도 관행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언론학보, 48(2), 56-78.
- _____. (2012). 취재현장과 뉴스룸 내부의 조직적 특성에 관한 일고찰. 한국방송학보, 26(4), 7-46.
- 김수아. (2020). 지식의 편향 구조와 혐오: 국내 위키 서비스 ‘여성혐오’ 논란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5(1), 141-183.
- 김승수. (1995). 한국언론산업론. 나남.
- 김위근. (2014). 포털 뉴스서비스와 온라인 저널리즘의 지형: 뉴스 유통의 구조 변동 혹은 권력 변화. 한국언론정보학보, (66), 5-27.
- 김창숙. (2019). 사실 확인인가, 사실 만들기인가: 한국 신문 사실 확인 관행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해식. (1994). 한국 언론의 사회학. 나남.
- 김현경. (2015).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 지성사.
- 김홍중. (2009). 진정성의 기원과 구조. 한국사회학, 43(5), 1-29.
- _____. (2015a). 꿈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 경제와 사회, (108), 32-72.
- _____. (2015b).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한국사회학, 49(1), 179-212.
- 남재일. (2004). 한국신문의 객관주의 아비투스: 형식적 사실주의의 전략적 의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0). 직업이데올로기로서의 한국 언론윤리의 형성과정. 한국언론정보학보, 50(2), 73-93.
- 노지민. (2022. 4. 19.). 40대 · 진보 '언론불신' 높아…신뢰매체 1위는 KBS.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580>
- 박광순 · 안종목. (2006). 포털사이트 프론트(front)페이지 뉴스의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성/경성뉴스, 소재목, 하이퍼링크, 뉴스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6), 199-226.
- 박서연. (2022. 8. 24.). ‘젊은’ 기자들은 왜 기업으로 떠나는 것일까.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532>
- 박용규. (1995). 일제하의 언론 현실에 대한 인식과 비판. 언론과 사회, (8), 39-83.
- _____. (2005). 일제의 지배정책에 대한 신문들의 논조 변화: 일제 말기(1937~1940)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8), 111-140.
- 박인규. (1989). 한국 언론사주들의 굴절. 월간경향, 1989년 1월호, 194-225.
- 박재영. (2014). 수습기자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관훈저널, (132), 95-101.
- 박진우. (2015). 한국 언론의 전문직주의와 전문직 프로젝트의 특수성. 한국언론정보학보, (74), 177-196.
- 박진우 · 송현주. (2012). 저널리스트 전문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전문직 노동과 직업 전망에 대한 위기의식. 한국언론정보학보, 57(1), 49-68.
- 박찬승. (2008). 3·1운동기 지하신문의 발간경위와 기사내용. 동아시아문화연구, (44), 227-261.
- 방은주. (2013). 국내 기자들의 소셜미디어 정보 이용과 뉴스 제작 과정

- 의 변화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선영. (2014. 4. 24.). 세월호 침몰 다룬 KBS MBC SBS JTBC 저녁뉴스 비교 ④ 생존자에 대한 무리한 인터뷰 유무. 텐아시아.
<https://news.zum.com/articles/13115078>
- 서상호 · 최원주 · 강지화. (2015). 세월호 참사 보도로 촉발된 ‘기레기’ 논란에 대한 언론보도 수용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주관성 연구, (31), 55-74.
- 송건호. (1990). 한국 현대 언론사. 삼민사.
- _____. (2020). 민주언론 민족언론2. 송건호전집, 9. 한길사.
- 송대성. (2014. 5. 16.). 달라진 언론들 …KBS · 중앙일보, 공식 ‘사과’.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4025301>
- 송상근. (2018). 수습기자 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탐구. 한국소통학보, 17(4), 7-40.
- 송정민. (1992). 언론의 이념성 유지기제로서의 뉴스 구성원칙과 관행: 뉴스의 실제 연구를 위한 시론. 한국언론학보, (27), 245-281.
- 송해엽 · 양재훈. (2017). 포털 뉴스 서비스와 뉴스 유통 변화: 2000-2017 네이버 뉴스 빅데이터 분석. 한국언론학보, 61(4), 74-109.
- 신우열. (2019). ‘기레기의 시대’를 기자로 살아가기: 담론이 기자들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81.
- 안종묵. (2006). 일제하 민족언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문화정치 시기의 『조선일보』 · 『동아일보』. 동서언론, (20), 33-61.
- 언론노보. (2014. 4. 29.). 가이드라인조차 무색하게 한 ‘세월호 참사 보도’.
<http://media.nodong.org/news/articleView.html?idxno=8887>
- 엄지원. (2014. 5. 21.) 세월호 취재기자 4명의 독백... “우린 모두 ‘기레기’였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7999.html

- 엄지인 · 김한준 · 김현미 · 강나루 · 조현용. (2014). [토론] 우리는 왜 기레기가 되었나?. 방송기자, 19, 32-35.
- 유지향. (2014. 5. 16.). '세월호 보도' 비판과 지적 겸허히...반성합니다.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863843>
- 윤석민 · 이철주. (2003).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사 조직에 있어서 여성 인력의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22), 167-210.
- 이강수. (1992). 신문의 정통성 위기와 신문독자운동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적 소고. 한국언론학보, (27), 309-344.
- 이단비. (2015). 재난보도의 정치화 연구: 프레임 분석과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대혁. (2005. 8. 31.). 기자들은 지금 무엇으로 사는가?. 기자협회보. 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10266
- 이상기, 이정민. (2020). 기자다움에 대한 반문: 기레기. 지역과커뮤니케이션, 24(3), 124-148.
- 이상길. (2004). 일상적 의례로서 한국의 술자리: 하나의 문화적 해석. 미디어, 젠더 & 문화, 1, 39- 77.
- 이석호 · 이오현. (2019). 취재 현장을 떠난 젊은 신문기자들의 직업적 삶에 대한 질적 연구: 중앙일간지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7(4), 152-214.
- 이성춘. (2001. 3. 17.). 사이버 언론 정리 빌미, 정통과에도 철퇴. 한국기자협회보. 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2460
- 이언주. (2005). 출입처에서의 보도통제 관행에 관한 연구 - 엠바고, 오프 더 레코드, 배경설명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오현 · 이석호. (2019). 한국 신문의 뉴스 생산문화에 대한 비판적 연구: 중앙일간지의 조직문화와 기사생산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97), 77-118.
- 이완기. (2020). 한국 언론운동사. 자유언론실천재단.

- 이윤희. (2016). 익명 취재원 보도에 대한 방송 기자 인식 연구 - 관행, 동기,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경. (2019). 윤리적 기사의 조건: 개별 행위보다 중요한 한국언론 구조의 문제들. 언론중재, 153, 118-123.
- 이정훈·김균. (2006). 한국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 한국언론학보, 50(6), 59-88.
- 이준용. (2005).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과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 공정한 담론 규범 형성을 위하여. 방송문화연구, 17(2), 139-172.
- _____. (2009). 인터넷 공론장의 매개된 상호가시성과 담론 공중의 형성. 언론정보연구, 46(2), 5-32.
- _____. (2017). 디지털 뉴스 시대의 언론 윤리. 커뮤니케이션이론, 13(3), 86-128.
- 이창현. (1991). 텔레비전 뉴스생산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3(2), 183-201.
- 이창호·이호영. (2009). 포털 이용자들의 포털 뉴스이용패턴 및 포털의 언론역할에 관한 인식. 한국언론정보학보, (46), 177-211.
- 이현율. (2016).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위기와 제작진의 대응: 제작자 시점에서 본 지상파 위기의 본질 탐구. 방송문화연구, 28(20), 47-84.
- 이현재. (2015). 포털 뉴스서비스에서의 기사 어뷰징 사례와 전문가 인식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소현. (2021). 디지털 미디어 시대, 한국 기자들의 사실 확인 관행 변화에 대한 연구: '현장'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연희. (2014). 세월호 참사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행태. 사회과학연구, 25(4), 179-201.
- 장행훈. (2015. 7. 20.). '유사언론' 아닌 '사이비언론'.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701063.html>

- 정연수. (2020. 1. 5.). 기레기의 역사... '김현수'부터 '조국'까지". 빅터뉴스.
<http://www.bigt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35>
- 정철운. (2021. 6. 27.). '기레기 아카이빙'의 나라, 대한민국.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097>
- 조혜정. (1999).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 중앙일보 편집국. (2014. 5. 15.). 세월호 부정확한 보도 사과드립니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14697010#home>
- 최민재 · 김위근. (2006). 포털 사이트 뉴스서비스의 의제설정 기능에 관한 연구: 제공된 뉴스와 선호된 뉴스의 특성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4), 437-463.
- 최영재. (2022). 포털뉴스생태계와 기자직종의 위기: 기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언론과 사회, 30(3), 93-134.
- 최진봉. (2016). 방송 뉴스의 재난보도 콘텐츠에 대한 분석: 지상파 3사와 JTBC의 세월호 참사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2), 539-550.
- 표예인. (2021). 당신은 기레기인가?: 기레기를 호명하는 뉴스 댓글에 대한 한국 기자들의 인식과 경험. 한국언론정보학보, 109, 320-347.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a). 2021 한국언론연감.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b). 2021 한국의 언론인: 제15회 언론인 조사.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2022 한국언론연감.
- 한선 · 이오현. (2010). 지역신문 기자의 작업문화와 정체성 형성에 대한 연구: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 언론과 사회, 18(4), 2-36.
- 황비용 · 장환영. (2021). 수습기자 교육관행의 문제점과 기자 개인의

업무수행경험 탐색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HRD연구, 23(2), 63-90.

- Allison, Marianne . (1986). A Literature Review of Approaches to the Professionalism of Journalists.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1(2), 5-19.
- Arendt, Hannah. (2019[1958]). 인간의 조건 (이진우 역). 한길사.
- Bourdieu, Pierre, Passeron, Jean-Claude, (2003). 재생산 (이상호 역). 서울: 동문선.
- Butler, Judith, Laclau, Ernesto, Žižek, Slavoj. (2009[2000]).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 (박대진 · 박미선 역). 도서출판b.
- Butler, Judith. (2008[1990]). 젠더트러블 (조현준 역). 문학동네.
- Christians, Clifford. (2004). Ethical and Normative Perspectives. In Downing, John, McQuai, Denis, Schlesinger, Philip, Wartella, Ellen (Eds.), *The SAGE Handbook of Media Studies*. Sage Publications. 19-40.
- Couldry, Nick. (2013). Living Well with and through Media. In Couldry, Nick, Madianou, Mirca, Pinchevski, Amit (Eds.), *Ethics of media*. Palgrave. 39-56.
- Dewey, John. (2014[1927]). 공공성과 그 문제들 (정창호 · 이유선 역). 한국문화사.
- Durkheim, Émile. (1998[1950]). 직업윤리와 시민도덕 (권기돈 역). 새물결.
- Foulcault, Michel. (2016[1975]).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
- Freidson, Eliot. (1986). A Study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Formal Knowledge. *Business and Professional Ethics Journal*, 5(3), 179-183.
- Goffman, Erving. (1971). *Relations in Public: Microstudies of the Public Order*. Basic Books, Inc., Publishers.

- _____. (2013[1967]). 상호작용 의례: 대면 행동에 관한 에세이 (진수미 역). 아카넷.
- _____. (2016[1959]). 자아 연출의 사회학 (진수미 역). 현암사.
- Ha, Louisa. (2018). Advertising in Media Management and Economics in *Handbook of Media Management and Economics* (Albarran, Alan, Mierzejewska, Bozena, Jung, Jaemin Eds.). Routledge.
- Habermas, Jürgen. (2004[1962]).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한승완 역). 나남출판.
- Hochschild, Arlie. (2010[1979]). 감정 노동: 노동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상품으로 만드는가 (이가람 역). 이매진.
- Iggers, Jeremy. (1999). *Good news, bad news*. Westview.
- Jakubowicz, Karol. (2002). “Media in Transition: The Case of Poland” In M. E. Price, B. Rozumilowicz, S. G. Verhulst (Eds.), *Media Reform: Democratizing the media, democratizing the state*. Routledge. 203-231.
- Laidlaw, James. (2002). For an Anthropology of Ethics and Freedom. *The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8(2), 311-332.
- _____. (2014). *The Subject of Virtue: An Anthropology of Ethics and Free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mbek, Michael Ed. (2010). *Ordinary Ethics: Anthropology, Language, and Action*. Fordham Univ. Press.
- Lambeth, Edmund. (1992). *Committed Journalism: An Ethic for the Professional*. Indiana University Press.
- Marx, Karl. (2008). 자본 I-1 (강신준 역). 도서출판 길.
- Mattingly, Cheryl. (2012). Two virtue ethics and the anthropology of morality. *Anthropological Theory*, 12(2), 161-184.
- Merrill, John. (1989). *The Dialectics in Journalism: Toward a Responsible Use of Press Freedom*. LSU Press.

- MacIntyre, Alasdair. (1981). *After Virtu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Nerone, John. (2013). The Historical Roots of the Normative Model of Journalism. *Journalism*, 14(4), 446-458.
- Newman, Nic, Fletcher, Richard , Robertson, Craig, Eddy, Kirsten , Nielsen, Rasmus. (2022).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22*.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 Peterson, Mark. (2001). Getting to the Story: Unwriteable Discourse and Interpretive Practice in American Journalism. *Anthropological Quarterly*, 74(4), 201-211.
- Picard, Robert. (2005). Unique Characteristics and Business Dynamics of Media Products. *Journal of Media Business Studies*, 2(2), 61-69.
- Schudson, Michael, Anderson, Chris. (2009). Objectivity, Professionalism, and Truth Seeking in Journalism. In Wahl-Jorgensen, Karin, Hanitzsch, Thomas (Eds.), *The Handbook of Journalism Studies*. Routledge. 88-100.
- Scott, James. (2020[1992]).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 은닉 대본 (전상인 역). 후마니타스.
- Shoemaker, Pamela, Stephen, Reese. (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Longman.
- Sidnell, Jack. (2010). The Ordinary Ethics of Everyday Talk. In Lambek, Michael (Ed.), *Ordinary Ethics: Anthropology, Language, and Action*. Fordham Univ. Press. 123-139.
- Tuchman, Gaye.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The Free Press.
- Tunstall, Jeremy. (1971). *Journalists at Work: Specialist Correspondents*. Constable.
- Waisbord, Silvio. (2013). *Reinventing professionalism: Journalism*

- and news in global perspective*. Polity.
- Ward, Stephen. (2007[2004]). 언론윤리의 재발견: 객관성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탐구 (이은택 역). 에피스테메.
- Weeratunge, Nireka. (2010). Being Sadharana: Talking about the Just Business Person in Sri Lanka. In Lambek, Michael (Ed.), *Ordinary Ethics: Anthropology, Language, and Action*. Fordham Univ. Press. 328-348.
- Westerståhl, Jörgen. (1983). Objective News Reporting: General Premises. *Communication Research*, 10(3), 403-424.
- White, David. (1950). The "Gate Keeper": A Case Study in the Selection of News. *Journalism Quarterly*, 27(4), 383-390.
- Willis, Paul. (2004[1977]). 학교와 계급재생산 (김찬호 · 김영훈 역). 이매진.

Abstract

Becoming an “Ethical Journalist”
: Negotiations between
Giregi Discourse and
Journalistic Identity

Yoonji Cho

The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how wannabe and current journalists shape self-identity as an ethical journalist by negotiating with *Giregi*(기레기) discourse. *Giregi* discourse emerged as a major discourse on professional ethics in journalism after *Sewol* ferry disaster. In particular, by analyzing the everyday practice which shapes the self-identity of an ethical journalist within the context of *Giregi* discourse, I focus on how journalistic ethics, individual capacities, and the structure of the media market are intertwined as these factors affect the process of becoming a

journalist.

Giregi discourse is an extension of the discourse on journalistic ethics that has been shaped along the trajectory of Korean political and social history. Since the Korean War, Korean media has been politically polarized in its relationship with authoritarian government. After the success of democratization movement in the late 1980s, Korean media companies have subjugated to the logic of capital. *Giregi* is a signifier that reflects such problems in Korean media, firstly called by the public after *Sewol* ferry disaster. This study argues that *Giregi*, which became a widespread expression to criticize the media press, has been formed into a discourse that calls for ethical reflection on the press media. In this context, *Giregi* discourse has diverged into two connotations: Partisan *Giregi* and Ordinary *Giregi*.

In response to this *Giregi* discourse, wannabe journalists criticize the public as it falsely invoked Partisan *Giregi*, and shape the identity of a prospective journalist using Ordinary *Giregi* as the basis for reflection. Wannabe journalists are well aware of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media companies where Ordinary *Giregi* is created. They, however, also recognize that they themselves can become a *Giregi* due to structural constraints.

However, despite these critical understandings, they still aspire to become journalists. This study analyzes the epistemological underpinnings of these seemingly contradictory attitudes in terms of self-perceptions, values and attitudes, and how they perceive the media industry. Wannabe Journalists position themselves as prospective journalists rather than among the public by distancing themselves from the public calling for Partisan *Giregi*. In addition, by embracing journalistic objectivity as an

ethical value, they value their willingness to embrace diverse opinions in a neutral manner. They put this value above their personal beliefs and through this, they can also apply for jobs at media companies that exhibits such political stance which goes against their personal beliefs. They also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an unethical report and an unethical journalist by paying attention to the structural problems that creates Ordinary *Giregi*. Based on this perception, wannabe journalists aspire to be journalists, with the expectation that they can become ethical journalists within *Giregi* discourse.

Once journalists join a media company, they perceive themselves as “Eul(을)” , those who are in a relatively inferior position. This inferiority subject themselves to the scrutiny of the company's bosses, news sources, and revenue streams, while in an environment where they unintentionally become *Giregi*. In many positions of “Eul”, which varies depending on media companies and departments they belong to, journalists define the meaning of *Giregi* in their own way and perform ethical practices within *Giregi* discourse.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I refer to these ethical practices as ‘anti-*Giregi* practices’.

The journalists’ self-perception of being “Eul” leads them to carry out their ethical practices in a way that strategically resists or partially accommodates the *Giregi* discourse. Journalists seek to realize depoliticized ethics by rejecting Partisan *Giregi* and by writing articles with professional information rather than making political claims. They also embrace Ordinary *Giregi* as a part of their identity, but act strategically to avoid becoming *Giregi* behind the scenes. Meanwhile, some journalists realize that they are “Gap(갑)”, those who are the

privileged, and that they are enjoying the professional benefits of being in a position of “Gap”. In this situation, they recognize that the ethical practice that was possible in the position of “Eul” becomes impossible, and as a result, they choose the ethical practice of leaving the journalism industry.

As described above, this study explores how wannabe and current journalists become an ethical journalist by reflecting on ethical values in spite of public distrust and criticism of the media in Korea. So far, *Giregi* discourse has been understood as a phenomenon that criticizes the public’s critique for unethical journalists and the structural problems of Korean media industry. However, rather than understanding the *Giregi* discourse in the macro context of criticizing the structure of the media industry, this study also focuses on wannabe and current journalists who are in the middle of *Giregi* discourse and are experiencing the actual implications of the discourse.

Keywords : *Giregi*, Journalistic Identity, Ordinary Ethics, Media Structure, Wannabe Journalist

Student Number : 2021-24156